머 리 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문무충효를 겸비한 참다운 인민의 령도자입니다. 그는 탁월한 사상리론가, 정치가이고 군사전략가이며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하고 효성이 지극한 충신, 효자의 귀감입니다.》

인류가 낳은 희세의 영웅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혁명력사는 탁월한 사상리론가, 정치활동가, 군사전략가로서 문무를 겸비한 위인의 력사이며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한 참된 혁명가만이 아로새길수 있는 불멸의 력사이다.

력사의 온갖 시련을 헤쳐오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정력적인 혁명활동이 있어 주체의 해발은 온 누리에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리고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기상은 온 세상을 진감하고있다.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야 할 새 세대 청소년학생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혁명력사》는 더없이 귀중한 사상정신적량식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혁명력사》는 력사적시기별로 중요내용을 선택하여 제목을 통속적으로 설정하고 중학교 학생들의 인식수준에 맞게 이야기식으로 서술하는데 힘을 넣었다.

모든 학생들은 교재내용을 깊이 연구학습하고 그에 담겨져있는 **김정일**장군님의 사상리론과 령도업적, 풍모의 위대성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장군님께서 그처럼 념원하시던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의 령도를 적극 받들어나가는 참된 혁명전사가 되여야 할것이다.

차 례

제 1 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탄생, 학생청소년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참된 아들딸로 준비시키기 위한 활동 전개

〔주체31(1942). 2—주체49(1960). 8〕

1.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탄생

백두산의 아들로 탄생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주체31(1942)년 2월 16일 백두산밀영(량강도 삼지연군)에서 탄생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백두산은 나의 고향입니다.》

백두산정의 장군봉에서 남동쪽으로 수십리 떨어진 곳에 **정일**봉이 솟아있고 그밑으로 맑은 물이 흐르는 소백수골이 있다. 그 소백수골에 백두산밀영이 있다.

백두산밀영은 주체25(1936)년 9월에 꾸려진 다음 조국이 해방될 때까지 조선혁명의 사령부가 자리잡고있던 곳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백두산밀영을 중심으로 백두산을 타고앉으시여 전반적조선혁명을 령도하시면서 조국해방의 대사변준비

력사적인 날의 신비로운 날씨

주체31(1942)년 2월 16일이였다.

전날까지도 눈바람이 사납게 울었고 기온이 -40℃를 오르내리였지만 그날만은 신기하게도 바람이 잦아들고 기온이 올랐다. 소백수의 맑은 물도 정갈한 입김을 뿜어 골짜기에 하얀 서리꽃동산을 아름답게 펼치였고 장수봉(오늘의 **정일**봉) 정수리에서는 은백색꽃보라가 쏟아져내렸다.

그것은 보기 드문 황홀경이였다.

를 정력적으로 다그치시였다. 그리하여 일제침략자들을 패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조국해방의 날을 앞당겨나가시였다.

이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탄생은 우리 혁명의 창창한 미래를 담보해주는 찬란한 해돋이였고 민족의 크나큰 경사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성스러운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백두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위대한 장군님을 백두광명성으로 칭송하였다. 그것은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뒤를 이어 장차 조선혁명의 미래의 태양이 되여주실것을 바라는 뜨거운 마음에서였다.

백두산밀영을 다녀간 통신원들로부터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생하시였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각지의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와 소조, 정치공작원들은 기쁨과 감격에 넘쳐 《백두광명성 만세》의 환호성을 터치였다.

그들은 밀영주변과 국내 도처의 아름드리나무들에 백두광명성 탄생을 알리는 글발을 새기였다.

《아 조선아 겨레들아 백두광명성탄생을 알린다》, 《백두산에 **김일성**장군의 계승인 백두광명성 탄생》, 《백두광명성 빛나는 조선의 미래 찬란하다 독립조선의 대통운》, 《백두산에 솟아난 백두태양성 2천만이여 만방에 자랑하자》

보면 볼수록 새기면 새길수록 민족의 대행운을 맞이한 환희와 조국의 창창한 미래에 대한 크나큰 기대가 뜨겁게 안겨오는 글발들이다. 오늘도 이 글발들은 옛모습 그대로 보존되여 밀영을 찾는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광명성으로 탄생하시였다는 소식은 인민들에게 조국해방의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고 일제놈들에게는 커다란 공포와 불안을 주었다.

1944년 1월 무산군 삼장경찰서장이 함경북도경찰부장앞으로 보낸 비밀문건에는 하늘이 낸 옥동자가 백두산의 삼지연에서 출생하였다는 선전이 민심을 크게 혼란시켰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하늘이 낸 이 옥동자는 조선을 독립시킬 장군으로 된다고 하였은즉 조선은 반드시 가까운 장래에 독립된다.》고 비명을 질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탄생후 몇달이 지나서

야 아버님이신 **김일성**장군님의 품에 안기시여 뜨거운 축복을 받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소부대활동을 지도하시다가 백두산밀영에 돌아오신것은 주체31(1942)년 6월이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아드님을 안으시고 녀대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을 반갑게 맞으시였다. 우리 민족의 력사에서 가장 걸출한 3대위인을 백두산에 함께 모신것은 이때가 처음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정숙어머님으로부터 아드님을 받아안으시고 백두의 기상이 넘쳐나는 아드님의 얼굴을 이윽토록 들여다보시였다. 그러시다가 김정숙어머님께 후대들을 잘 키워서 혁명의 대를 잇게 하자고, 백두산에서 높이 추켜든 혁명의 붉은기를 후대들이 대를 이어 들고나가도록 하는것이 우리의 뜻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조선혁명을 대를 이어 계승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백두산에서 탄생하신 때로부터 시작되였다.

백두산밀영 발굴

나라가 해방된 다음 수십년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백두산밀영의 귀틀집들은 무너지고 그우에는 진대나무와 락엽만이 두텁게 쌓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백두산밀영을 찾기 위하여 항일혁명투사선생님을 여러차례 현지에 파견하시였다.

포수출신인 선생님은 누구보다 산세에 밝았지만 백두산이 워낙 험한 무인지경이여서 번번이 소득없이 돌아왔다.

이것을 못내 안타깝게 여겨오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75(1986)년 70고령의 몸으로 몸소 여러날 현지를 밟으시며 끝내 밀영지의 옛터를 찾아주시였다.

위대한 혁명적가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가정은 력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가장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만경대가문은 대대로 나라

에는 애국충정을 바치고 혁명사업에는 헌신하며 부모에게는 효도를 다하는 가문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가정은 만민이 높이 모시고 따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을 모신 세상에 둘도 없는 위대한 혁명적가정이였다.

아버님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은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이시고 강철의 령장, 전설적영웅으로 온 세상에 명성을 떨치신 백두산의 장군이시며 20세기가 낳은 인류의 태양이시다.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혁명투쟁에 참가하시여 한평생을 인민대중을 위한 성스러운 혁명위업에 바치시였다. 그 과정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뿐아니라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높이 우러르는 위대한 수령으로 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력사의 새 시대, 주체시대를 열어놓으시였으며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우리 시대 인민들에게 가장 옳바른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시였다. 그 길을 따라 세계 수억만 인민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여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길에 들어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백두산에서 개척하신 조선혁명을 가장 어렵고 복잡한 속에서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였다.

일제를 때려부시고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추종국가군대들의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시였으며 이 땅우에 인민대중중심의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민족해방혁명과 새 사회 건설에 떨쳐나선 세계 혁명적인민들을 적극 도우시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여 세계혁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언제나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인으로 내세우시고 육친의 정으로 보살펴주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고

세계정치의 원로이시였으며 강철의 령장이시고 인류의 영원한 태양이시다.

어머님이신 김정숙녀사는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생을 깡그리 바치신 항일의 녀성영웅이시다.

어린시절부터 갖은 고생과 불행을 다 겪으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일찌기 혁명투쟁에 참가하시여 력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남기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수령님을 결사옹위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간고하였던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손에 총을 잡으시고 수많은 전투들에 참가하시였으며 어려운 혁명임무도 맡으시였다. 그 력사의 나날에 어머님께서는 뛰여난 군사적지략과 지도적수완, 무비의 영웅성과 희생성을 지닌 백두의 녀장군으로 이름 떨치시였다. 나라가 해방된 다음에는 그리운 고향땅을 찾는 일도 뒤로 미루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사업을 보좌해드리시면서 새 조국 건설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숭고한 풍모를 지니시고 동지들과 인민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으며 그들의 생활을 언제나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이처럼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님은 민족의 위대한 딸이시였고 탁월한 녀성혁명가, 백두산의 녀장군이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가정은 일가분들모두가 대를 이어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한생을 바쳐 싸우신 열렬한 애국자들이시였으며 혁명가들이시였다.

고조할아버님이신 김응우선생님은 미제침략선 《셔먼》호를 격침시키는 싸움에서 위훈을 떨치시였다.

증조할아버님이신 김보현선생님과 증조할머님이신 리보익녀사는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싸움에 자제분들을 내세우시고 놈들과 견결히 맞서싸우신 애국자들이시였다.

할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은 지원의 사상을 지니시고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한생을 바쳐 싸우신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였다.

선생님께서는 고귀한 생애를 마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 그 어떤 재부와도 비길수 없는 유산을 남기시였다. 그것은 지원의

사상, 3대각오, 동지획득에 대한 사상, 두자루의 권총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유산을 받아안으시고 혁명투쟁에 나서시였다.

할머님이신 강반석녀사는 나라를 찾기 위하여, 녀성들의 사회적해방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시였으며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였다.

작은할아버님이신 김형권선생님과 삼촌이신 김철주선생님, 외삼촌들이신 김기준선생님과 김기송선생님도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에 참가하여 나라 찾는 위업에 한몸 바치신 불굴의 혁명투사들이시였다.

대대로 내려오면서 일가분들모두가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열렬히 싸우신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일찍부터 탁월한 령도자, 민족의 위대한 아들로서 숭고한 풍모를 갖추고 성장하실수 있게 한 고귀한 터전으로 되였다.

3대각오—굶어죽을 각오, 매맞아죽을 각오, 얼어죽을 각오.

민족해방혁명—식민지 또는 반식민지인민들이 외래제국주의침략세력을 몰아내고 민족적해방을 이룩하며 부강하고 선진적인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혁명투쟁.

2.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

유년시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린시절부터 남달리 뛰여난 천품을 지니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관찰력이 비상하고 탐구심이 매우 강하시였다.

백두산의 정기를 타고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연이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그저 스쳐보내지 않으시였다. 모든 현상을 세심하게 관찰하시고 의문스러운 문제는 끝까지 파고드시였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
> 6살에 발견하신 원리
>
> - 이 세상에서 사람이 제일이라는것.
> - 하나에다 하나를 더해도 하나가 되는것이 있다는것.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부터 담력이 크고 배짱이 세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린시절에 지니신 담력과 배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탄복하였다.

해방직후 몹시 추운 겨울 어느날 우리 나라에 와있던 이전 쏘련 군대 장령이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오려고 댁에 찾아왔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몸집이 크고 얼굴이 범같이 생긴 그를 막아나서시며 지금 이 시간에는 아버지장군님을 만날수 없다고 하시면서 점심시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였다. 그 장령은 위대한 장군님의 담력과 배짱에 탄복하여 그이를 《어린 영웅》, 《소년장군》이라고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도량이 넓고 소탈하시였으며 동무들을 뜨겁게 대하시였다.

일찌기 어린시절부터 지니신 이러한 천품은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위대한 혁명가, 탁월한 령도자, 백두산장군의 품격을 갖출수 있게 한 바탕으로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부모님의 혁명적이며 세심한 교양과 영향을 받으시며 뛰여난 천품을 더욱 빛내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날 김정숙어머님과 함께 소백수골의 오솔길을 걸으시며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들앞에는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해방하며 나아가서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나는 우리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이 성스러운 과업을 다하지 못하면 대를 이어 아들이 하고 아들이 못다한다면 손자대에 가서라도 기어이 이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고야말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아드님을 잘 키워야 하겠다고 당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님의 세심한 교양속에서 령도자의 자질을 갖추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님의 교양을 받으시며 열렬한 애국심을 지니시였으며 지식의 폭을 넓히시였다. 특히 아버님처럼 만경대혁명일가분들의 혁명정신을 계승하여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할 결심을 굳게 다지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에 어머님으로부터 혁명적교양과 영향을 많이 받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동무들은 내가 **김정일**동무를 후계자로 키워냈다고 하지만 사실 그 기초는 김정숙이 쌓아놓은것입니다. 그가 혁명앞에 남긴 가장 큰 공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말을 처음 배우실 때 어머님한테서 **김일성**장군이라는 말부터 배우시였다. 특히 어버이수령님을 해님으로 높이 모시고 언제나 해바라기처럼 따르며 아버님의 뒤를 꽉 이어야 한다고 하신 어머님의 말씀을 가슴깊이 새기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자신은 수령님을 보위하는 경위대원이라고 하시며 수령님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신 어머님의 숭고한 모습에서 커다란 영향을 받으시였다.

어머님의 이렇듯 세심한 교양과 영향을 받으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높은 충실성을 키우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주 어머님과 함께 보통강개수공사장과 모내기를 하는 농촌에 나가시여 어머님의 일손을 도우시였다.

그 과정에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인민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치시는 어머님의 뜨거운 정신을 본받으시였다.

부모님들로부터 받으신 혁명적교양과 영향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지니신 뛰여난 천품을 더욱 빛나게 하여주었으며 일찍부터 위대한 혁명가, 탁월한 령도자, 백두산장군의 품격을 더 잘 갖출수 있게 하였다.

전쟁의 불길속에서 성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수많은 사변들을 보고 체험하시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여 조국이 있고 전쟁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과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더욱 굳게 가지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그때 나는 전화의 불길속에서 사람들이 수십년을 두고도 간직할수 없었던 가장 고귀한것을 체득할수 있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은 나의 생활에서 잊을수 없는 력사적시기였습니다.》

갓 창건된 우리 공화국은 미제가 일으킨 전쟁으로 하여 준엄한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나날에 김형직선생님과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걸으신 그 험한 천리길을 걸으시며 거리와 마을을 재더미로 만든 미제놈들을 끝없이 증오하시였다. 그리고 미제와 굴함없이 싸우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인 투쟁모습을 보시며 승리한 조국의 래일을 굳게 확신하시였다.

이러한 신념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장자산 설매골에서 당창건 5돐을 기념하여 어린 동생과 함께 두그루의 잣나무를 심으시고 학생들이 한그루의 나무라도 아끼고 사랑하도록 일깨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41(1952)년 6월 평안북도를 현지지도하시는 어버이수령님과 동행하시면서 미국놈의 비행기들과 싸우는 인민군비행사들의 용감한 투쟁모습과 전시식량증산을 위하여 일떠선 농민들의 투쟁모습을 보시였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락원의 10명 당원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시며 필승의 신념을 더욱 굳게 간직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최고사령부에 계시면서 어버이수령님의 탁월한 령도력과 고매한 풍모, 최고사령부를 해치려는 적들의 책동도 직접 보시였다.

어느날 반당반혁명분자들은 무전으로 최고사령부위치를 대주면서 그곳을 폭격하게 하였다.

무전련락을 받은 수십대에 달하는 미국놈비행기들은 최고사령부가 자리잡고있던 골짜기를 샅샅이 뒤지며 폭격하였으며 최고사령부 건물곁에는 큰 시한탄까지 떨구었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의 호위사업을 맡아보던 한 일군이 호위성원들에게 결사전을 호소한 다음 그들과 함께 그 시한탄을 목도로 메다가 골짜기에 던졌다. 호위성원들의 결사적인 투쟁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최고사령부는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쟁의 준엄한 현실을 체험하시면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은 전적으로 어버이수령님께 달려있으며 수령님께서 계시여 전쟁의 승리와 래일의 번영이 마련되여가고있다는것을 심장으로 체득하시였다. 그리고 안팎의 원쑤들의 공격으로부터 위대한

수령님을 견결히 옹위하고 더 잘 모셔야 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다지시였다.

이러한 신념과 의지는 친히 창작하신 가요 《조국의 품》과 위대한 수령님께 올린 편지에서 뚜렷이 표현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41(1952)년 8월에 가요 《조국의 품》을 창작하시고 그 이듬해 6월에는 어버이수령님께 편지를 올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가요와 편지에 조국의 품은 곧 어버이수령님의 품이며 수령님의 안녕은 전체 조선인민의 행복이고 수령님을 잘 모시고 옹호보위하여야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구원될수 있다는 절절한 뜻을 담으시였다.

이 신념과 의지는 그후 위대한 장군님께서 벌리신 모든 활동의 초석으로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습과 조직생활을 통하여 혁명가로서의 풍모를 더 잘 갖추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습도 생활도 전투적으로 하라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공부하시였다. 그리하여 그처럼 어려운 전쟁시기에도 한해동안에 두 학년에서 배울 내용을 완전히 익히시였다.

학교에서 배워주는 모든 학과목을 환히 정통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러 분야의 지식을 배우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라는 전투적구호를 내놓으시고 학생들을 학습전투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습뿐아니라 소년단생활에도 잘 참가하시고 조직에서 주는 분공도 어김없이 수행하시였다. 학생들을 발동하여 전선을 돕는 사업과 연예선전대활동도 활발히 벌리시였다.

어리실 때부터 비범한 천품을 지니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부모님들의 혁명적교양과 영향,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시련속에서 위대한 령도자의 풍모를 훌륭히 갖추어나가시였다.

고매한 풍모—사상이나 인품이 매우 고상하고 뛰여난것.

신념—자신이 체득한 사상과 견해에 대한 굳은 믿음, 그것을 끝까지 실현하려는 강한 지향이 결부된 사상.

3. **김일성**장군의 략전연구소조 결성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부터 학생청소년들속에서 어버이수령님을 따라배우기 위한 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였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배우는 사업을 벌리는것은 그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참된 아들딸로 준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시기에 학생청소년들속에서 **김일성**장군의 략전연구소조를 결성하시고 활발히 운영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님의 혁명력사에 대한 학습을 할데 대한 문제는 결코 오늘에 와서 처음으로 제기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쟁시기에도 이 문제를 중시하고 소년단원들로 **김일성**장군의 략전연구소조를 조직하여가지고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열심히 학습하도록 하였습니다.》

《**김일성**장군의 략전》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발기와 관심속에 편찬되여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40돐을 맞으며 처음 세상에 나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최고사령부에 계실 때에 《**김일성**장군의 략전》을 읽으시면서 아버지장군님이시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분이시라는것을 깊이 느끼시였다.

그런데 당시 당사상사업을 맡아보던 사람들은 《**김일성**장군의 략전》을 가지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군인들을 교양할 대신 다른 나라의것만을 선전하였다.

주체41(1952)년 11월에 만경대혁명학원에 편입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2월 어느날 학원의 소년단지도원선생님을 만나시였다. 그러시고는 최고사령부에 계실 때 읽으신 《**김일성**장군의 략전》을 내놓으시며 학원안에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배우는 연구소조를 내올것을 제기하시였다.

이 제기는 교원들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체없이 **김일성**장군의 략전연구소조를 내오기 위한 준비사업을 다그치시였다.

먼저 학생청소년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배우기 위한 학

습분위기를 세우는데 힘쓰시였다.

몸소 《**김일성**장군의 략전》내용을 해설해주시고 연구토론회도 자주 조직하시였다. 그리고 주체42(1953)년 2월 6일 략전학습에서 모범적인 소년단원들과 분단열성자들의 모임을 여시고 소조를 조직하려는 취지와 소조의 목적, 그 명칭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러한 준비사업에 기초하여 2월 10일 학급소년단원들의 모임에서 **김일성**장군의 략전연구소조를 결성하시였다.

략전연구소조의 목적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학습을 통하여 학원 학생들을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조선혁명의 기둥으로 준비시키는데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결성하신 **김일성**장군의 략전연구소조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과 혁명업적, 고매한 덕성을 따라배우기 위한 첫 혁명력사연구소조였다. 소조가 결성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일성**장군의 략전연구소조를 결성하신 다음 소조활동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시였다.

략전연구소조는 《**김일성**장군의 략전》을 교재로 삼고 주에 한번씩 운영하였는데 기본형식은 독보와 해설, 연구발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소조활동을 활발히 벌리기 위하여 모든 소조원들이 략전의 내용을 환히 꿰들도록 하시였으며 읽은 내용 발표모임도 자주 조직하시였다.

발표모임에 참석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몸소 출연하시여 만경대의 고향집과 들메나무, 군함바위와 씨름터에 깃든 수령님의 어린시절이야기들을 생동하게 들려주시였다. 때로는 증조부모님들과의 상봉모임을 조직하시였으며 소조원들을 준비시켜 학원주변에 있는 마을사람들속에서 략전내용을 해설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략전해설은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보여주는 사진첩을 가지고 노래와 시랑송을 배합하면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략전연구소조활동이 높은 수준에 올라서자 략전연구소조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드시였다.

주체42(1953)년 3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원의 민청, 소년단열성자들의 모임에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41돐을 맞으며 학원의 모든 학생청소년들이 **김일성**장군의 략전연구소조원이 될것을 결의하는 모임을 조직할것을 제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활동으로 **김일성**장군의 략전연구소조는 학원의 모든 학급들에 조직되였으며 어버이수령님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은 넓은 범위로 확대되여나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발기와 지도밑에 조직운영된 **김일성**장군의 략전연구소조는 간고하고 준엄한 전쟁시기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으로 교양하고 그들을 수령님께 충실한 아들딸로 키우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소조활동의 경험과 업적은 그후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배우는 사업을 심화발전시키는데서 귀중한 밑천으로 되였다.

략전—탁월한 수령들, 저명한 인사들의 경력과 활동내용을 생활로정에 따라 함축하여 쓴 글.

4.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길 개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생청소년들속에서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통한 교양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답사를 통한 교양사업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생동한 자료로 인식시키는것으로 하여 수령님을 따라배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그런데 당시까지만 하여도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책동으로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이 옳게 꾸려지지 못하였고 그에 대한 답사도 진행되지 않고있었다. 학교들에서도 명승고적들을 돌아보고 등산, 야영 같은것을 많이 조직하였지만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답사에는 관심을 돌리지 않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시기에 만경대와 칠골혁명사적지에 대한 참관사업을 조직하시였다.

평양제1중학교에서 공부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

44(1955)년 4월 학생들을 이끄시고 만경대와 칠골혁명사적지를 참관하시였다.

사적지참관을 통하여 모든 학생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가정과 어린시절을 더 잘 알게 되였으며 그들속에서 수령님의 어린시절을 따라배우려는 열의가 더욱 높아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경험에 기초하여 주체45(1956)년 5월 어버이수령님께 학생소년들로 답사단을 무어 보천보전투승리기념일을 계기로 량강도안의 혁명전적지들을 답사하려는 의향을 말씀드리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보천보전투가 있은지도 열아홉해가 되였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생각을 적극 지지해주시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전적지에 가서 산도 넘어보고 밀림도 헤치면서 항일유격대원들이 걸은 길을 따라 걸어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나라 속담에 《첫 새벽문을 열면 오복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다, 물론 한가정의 새벽문을 여는것은 그리 힘든것이 없다, 하지만 조국과 인민, 당과 혁명을 위하여 나라의 첫 새벽문을 열고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초행길을 걷는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그런 일은 가장 영광스럽고 보람찬 일로 되는것이다, 혁명전적지에 대한 첫 답사가 바로 그렇다고 생각한다, 초행길인것만큼 굳게 마음을 먹고 한번 걸어보라고 고무해주시였다.

> **혁명사적지**
>
> 백두산위인들과 일가분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깃들어있는 지역 또는 장소.
>
> 혁명사적지에는 혁명사적건물, 혁명사적장소 등이 있고 혁명사적기념비가 세워져있으며 특성에 따라 동상, 대기념비, 혁명박물관, 혁명사적관 등이 꾸려져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가슴깊이 새기며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에 대한 답사행군을 조직하시고 그 과정을 앞장에서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소년들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단을 무으시고 소년단모임에서 답사기간에 해야 할 사업내용을 토의하신 다음 답사준비를 면밀히 갖추게 하시였다.

이때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은 혁명전적지답사가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행군이라느니, 명승고적을 견학하는것이 좋을것이라느니 하면서 시비해나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방해책동을 단호히 물리치고 혁명전적지답사준비를 다그치시였다. 한편 답사를 떠나기에 앞서 학생들에게 혁명전적지답사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전통을 깊이 학습해야 한다고 하시며 답사목적도 밝혀주시였다.

답사행군의 목적은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새겨져있는 로정을 따라 행군도 해보면서 수령님의 령도따라 항일유격대원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련과 난관을 헤치며 싸워 오늘의 승리를 가져왔는가 하는것을 배우는데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해 6월 5일부터 14일까지 평양제1중학교 학생들로 무어진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오를 이끄시고 보천보와 삼지연, 리명수일대에 있는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답사행군을 진행하시였다.

유서깊은 혁명전적지 보천보에 도착하시자 답사행군대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부터 찾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에 꽃다발을 드리고 정중히 인사를 올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오를 이끄시고 보천보시가의 전투장소들을 돌아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끄신 답사대오는 보천보를 떠나 삼지연을 거쳐 《갑무경비도로》를 따라 행군하였으며 그 다음날에는 60여리의 험한 산길을 넘어 리명수에 도착하였다.

> **혁명전적지**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일가분들이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이 깃들어있는 지역 또는 장소. 혁명사적지의 한 형태이다.
>
> 혁명전적지에는 혁명전적과 관련된 장소, 건물 등이 있고 혁명사적기념비가 세워져있으며 특성에 따라 동상, 대기념비, 혁명박물관 등이 꾸려져있다.

답사행군대오가 삼지연못가를 떠나 《갑무경비도로》를 따라 행군할 때 일부 답사단성원들은 뻐스를 타려고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거느리고 행군하신 《갑무경비도로》를 우리가 어떻게 자동차

를 타고 갈수 있겠는가고 하시면서 우리도 항일유격대원들처럼 행군해가자고 호소하시였다.

답사행군대오는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항일유격대원들처럼 배낭을 메고 《유격대행진곡》을 부르며 《갑무경비도로》로 씩씩하게 행군해갔다.

이 행군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거느리시고 이 도로를 따라 행군하신 후 17년만에 혁명의 새 세대들이 그날에 휘날렸던 붉은기를 높이 들고 혁명가요를 힘차게 부르며 진행한 력사적인 첫 행군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혁명전적지답사행군정형에 대한 중간총화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이번에 진행한 우리들의 혁명전적지답사는 이곳 인민들도 한결같이 말하는것처럼 지금까지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혁명전적지답사의 첫 시작이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답사행군의 전과정에 모든 학생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탁월한 전략전술과 령도의 현명성을 깊이 깨닫고 유격대원들의 투쟁정신을 적극 따라배우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리고 량강도안의 학생들과 일군들에게 혁명전적지들을 잘 꾸리며 답사로정을 앞으로는 보천보로부터 백두산마루까지로 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를 성과적으로 끝내고 평양에 돌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 혁명전적지답사단의 활동정형을 보고하시였다.

혁명전적지들이 응당한 수준에서 꾸려지지 못한데 대해서와 적지 않은 대상들은 자연상태 그대로 있는데 대하여 말씀드리시였다. 그러시면서 이미 꾸려놓은 전적지들에 대한 관리와 그를 통한 혁명전통교양사업도 잘되지 않고있는 실태를 그대로 보고드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렇듯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백두산혁명전적지답사길이 개척되였으며 그후 백두산일대의 혁명전적지들을 훌륭히 꾸릴수 있게 되였다.

5. 반당종파분자들에 대한 단호한 반격

위대한 수령님을 견결히 옹호하고 보위하는것은 전후에 와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그것은 이 시기 당안에 기여든 반당종파분자들이 외부세력을 등에 업고 당과 정부를 반대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기때문이다.

이 준엄한 시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반당종파분자들과 맞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시였다.

주체45(1956)년 5월 평양제1중학교에서는 당 제3차대회에서 제시된 제1차 5개년계획의 전망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강연에 출연한자는 반당종파분자였다.

그자는 터무니없게도 우리 나라에서는 자동차나 뜨락또르와 같은 큰 기계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우리 당이 내놓은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헐뜯는 허튼소리를 줴쳐댔다. 그런데도 학생들은 그것을 옳게 가려보지 못하고있었다.

강사의 말이 끝나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분연히 자리에서 일어나시여 강연에 의견이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자동차나 뜨락또르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하는것은 아버지원수님의 사상과는 완전히 어긋난다, 원수님께서는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것을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으로 제시하시였다, 그런데 기계들을 생산하지 않고 외국에서 사다쓴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정확히 말해주기를 바란다고 하시였다.

사리정연하고 단호한 반격에 강사는 말문이 막혀 공연히 손만 허우적거리다가 우에서 받아온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다나니 그렇게 되였다고 하고는 바삐 달아나버리고말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심중한 안색을 지으시며 학생들에게 오늘 강연이 아주 잘못되였다, 우리는 누가 말하든지 그것이 아버지원수님의 혁명사상과 맞는가를 따져보고 맞지 않을 때에는 즉시에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반당종파분자들의 책동을 제때에 가려보시고 그 자리에서 반격을 가하신것은 교원,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크게 각성시켰으며 우리 당의 반종파투쟁에서 큰 의의를 가지였다.

반당종파분자들의 책동은 1956년 당중앙위원회 8월전원회의를 계기로 더욱 악랄해졌다.

당안에 숨어있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을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정면으로 공격해나섰다. 놈들의 책동은 당과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무장폭동을 일으킬 음모를 꾸미는데까지 이르렀다. 때를 같이하여 미제와 리승만괴뢰도당은 북진나발을 불어댔으며 대국주의자들과 현대수정주의자들은 우리 당에 압력을 가하여왔다.

이러한 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도전해나서는 반당종파분자들에게 단호한 반격을 가하여 그자들을 무자비하게 박멸해야 한다는 각오를 굳게 다지시였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8월전원회의가 있은 다음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후시기의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시며 밤을 지새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안녕을 지켜드리면서 수령님과 함께 새날을 맞군 하시였다.

어느날 새벽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과 함께 정원을 거니시며 지금 적들이 사면팔방에서 달려들고있다, 력량을 따지면 1:5라고 말할수 있다, 나라를 책임졌다면 어떻게 하겠는가고 물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놈들의 도전에 박멸로 대답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대답을 긍정해주시고 역적중의 역적인 반당종파분자들은 박멸해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것은 내가 30년동안 혁명투쟁을 해오면서 찾은 피의 교훈이다, 나는 내가 찾은 인생의 준엄한 교훈을 유산으로 넘겨주려고 하였는데 벌써 그것을 마음속에 혁명의 진리로 간직하였고 성격과 기질로 굳혔으니 좋은 일이라고 하시였다.

이런 대화가 있은 다음 반당종파분자들의 머리우에 철추가 내려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때 자신께서 애용하시던 수첩에 《살아도 죽어도 수령님을 위하여! 1956년 9월 10일 **김정일**》이라는 글을 남기시였다.

그때로부터 한해가 지난 주체46(1957)년 11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일군에게 지난해 8～9월은 우리 당과 위대한 수령님께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도 며칠에 한두시간씩은 주무셨는데 지난해의 어려운 시기에는 닷새밤을 한두시간도 주무시나마나 하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밤을 지새우실 때 나도 수령님의 침실밖에서 밤을 꼬박 지새웠다, 그때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지켜드리면서 앞으로 수령님께서 어려운 길을 걸으시지 않게 해드리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성하리라는 비장한 맹세를 굳게 다졌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며 나는 수령님과 함께 밤을 지새우면서 마음의 기둥으로 높이 세운 사명을 담아 《살아도 죽어도 수령님을 위하여!》라는 글을 기념으로 남겼다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신념의 글발을 가슴깊이 새기고 학생청년들속에서 당적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시였다.

6. 학생청소년들속에서 주체 확립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청소년들속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전후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이미 있던 리론이나 남의 경험에 의거하지 말고 주체적립장에서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였다. 더우기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퍼뜨린 사대주의와 교조주의가 심했던 조건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은 더욱 절박한 요구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모든것을 깊이 헤아리시고 주체44(1955)년 12월 당선전선동일군들앞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철저히 세울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생청소년들의 머리속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뿌리빼는데 선차적인 주의를 돌리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로작을 깊이 연구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 밝혀진 사상과 의도를 자신의 신념으로 깊이 간직하시였다.

주체45(1956)년 12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당선전선동일군들앞에서 하신 연설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를 다시금 깊이 연구하시였다. 그때 로작학습과정에 느끼신 점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탐구하고 사색하고 학습해야 하는가를 명백하게 밝혀주는 참된 생활의 교과서라고 써놓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바로 이런분이시였기에 남의것을 덮어놓고 숭배하면서 교조적으로 대하는 현상에 대하여서는 조금도 묵과하지 않으시였다.

주체45(1956)년 2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들과 함께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참관하시였다. 그때 강사는 불뿜는 적의 화구를 자기 몸으로 막은 우리 나라의 이름난 육탄영웅 리수복을 《조선의 마뜨로쏘브》라고 해설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들에게 항일무장투쟁시기에도 적의 화구를 몸으로 막은 영웅이 있었다, 리수복영웅은 항일혁명선렬들의 이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 싸운것이지 결코 남의 나라 영웅을 본받아 싸운것이 아니라고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영웅을 모독하게 되고 자기 인민을 무시하게 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생들이 학습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도록 하시였다.

> 항일혁명투사 김진
>
> 세계혁명력사에서 처음으로 적의 화구를 가슴으로 막은 첫 영웅이다.
>
> 주체1(1912)년 11월 26일에 출생하였으며 주체24(1935)년 봄에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였다.
>
> 주체28(1939)년 8월 안투(안도)현 다사하(대사하)전투에 참가하여 적의 화구를 몸으로 막아 부대의 돌격로를 개척하였다.

반당종파분자들은 교육부문에서도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내리먹이였다. 놈들은 우리 나라에는 학생들에게 배워줄만 한것이 없기때문에 다른 나라의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떠벌이였다. 지어는 다른 나라에 류학을 갔다와야 기술자구실을 할수 있다고 하였다. 교육부문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가 이처럼 심하다보니 그때 인민학교와 초고중교과서들에는 우리 나라의것보다 다른 나라의것이 더 많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46(1957)년 9월 평양제1중학교 민청초급단체총회를 소집하시고 학습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우리의것을 더 잘 배우고 빛내이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학습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우리의것을 더 잘 배우고 빛내이자!》라는 구호는 학습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전환점을 마련한 전투적구호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습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세심히 이끌어주시였다. 무엇보다 모든 학생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의 력사를 깊이 연구체득하며 력사와 문화, 자연과 지리 등 우리의것을 열심히 배우도록 하시였다. 또한 옳바른 학습관점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 혁명과 건설에 써먹을수 있는 산지식을 체득하게 하시였다. 때로는 혁명의 요람 만경대를 견학하고 리수복영웅의 모교와 고향집도 찾아보게 하며 혁명가요도 보급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발기로 진행된 이러한 사업들은 학생들을 우리 혁명의 력사적뿌리와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을 잘 알고 그것을 귀중히 여기며 빛내이기 위해 적극 투쟁하는 주체가 선 새 세대들로 키우기 위한 중요한 교육교양과정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생들의 과외활동에서도 주체를 철저히 세우도록 하시였다.

이 시기 학교에서는 희귀한 남방식물들만 온실에서 키우며 연구하였고 노래를 불러도 다른 나라 노래를 부르고 그림을 그려도 다른 나라 풍경을 그리는것을 좋아하였다.

문학소조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시랑송의 밤》에 읊은 시란 남의 나라 서정시들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교의 예술소조와 미술소조사업을 지도하시면서 학생들이 우리 나라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시였으며 미술소조원들이 조선화기법을 익히도록 깨우쳐주시였다. 또한 학교에 실험실습실과 생산실습실을 꾸리고 고장난 자동차와 전동기를

수리하고 운전해보면서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습득하고 자기 힘으로 모든것을 풀어나가는 습성도 키우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학생청소년들속에서는 사대주의적이며 교조주의적인 현상이 점차 없어지고 우리의것을 더 잘 배우며 빛내여나가려는 관점과 립장이 확고히 서가게 되였다.

사대주의—큰 나라, 발전된 나라를 섬기고 숭배하는 노예적굴종사상이며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스스로 낮추보고 멸시하는 민족허무주의사상.

마뜨로쏘브—이전 쏘련의 조국전쟁시기의 영웅.
1943년 2월 적의 화점에 접근하여 화구를 막고 희생됨으로써 그가 배속된 분대의 공격을 보장하였다.

7. 학생청년들속에서 당적사상체계 확립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7(1958)년 3월 당대표자회에서 종파분자들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총화하시고 당적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당대표자회에서 제시된 방침을 높이 받들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들속에서 종파주의의 여독을 청산하고 당적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생들속에서 종파주의의 여독을 청산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다.

종파분자들의 사상여독을 청산하고 당적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자면 무엇보다도 모든 학생들에게 종파가 무엇이고 어떻게 생겨났으며 놈들의 죄행과 해독성은 무엇이며 우리 당이 종파분자들을 어떻게 청산하였는가를 잘 알려주어야 하였다.

주체47(1958)년 4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평양제1중학교 고급반 1학년 민청초급일군들과 담화를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담화에서 종파란 한마디로 당과 혁명은 안중에 없이 자기 개인의 명예와 사리사욕만을 위해 당과 혁명을 반대하여나선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집단이라고 지적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나라에서 종파가 발생하게 된 력사적근원, 종파분자들

의 죄행과 그 해독성, 나아가서는 종파분자들을 청산한 우리 당의 조치의 정당성에 대하여 깊이 인식시키시였다.

종파분자들의 죄행과 해독성을 깊이 분석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력사적경험은 종파분자들에 대하여 사소한 환상도 가져서는 안된다는것을 보여준다고 하시면서 종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나서는 과업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상교양사업을 앞세운데 기초하여 주체47(1958)년 6월말 당대표자회 문헌을 접수토의하는 학교민청총회를 소집하시고 이 회의가 사상투쟁회의로 되도록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회의에서 하신 결론에서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사상여독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잘하려면 종파분자란 어떤 자들이며 그놈들의 죄행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놈들의 죄행은 첫째로, 당의 령도를 거부하고 당의 통일단결을 파괴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한것이며 둘째로,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말살하려고 책동한것이며 셋째로, 사람들속에 부르죠아사상, 수정주의사상을 퍼뜨린것이라고 지적하시였다.

계속하여 몇몇 종파분자들이 제거되였다고 하여 앞으로 다시는 그런자들이 나오지 않을것이라고 단언할수는 없다, 우리는 당이 시련을 겪을 때마다 종파분자들이 머리를 쳐들고 당에 도전해나섰던 력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회의에서 또한 반종파투쟁에서 민청원들앞에 나서는 과업은 모든 민청원들이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는 참다운 투사가 되는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지도밑에 진행된 학교민청총회와 련이어 열린 민청초급단체총회들은 학생들속에서 종파의 여독을 뿌리빼고 그들의 정치적각성을 높이며 당적사상체계를 세워나가는데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당적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심화시켜나가시였다.

당대표자회 문헌을 접수토의하기 위한 민청총회가 있은 후에도 일부 학생청년들속에서는 당의 사상과 어긋나게 말하거나 당의 사상과 어긋나는것을 똑똑히 가려보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났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러한 현상을 바로잡고 당적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 주체47(1958)년 9월 학교민청총회를 소집하시였다.

회의에서 하신 결론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청년들속에서 당적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자!》라는 혁명적구호를 내놓으시고 당적사상체계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적사상체계는 본질에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체계입니다.

민청원들속에서 당적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민청단체들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 〈청년들속에서 당적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자!〉, 이것이 현시기 당의 요구이며 민청원들앞에 나서는 첫째가는 임무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적사상체계는 본질에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체계라고 하시면서 그 확립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을 밝혀주시였다.

그것은 첫째도 둘째도 민청원들속에서 당정책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였다. 이와 함께 항일혁명선렬들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우며 당의 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기풍을 세우고 민청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이였다.

민청총회에서 하신 결론은 학생들속에서 당적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회의가 있은 다음 학생들속에서 당적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시였다.

무엇보다 학생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를 구현한 당정책과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사상교양사업의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시였다.

그리고 학교민청사업을 당적사상체계를 세우는데 기본을 두고 조직해나가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학생들속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당정책을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옹호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 혁명적기풍이 확고히 서가게 되였다.

이것은 당적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에서 거둔 귀중한 성과였다.

당적사상체계—당의 령도자인 수령의 사상체계를 이르는 말.

수정주의—《창조적발전》의 간판밑에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뜯어고치려는 반혁명적사상.

8. 학교민청단체사업 개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45(1956)년 12월 12일 조선민주청년동맹에 가맹하신 다음 민청초급단체위원장, 학교민청부위원장(위원장은 교원)으로 사업하시면서 학생청년사업을 새롭게 혁신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다.

당시 학교민청단체들의 사업에서는 중심이 없었다. 여러가지 일들을 벌려놓기는 하였지만 건수를 채우기 위한 회의나 상급동맹조직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는 행사와 과외활동으로 동맹사업을 대치하고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교민청위원회의 임무를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민청원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혁명가로, 지식있고 능력있는 믿음직한 사회주의건설자로 키우는것, 이것이 바로 학교민청위원회의 임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교민청단체가 자기 임무에 맞게 학생들의 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동맹생활지도를 학습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학생들에게 배우는 목적을 똑똑히 인식시켜주기 위하여 잡지 《새 세대》 1957년 2호에 실린 지상토론에 대한 실효투쟁을 조직하도록 하시였다.

잡지 《새 세대》의 지상토론란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는 《그 과목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글이 실리였다. 이 글에서 편집부는 어느 산림전문학교의 한 학생이 장차 력사가가 될것을 희망하면서 력사나 문학공부는 열성적으로 하면서도 수학이나 물리과목과 같은 기초과목학습을 홀시하는 학습태도에 대

하여 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지상토론문제로 제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학습에 대한 관점과 태도는 학습을 하는 목적에서 뚜렷이 나타난다고 하시였다. 계속하여 우리가 배우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하자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잡지에 실린 지상토론에 대한 실효투쟁모임을 학습에서 새로운 개선이 일어날 때까지 반복하여 진행하게 하시였다.

이와 함께 학과경연대회, 과목별토론회, 독서발표회 등을 활발히 조직운영하여 집단안에 건전한 학습기풍을 세우도록 하시였다. 한편 과외소조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쓸모있는 산지식을 소유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지도밑에 학교민청조직들은 학습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그것을 동맹생활과 밀접히 결합하여 밀고나갔다. 그 과정에 학생청년들이 취미있는 한두과목이 아니라 모든 과목 학습을 잘하여 폭넓고 깊은 지식, 쓸모있는 산지식의 소유자로 자라나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민청조직들이 학생청년들속에서 동맹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48(1959)년 1월 겨울방학기간에 민청원들속에서 조직관념을 높여주기 위한 집중강습을 조직하시고 몸소 강의에도 출연하시였다. 또한 모든 민청원들이 동맹생활수첩을 갖추고 리용하면서 조직의 분공과 결정수행정형을 총화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맹조직생활을 강한 비판의 분위기속에서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주체46(1957)년 10월 어느날 민청초급단체위원회에서는 얼마후에 있게 될 총회준비사업을 토의하면서 한 초급단체위원에게 집체모임참가정형을 자료적으로 종합하여 결함이 많은 동무들을 이름을 찍어서 비판할데 대한 분공을 주었다.

분공을 받고 자료를 종합하던 그 위원은 난처한 문제에 부닥쳤다. 그것은 지난날 자기와 사이가 좋지 못했거나 가깝게 지내던 동무들이 비판대상자로 되였기때문이였다. 그런데다가 그는 새로운 임무를 받고 조동되는 아버지를 따라 다른 학교로 전학하게 되여있

었다. 이런 형편에서 동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해주고 떠날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자기가 맡은 분공을 다른 동무에게 맡겨줄것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아시게 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학생을 만나시여 우정에 금이 갈가봐 동무들의 결함에 대한 비판을 꺼려하는것은 참다운 동지애가 아니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비판하게 되면 동무들과의 사이가 멀어진다고 생각하는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일깨워주시였다.

총회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의도하시는대로 원만히 진행되였다. 그런데 비판을 받은 학생들가운데는 그것을 고깝게 생각하면서 비판한 동무를 멀리하는 학생도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학생을 만나시여 비판을 받으면 좀 아프지만 그것을 뜨겁게 받아들일줄 아는 사람만이 자기 잘못을 고쳐나갈수 있다고 하시면서 비판속에 참다운 동지적사랑이 있다고 일깨워주시였다.

그후 민청원들속에서는 조직관념이 높아지고 동맹생활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는 기풍이 서가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소년단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민청이 소년단사업을 책임지고 지도하도록 하시였다.

소년단원들은 혁명의 꽃봉오리이며 민청의 교대자이다. 그러므로 민청이 소년단에 대한 지도를 잘하는것은 모든 소년단원들을 혁명의 튼튼한 후비대로 키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46(1957)년 겨울방학기간에 민청원들을 소년단분단들에 내려보내여 소년단원들의 학습과 과외생활지도에서 좋은 경험을 창조하게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그해 2월에 상급학년의 준비된 민청원들로 분단지도원선생님들을 도와주는 새로운 사업체계로서 보조분단지도원제를 내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창조하시고 지도하신 보조분단지도원제는 소년단원들뿐아니라 민청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된 사회주의건설자로 키우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학교민청사업을 새롭게 혁신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심으로써 우리 나라 학생청년운동은 어버이수령님의 사

상과 령도를 더 높이 받들어나가는 청년운동으로 강화발전되여갔다.

조직관—당조직뿐아니라 당의 령도밑에 수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모든 사회정치적조직들에 대한 관점과 립장.

9. 수도건설지원전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7(1958)년 3월 전국청년사회주의건설자대회를 마련하시고 청년들이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로력투쟁에 적극 참가하여 선봉대, 돌격대의 영예를 떨칠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대회에 참가하시여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받아안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수령님의 원대한 수도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학생청년들을 불러일으키시였다.

주체47(1958)년은 수도건설에서 평양속도가 창조된 력사적인 해였다. 이해에 평양시안의 여러 대학, 전문학교, 고급중학교 학생들은 평양시건설을 대대적으로 벌릴데 대한 내각결정 제17호를 받들고 수도건설장으로 달려갔다. 평양제1중학교 고급반 학생들도 수도건설전투에 참가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해 5월 3일 학교민청위원회 확대회의를 여시고 수도건설에 참가하는 기간 민청단체들이 진행할 사업을 토의하시였다.

그때로부터 이틀후에 내각결정 제17호를 지지하는 평양제1중학교 학생, 교직원궐기대회가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회에서 연설하시였다.

연설에서 청년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시고 수도건설장에 달려나가 로력적위훈을 세울데 대하여 호소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두다 혁명의 수도 평양을 웅장하고 아름답게 일떠세우기 위한 보람찬 건설투쟁에서 조선청년의 영웅적기개를 온 세상에 남김없이 시위합시다.》

위대한 장군님의 호소는 수도건설지원전투에 참가하는 모든 학생청년들로 하여금 어버이수령님의 웅대한 수도건설구상을 실현하는데 한몸바칠 불같은 결의를 다지게 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학생들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발양시키면서 부재생산전투를 능숙하게 지휘하시였다.

당시 위대한 수령님의 수도건설구상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조립식건설이였고 조립식건설에서 걸린 문제는 부재생산이였다.

평양제1중학교 학생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지도밑에 5월초부터 근 40일간 2만세대 살림집건설을 위한 부재생산전투에 참가하게 되였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평양시에는 블로크공장이 얼마 없었다. 이런 형편에서 대형블로크는 전문부재공장들에서 생산하게 하고 중소형블로크는 군중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중소형블로크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택건설에서 지장을 받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들끓는 학생청년들의 정치적열의에 맞게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지피시였다.

학교별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도록 하시는 한편 민청초급단체별, 분조별사회주의경쟁도 조직하시였다. 또한 경쟁에서 이길 생각만 하면서 본위주의를 하거나 작업을 날림식으로 하는 편향을 바로잡아주시고 기술혁신운동과 절약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지도밑에 모든 작업공정들이 치차처럼 맞물려돌아가자 처음에는 세멘트혼합물을 한판 이기는데 15분 걸리던것이 점차 5분으로 단축되고 작업능률이 400%의 수준에까지 올라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수도건설지원전투의 나날 우리 시대 청년들이 어버이수령님의 구상과 의도를 어떻게 받들어나가야 하는가를 숭고한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주시였다.

원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건설전투지휘부에서 사업하시기로 되여있었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무들이 나를 걱정해서 그러는것 같은데 나는 일없다, 물론 생산현장에는 생산을 지휘할 사람이 있

어야 한다, 그러나 생산을 지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꼭 지휘부에 가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 나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수도건설을 지원하러 나온 전투원인데 어떻게 작업에서 떨어져 지휘부에 가있겠는가고 하시면서 자진하여 제일 힘든 콩크리트혼합조에서 일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힘에 부치는 작업으로 하여 손바닥에 물집이 생기고 온몸에 열이 나면서도 찾아온 의사까지 돌려보내시며 작업장을 떠나지 않으시였다. 하루작업이 끝나면 다른 학생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밤늦게까지 다음날 작업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놓고서야 자리를 뜨시였다.

늘 물이 딸려 콩크리트혼합작업에서 지장을 받게 되자 위대한 장군님께서 깊은 밤에 무거운 물통을 지고 대동강기슭의 언덕길을 오르내리시였다는 이야기도 이때에 있은 일화들중의 하나이다.

수도건설지원전투를 지휘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여주신 숭고한 이신작칙의 모범은 학생들이 따라배워야 할 귀감이였으며 그들이 수도건설에서 청춘의 정열과 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게 한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후에도 평양학생소년궁전건설과 대동강호안공사장에서 능숙한 조직정치사업과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학생청년들을 로력적위훈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학생청년들은 혁명의 수도 평양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사회주의도시로 건설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되였다. 또한 사회주의건설의 실천투쟁속에서 정치사상적으로, 육체적으로 더욱 단련되게 되였다.

제 2 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대학생들을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키우기 위한 활동 전개

〔주체49(1960). 8 —주체53(1964). 3〕

1. 선군혁명령도 시작, 룡남산에서 다지신 맹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선군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갈 확고한 결심을 안으시고 선군혁명령도의 길에 오르시였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나라의 정세는 혁명의 총대를 더욱 튼튼히 틀어쥐고 강화해나갈것을 요구하였다.

일찍부터 조국의 운명도 선군에 있고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도 선군에 있다는것을 깊이 체득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49(1960)년 8월 25일 수령님을 모시고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대한 현지지도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시였다.

이날 부대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인회관 정문우에 붙인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보시고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변함없는 신념을 담은 아주 좋은 구호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인민군대가 이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날의 현지지도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시작을 알리는 력사적계기로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심으로써 선군령도의 대가 굳건히 이어지게 되였으며 혁명무력건설과 혁명발전전반에서

획기적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주체49(1960)년 9월 1일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내가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려고 하는것은 조선의 참된 혁명가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부터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시려는 굳은 결심을 지니고계시였다.

해방후 **김일성**종합대학 교사건설이 한창 벌어지고있던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어머님과 함께 건설장을 찾으시였다.

이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지난날 산에서 싸울 때 꿈처럼 그려보던 인민의 대학이 오늘 여기에 건설된다고 하시며 몹시 기뻐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 어서 커서 이 대학에서 공부하여 아버님을 잘 받들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머님의 말씀을 가슴깊이 새기시였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결심은 고급중학교에서 공부하시던 때에 와서 더욱 굳어졌다.

당시 외국류학은 하나의 시대적류행으로 되여있었다.

그러나 조선의 참된 혁명가가 되려면 우리 나라에서 배워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한 립장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로부터 외국에 류학할것을 권고하는 모든 청을 단호히 막으시고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신것은 어버이수령님과 김정숙어머님의 숭고한 뜻을 새기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나가시려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에서 출발한것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시는 날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할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수한 회색혼방직교복차림에 흔히 보는 가방을 드시고 첫 등교를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학정문에서 반갑게 맞아주는 학부장선생님과 인사를 나누신 다음 함께 공부할 학생들과도 만나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룡남산마루에 오르시여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어머님과 함께 이곳을 찾으시였던 못잊을 그날을 추억하시였다.

한동안 생각에 잠겨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들을 둘러보시며 조선혁명을 책임진 주인이 되여 어버이수령님의 위업을 대를 이어 받들어나가는것은 우리의 숭고한 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천천히 시를 읊기 시작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룡남산마루에서 읊으신 시가 바로 오늘 우리 인민뿐아니라 세계 혁명적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조선아 너를 빛내리》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시 《조선아 너를 빛내리》에서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여나가시려는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였다.

하기에 학생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지막시구절을 읊으시자 약속이나 한듯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감격과 흥분에 휩싸여있는 학생들을 바라보시며 우리는 대학기간에 조국의 미래를 책임질 혁명인재로 튼튼히 준비하여 수령님의 높은 뜻을 굳건히 받들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시 《조선아 너를 빛내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할 원대한 구상을 온 세상에 선포한 력사의 선언이였다. 그것은 조국과 민족앞에 다지신 엄숙한 맹세이기도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룡남산마루에서 다지신 맹세는 할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과 아버님이신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다지신 맹세와 하나로 잇닿은것이였다.

일찌기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이 한몸 바쳐 싸우다 쓰러지면 대를 이어 싸워서라도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고야말 굳은 맹세를 남산에 오르시여 다지시였다.

그 뜻을 이어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14(1925)년 2월 압록강을 건느시며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맹세를 포평나루터에서 다지시였다.

바로 그 비장한 맹세와 더불어 위대한 장군님께서 룡남산에서 다지신 맹세 《조선아 너를 빛내리》는 간고한 조선혁명의 길우에

수놓아진 위대한 력사의 선언이였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룡남산에서 다지신 맹세를 통하여 대를 이어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혁명의 빛나는 앞날을 내다보게 되였으며 민족의 찬란한 미래를 확신하게 되였다.

민족간부—자기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복무하는 그 민족출신의 간부.

2. 정치사상교양 강화

주체혁명위업을 믿음직하게 계승완성해나가자면 앞으로 혁명과 건설의 중요초소들에서 사업할 대학생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군사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혁명인재로 준비시켜야 하였다.

그가운데서도 대학생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준비시키는 문제는 더없이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이 모든것을 깊이 헤아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학생들속에서 당적사상체계를 세우는데 기본을 두고 정치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대학생들속에서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다.

무엇보다도 대학생들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으로 간직하도록 교양하시였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으로 간직하게 하자면 혁명과 건설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옳게 인식하고 수령을 모시는 자세와 립장을 바로가지도록 교양하여야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학생들속에서 수령이 혁명과 건설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하여 해설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에 크게 기여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당창건 15돐이 되는 주체49(1960)년 10월 10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 조선로동당력사연구실을 돌아보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교원, 학생들에게 조선로동당력사연구실 도록은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전면적으로 보여주면

서도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 풍모의 위대성을 잘 보여줄수 있게 편성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러시면서 수령님의 위대성은 인민대중을 하나로 묶어세우고 그 힘을 최대한으로 발동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언제나 승리적으로 이끌어오신데 있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관심속에 조선로동당력사연구실은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을 전면적으로 보여줄수 있게 더 훌륭히 꾸려졌다. 그리하여 교원, 학생들은 **김일성**대원수님을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살며 혁명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음으로 실천적모범으로 대학생들이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르도록 이끌어주시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행사에서 수령을 받들어모시는 전사의 자세와 립장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자신의 모범으로 보여주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창건 30돐기념 로농적위대열병식은 전당적, 전국가적인 관심속에 진행된 중요행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열병훈련이 진행되던 날 훈련복에 보병총을 메고 훈련장에 나오시였다.

학생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지막종합훈련에만 참가하실것을 간절히 말씀드렸다. 이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상적으로 훈련하지 않고서는 대렬동작을 제대로 할수 없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날부터 학생들과 함께 한대오에서 훈련하시면서 세련되고 원숙한 대렬동작의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때로는 훈련에서 요구성을 높이고 대렬훈련을 짜고들도록 지휘관들과 초급일군들을 깨우쳐주시였다.

열병식훈련이 한창 시작되자 일부 학생들은 힘들다고 대렬동작을 규정대로 하지 않았으며 일부 제대군인들은 열병행진을 해보았다고 하면서 훈련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러한 실정을 료해하시고 그들을 따뜻이 일깨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가르치심과 실천적모범은 열병훈련참가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그들모두가 훈련에 더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한 열병식에서 높은 수준을 보장하여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대학생들속에서 충실성교양과 함께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당정책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에도 큰 힘을 넣으시였다.

대학생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우리 당의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사업은 당시 형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였다. 그것은 이 시기 다른 나라들의 선행리론을 우상화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심한것과 관련되여있었다.

어떤 학생들은 다른 나라의 고전에 있는 명제를 외워가지고 다니면서 큰것이나 아는것처럼 행세하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실정에 맞지도 않는 다른 나라의 명제를 외워가지고서는 우리 나라 혁명을 할수 없다고 깨우쳐주시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다 밝혀져있는 어버이수령님의 로작을 깊이 학습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러시고는 1～2학년 기간에는 《**김일성**선집》에 들어있는 로작들을 다 연구발취하고 3～4학년에 가서는 전공학습과 결부시켜 다시 반복하여 학습하도록 하시였다.

여러차례에 걸쳐 대학생들의 로작학습정형을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학습은 철저히 원문에 의거하여 하며 로작의 매 구절에 담겨져있는 내용을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로작의 명제카드를 만드는 경우에도 여러번 읽고 그 기본내용을 똑똑히 파악한 다음에 옮겨써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그리하여 대학생들속에서는 다른 나라의 리론보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을 더 깊이 연구학습하는 기풍이 확고히 서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보학습을 당정책학습의 중요한 방도로 보시고 대학생들속에서 당보를 보는것을 생활화하도록 하시였다.

주체49(1960)년 11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들에게 당보를 보지 않는 사람은 정치적문맹자가 되고만다, 동무들은 하루일과를 당보를 보는것으로부터 시작하는것을 습성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매일 《로동신문》을 가지고 나오시여 주요사론설들을 친히 독보해주시고 신문에 《독보할것》, 《중요한 글》이라고 쓰시여 중요기사독보사업을 조직해주기도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대학생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 반수정주의교양을 강화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리시

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혁명전통교양을 활발히 벌리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지도밑에 대학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력사를 깊이 학습하기 위한 사업이 조직되고 항일혁명투쟁참가자들의 회상기에 대한 독보와 연구발표모임들이 진행되였다. 이와 함께 혁명전적지답사와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학습경연과 예술공연이 조직되였다.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학생들속에서 계급교양과 반수정주의교양을 짜고드시였다.

특히 미제가 우리 인민앞에 저지른 야수적만행에 대하여 잊지 않도록 교양하는데 힘을 넣으시였다.

주체51(1962)년 1월 신천박물관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시된 자료들과 증거물들을 돌아보시면서 피로 물든 신천땅의 교훈을 잊지 않도록 교양하는데서 이 박물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가르치시였다.

그 이후에도 학생청년들속에서 계급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대학생들속에서 정치사상교양이 참신하게 벌어짐으로써 그들은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해나가게 되였다.

3. 만페지책읽기운동 창조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과학습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으시였다.

일단 책을 드시면 아무리 부피가 두터운 책도 끝장을 볼 때까지 정열적으로 파고드시였으며 특이한 독서방법으로 한번에 여러줄씩 잡아 빠른 속도로 읽어나가시였다. 그리하여 학문의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다방면적인 지식을 깊이있게 체득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여주신 정열적인 탐구와 노력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는데서 모든 대학생들이 따라배워야 할 귀감으로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대학생들속에서 혁명적인 학습기풍을 세워나가시였다.

대학생들을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준비시키자면 그들속에서 높은 과학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였다. 이것은 학습을 통해서 실현할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학기간 학생들이 학습을 첫째가는 혁명과업으로 제기하고 열심히 학습하도록 하시였다.

언제나 학습에 열중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들에게 학생이란 말그대로 배우는 사람인것만큼 학습을 잘해야 자기의 본분을 다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학생들이 분초를 아껴가며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 및 민청조직들의 모든 사업을 학습을 위주로 조직하고 학습에서 집단주의를 높이 발양하는데 이바지하도록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밑에 대학생들속에서는 학습을 첫째가는 혁명임무로 여기는 관점과 학과학습에 열중하는 학습기풍이 서갔다.

그런데 일부 제대군인들속에서는 기초지식이 약하다는것을 구실로 학습에 신심을 가지지 못하는 편향이 나타났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제대군인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처음부터 자그마한 난관앞에 주저앉으면 앞으로 더 큰 난관이 제기될 때 영영 일어나지 못할수 있다, 전선에서 미제침략자들과 싸우던 기세와 투지를 가지고 달라붙으면 공부를 잘할수 있다, 제대군인학생들에 대한 당과 국가의 기대는 매우 크다, 제대군인학생들은 당과 국가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대하여 깊이 자각하고 공부를 잘하여야 한다고 그들을 고무해주시였다.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의 깊은 관심과 지도밑에 제대군인학생들도 자신심을 가지고 학습에 성실히 참가하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생들이 보다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체50(1961)년 3월

만페지책읽기운동의 봉화를 지펴주시고 이 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날 학생초급일군들에게 학생들이 능력있는 전문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학습하는데 그치지 말고 여러 분야의 지식을 폭넓게 소유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계속하여 그러자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한해에 책을 얼마나 읽을수 있겠는가를 타산해보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몇몇 학생들과 함께 책을 읽어보시며 손수 타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학생들속에서 만페지책읽기운동을 벌리기로 결심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요즘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학습열의를 더욱 높이며 대학기간에 모든 동무들이 보다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도록 하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많이 생각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 만페지책읽기운동을 벌려야 하겠다는 결론을 얻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기하신 만페지책읽기운동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어버이수령님의 로작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 학습하며 전공분야를 비롯하여 여러 분야의 책들을 더 많이, 더 빨리, 더 깊이 읽게 하기 위한 대중적책읽기운동이였다.

이 운동의 목적은 학습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 모든 대학생들이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전공분야의 지식을 폭넓고 깊이있게 소유한 혁명인재로 되게 하자는데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페지책읽기운동의 앞장에서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이 운동이 어버이수령님의 로작을 많이 읽는데 기본을 두고 진행되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학생들에게 우리 나라 혁명을 잘하자면 어버이수령님의 로작부터 깊이 연구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로작의 구절구절에 담긴 사상을 깊이 새기며 그 진수를 파악할 때까지 열번이고 스무번이고 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우리가 말하는 만페지책읽기운동의 요구는 바로 이런것이라고 깨우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페지책읽기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 당 및 민청조직들이 대학생들속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하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대학생들속에서 만페지책읽기운동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해설담화나 직관선전과 같은 정치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에 머물지 않으시고 《만페지책읽기운동의 노래》를 창작하여 보급하게 하시였다.

노래제목과 가사에 담아야 할 내용까지 하나하나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들이 지은 가사를 보아주시고 몇번이나 읽어보신 다음 손수 만년필을 드시고 한줄한줄 가필해주시였다.

이렇게 완성된 《만페지책읽기운동의 노래》는 학생들속에 널리 불리워지면서 그들을 만페지책읽기운동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타나는 편향을 제때에 바로잡아주시면서 이 운동을 보다 힘있게 밀고나가게 하시였다.

만페지책읽기운동이 한창 벌어지기 시작하던 때 일부 학생들속에서는 독서계획을 미달하거나 페지수나 채우는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숙사에 나가시였다가 이러한 결함을 제때에 알아보시고 학생들을 깨우쳐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만페지책읽기운동에 대한 조직사업과 총화사업을 바로하여 이 운동을 실속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습에서 초급일군들자신이 모범을 보여주는 한편 학습호조를 합리적으로 무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집체학습과 뒤떨어진 학생들에 대한 개별학습방조도 하게 하시였다. 더우기 생산실습기간이나 작업기간에도 만페지책읽기운동을 중단하지 않고 힘있게 밀고나가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만페지책읽기운동은 날이 감에 따라 더욱더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냈다. 학습을 힘들어하는 제대군인들이 많은 학급 학생들속에서 시작된 만페지책읽기운동은 온 대학에 급속히 퍼져갔다.

그리하여 모든 대학생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폭넓은 지식을 소유해나가게 되였다.

4. 생산실습과 로동에 적극 참가

평양방직기계제작소에서의 생산실습

리론교육과 실천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키는것은 학생들을 유능한 혁명인재로 키우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더우기 학습을 기본임무로 하는 대학생들을 생산현장에서 혁명적으로 단련시키는것은 그들을 참된 혁명인재로 준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50(1961)년 4월 21일부터 5월 8일까지 평양방직기계제작소(오늘의 평양방직기계공장) 공구직장에서 로동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생산실습을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생산실습기간에 대학생들이 기대조작법에 정통하고 사회주의경제관리지식을 깊이 체득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현대적기술을 배우며 사회주의경제관리운영방법을 현실속에서 깊이 연구체득하는것은 생산실습의 중요한 목적이였다. 그런데 일부 학생들은 생산실습을 시작하자 처음부터 기술신비주의에 사로잡혀 기대를 다루는 일에 선뜻 달라붙지 못하였다. 더우기 공장관리운영문제에 대해서는 거의나 관심을 돌리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산실습 첫날에 벌써 26호선반을 능숙하게 돌리시여 기술신비주의를 극복하는데서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생산실습이 진행되던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기계를 다루는것이 신비스러운것이 아니다, 무슨 기계든지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다 다룰수 있다고 하시면서 대담하게 달라붙어 기대를 돌려볼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후 모든 학생들은 신심을 가지고 기계기술을 배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산실습에 누구보다 정력적으로 참가하시였으며 실습을 시작한지 며칠 안되여서는 자신께서 깎으신 제품을 어버이수령님께 보여드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품을 받아 정밀도를 가늠해보시고 매우

만족해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자기 손으로 제품을 깎아보아야 로동의 보람을 느끼게 되고 로동자들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산실습기간 대학생들이 사회주의경제의 관리운영방법을 깊이 연구체득하도록 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생산실습이 시작된지 한주일이 지나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첫주간 실습을 총화하는 학생초급일군협의회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실습기간의 성과와 나타난 결함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시면서 대학생들의 생산실습은 로동자들의 기능전습과는 다르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실습기간에 공장관리운영사업에 대하여서도 연구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에 따라 학생초급일군들은 모든 학생들이 공장관리운영에 관심을 돌리도록 매일 실습과제를 주고 총화하였다. 그 과정에 학생들은 한가지이상의 기술과 함께 직장, 작업반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자면 로력조직과 설비관리, 자재보장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비롯하여 공장관리운영방법을 현실속에서 배울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밖에도 대학생들이 생산실습기간에 로동계급의 혁명정신과 조직성, 규률성을 따라배우고 로동자들속에서 정치사업을 적극 벌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몸소 26호선반을 맡아 설비관리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공장 로동자들을 모범기대창조운동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생산실습기간은 단순히 선반만을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들끓는 생산현장에서 로동자들의 지향과 요구를 알고 그들을 창조와 혁신, 진보와 비약에로 이끈 보람찬 나날이였습니다.》

어느 설비점검의 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26호선반을 남먼저 깨끗이 정비하시고 곁에 있는 기대공에게로 다가가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턱물개손잡이를 돌려보시며 왜 이렇게 뻿뻿한가고 물으시였다. 기대공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턱물개손잡이

에는 기름구멍이 없어 그렇다고 말씀올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구함에서 홈파는 끄챙이를 꺼내드시고 축의 한곳에 끼여있는 기름때를 조심히 긁기 시작하시였다. 기름때가 벗겨지면서 작은 기름구멍이 나타났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계란 돌아가는 부분에 반드시 기름을 주게 되여있다고 하시며 새로 찾은 구멍에 손수 기름을 주시였다. 그러자 뻣뻣하던 손잡이는 거침없이 잘 돌아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대공에게 이 기계들은 전후 나라사정이 어려울 때 우리 인민이 금을 주고 마련한 귀중한 설비들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동무가 한번 설비점검을 잘하고 모범기대창조운동을 발기하여 설비관리에서 혁신을 일으켜보라고 고무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에서 힘과 용기를 얻은 기대공은 자기 기대를 더 잘 관리하기 위해 아글타글 애썼으며 마침내 공장적으로 기대를 제일 알뜰히 거두는 기대공이 되였다.

나어린 기대공의 모범은 직장에 일반화되였으며 그것은 온 공장에 퍼졌다.

모범기대창조운동은 이렇게 시작되였다.

이 운동은 로동자들로 하여금 기대관리, 설비관리에서 주인된 자각을 높이고 일본새에서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지도밑에 발단된 모범기대창조운동은 오늘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으로 심화발전되였다.

와산동-룡성사이 도로확장공사 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와산동—룡성사이 도로확장공사에 참가하시여 제일 힘든 일을 맡아하시면서 대학생들이 로동을 통하여 사상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더욱 단련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주체50(1961)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의 사이에 진행된 와산동—룡성사이 도로확장공사에 참가하시였다.

와산동—룡성사이 도로확장공사는 당 제4차대회를 맞으며 평양시를 더 웅장하고 아름답게 꾸리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공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시 중심도로형성을 선차적으로 하면서 시외와 련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와 다리건설을 다같이 밀고나가도록 하시였다.

주체49(1960)년 10월 어느날 몸소 장산거리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누운고개를 낮추고 굽어든 부분을 곧추 펴서 보기 좋게 직선으로 길을 낼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그후 전문시설건설사업소가 도로확장공사에 참가하기는 하였으나 공사를 제대로 진척시키지 못하였다.

어느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몸가까이 부르시여 수도의 건설형편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때 수령님께서 제일 걱정하신 문제가 와산동—룡성사이 도로확장공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 이 공사에 **김일성**종합대학이 참가하도록 하였으면 좋겠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도 공사에 참가하실 의향을 말씀드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좋은 생각이라고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전후복구건설때에도 종합대학 학생들이 한몫 하였다, 청년대학생들이 수도건설에 떨쳐나서면 들끓는 현실속에서 많이 배울수 있고 사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단련될수 있으니 한번 본때있게 해보라고 말씀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함께 도로확장공사에 참가하게 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드시는 한편 이신작칙으로 도로확장공사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사지휘부에 들리시여 공사실태를 료해하시고 공사기일을 앞당기도록 지휘부성원들을 뜨겁게 고무해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와산동—룡성사이 도로확장공사를 당 제4차대회전으로 끝내고 어버이수령님께 완공의 보고를 올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공사가 어렵고 방대하지만 일군들이 작업조직을 잘하고 작업조

건을 잘 보장하며 지원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킨다면 얼마든지 공사를 기한전에 끝낼수 있다고 확신성있게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합심하여 공사를 본때있게 내밀어보자고 그들을 힘있게 고무해주시였다. 한편 공사장의 정치사업을 맡은 일군들을 만나시여 청년들속에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게 하시면서 정치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였다.

공사장의 여러곳에 붉은 기발을 꽂아 전투적분위기를 돋구게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굴착기꼭대기에도 기발을 꽂아 온 공사장이 붉은기정신으로 들끓게 하시였다. 또한 공사도중 뜻밖의 난관이 조성되면 혁명가요 《적기가》와 《유격대행진곡》이 공사장에 울려퍼지게 하여 건설자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사 전기간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시여 이신작칙으로 부닥치는 난관들을 헤쳐나가시였다.

방대한 토량을 처리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제기되면 남먼저 목도채를 잡으시고 한삽의 흙이라도 더 퍼담으라고 하시였다. 그리고 어깨받치개를 대느라면 그만큼 시간이 떠진다고 하시면서 어깨받치개도 없이 목도줄을 자신께로 당겨놓고 달리군 하시였다. 또 자재운반이 걸리면 대학생들과 함께 화물자동차적재함에 오르시여 먼길을 다녀오기도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건설지휘부일군들이 공사장에서 삽과 곡괭이, 등짐과 목도에만 매달리고있을 때 공사기일을 최대한으로 앞당기자면 기계화를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작업장에 소형기중기와 밀차를 놓아 작업능률을 훨씬 높이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인건설자들과의 사업도 짜고드시면서 그들속에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시였다.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투장의 분위기와 일본새를 새롭게 변모시켜 도로확장공사를 적극 추진시켜나가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보람찬 건설로동의 나날 청년건설자들과 인민군군인들 그리고 공사장주변 인민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도로확장공사에 떨쳐나선 건설자들과 인민군군인들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소낙비가 억수로 퍼붓던 어느날 깊은 밤 공사장으로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급초급일군들에게 폭우속에서 작업을 하는 군인들이 걱정된다고, 빨리 가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그들을 휴식시켜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런 속에서 일을 계속하면 건설자들이 감기에 걸릴수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때 작업장에서는 군인들이 비를 맞으며 작업을 계속하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작업장에 가시여 그들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학급초급일군들에게 맡은 임무에 충실한 군인들을 우리가 잘 보살펴주자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인사를 올리는 군인들에게 자신의 비옷을 벗어주시고 그들을 숙소로 돌려보내신 다음 찬비를 맞으며 공사장을 돌아보시고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자리를 뜨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사기간 인민의 위대한 아들로서의 숭고한 풍모를 보여주시였다.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어느날 한 할머니가 작업장구내에 나타났다. 집터자리에 있는 석탄이 땅에 그대로 묻히는것이 아까와 파가려고 왔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할머니의 소행에서 한줌의 석탄이라도 귀중히 여기는 인민들의 뜨거운 마음을 헤아려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변인민들이 석탄을 마저 퍼가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 손수 부삽으로 석탄을 퍼서 할머니의 바께쯔에 담아 비탈진 언덕우에까지 들어다주시였다.

뒤늦게야 그 고마운분이 바로 어버이수령님의 자제분이시라는것을 알게 된 할머니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위대한 장군님께로 급히 되돌아와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할머니의 두손을 따뜻이 감싸쥐시고 말씀하시였다.

《할머니, 별말씀을 다하십니다. 저도 근로하는 인민의 아들입니다.》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며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숭고한 인덕은 공사장에 혁신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하였다.

5. 혁명적조직생활의 숭고한 모범 창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높은 자질과 품격, 조직적수완과 능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신것으로 하여 주체50(1961)년 7월 22일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에 입당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생활을 시작하신 첫날부터 자신의 당성을 단련하는데 힘쓰시는 한편 대학생들속에서 조직생활을 강화하여 그들을 참된 혁명가로 준비시켜나가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생당세포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집단의 사상의지적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도 당생활분야에는 지난날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끼쳐놓은 해독적인 후과가 적지 않게 남아있었다. 그것은 지방주의, 가족주의 등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약화시킬수 있는 경향들이였다. 이러한 사상적경향들은 대학생들속에서도 나타나고있었다.

당시 일부 학생당원들은 당조직에 속을 주지 않고 《통하는 사람》끼리 밀려다니며 다른 사람들을 시비하고 자기 의견만 옳다고 고집하면서 집단의 단합에 지장을 주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러한 현상을 없애고 집단의 사상의지적단합을 이룩하기 위하여 대학생들속에서 당의 통일단결을 파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한 종파놈들의 죄행과 그 후과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게 하시였다. 그리고 우리 당이 종파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과정에 얻은 경험으로 무장하는 사업과 낡은 사상경향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밀접히 결합하게 하시였다.

주체51(1962)년 9월 중순 어은동군사야영지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지도밑에 당세포총회가 여러날에 걸쳐 진행되였다. 이 회의는 집단의 단합에 지장을 주는 현상들을 극복하기 위한 사상투쟁회의였다.

회의마감날인 9월 19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당원들의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내용으로 결론을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결론에서 당원들의 사상의지적단합이 가지는 중요성을 밝히시고 당의 통일단결은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통일단결이라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로동계급의 당의 통일과 단결은 반드시 하나의 사상, 수령의 사상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령의 사상에 기초하여 통일단결되지 않은 당은 사실상 당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그런 당은 오합지졸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당은 당을 직접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통일단결되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히신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당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할데 대한 사상은 우리 당을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독창적인 사상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지도밑에 진행된 당세포총회는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고 그들을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적으로 단합시키는데서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숭고한 실천적모범으로 당조직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가지고 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학생들을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의 숭고한 모범은 당조직을 존엄있게 대하고 당조직의 결정과 분공을 성실히 수행하며 그 정형을 제때에 보고하시는데서 높이 발현되였다.

주체50(1961)년 8월말 어느날 당세포부위원장이 당비를 받았는데 그의 책상둘레에는 여러명의 당원들이 몰켜서서 이야기를 주고받고있었다.

부위원장은 당비를 받으면서 당원들의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분공수행정형에 대하여서도 묻지 않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차례를 기다리시여 당비를 바치신 다음 자신께서 당세포의 결정과 분공을 집행하신 정형을 총화하시였다.

당원들이 당비를 다 바치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원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을 때 의견들이나 나누자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당원들이 당비를 바칠 때 왜 한달동안의 당생활정형을 총화하지

않는가를 알아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비를 바칠 때 분공수행정형에 대하여 묻지 않는다고 하여 당생활정형에 대하여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는 것은 자각적인 당생활태도가 아니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당원들은 자기 당생활정형을 당조직에 스스로 보고해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조직의 결정은 물론 자진하여 맡으신 당적분공도 어김없이 제때에 수행하시였다.

매일 아침 그날 《로동신문》을 읽고 중요내용을 해설해주거나 독보하는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진하여 맡으신 당적분공의 하나였다. 대학생활의 전기간 스스로 맡으신 이 분공집행을 어느 하루도 어긴적이 없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의 숭고한 모범은 세포총회를 비롯한 당회의에 빠짐없이 참가하시는데서도 높이 발현되였다.

주체50(1961)년 8월 중순 어느날 당세포에서는 세포총회날자를 갑자기 변경시키면서 위대한 장군님께 미처 알려드리지 못하였다. 후에 세포위원장에게서 전후사연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시였다. 그러시다가 동무들이 나한테도 알리지 않고 당세포총회를 하였는데 아주 잘못되였다고 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포위원장에게 당원은 누구나 다 당규약의 요구대로 생활하여야 한다, 당안에 이중규률을 허용하게 되면 당생활이 문란해지고 당조직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게 된다, 당안에 이중규률을 조성하는것을 조금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고 부드러우면서도 엄하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세포총회에서 토의결정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그것을 남먼저 집행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당세포에서 계획한 회의날자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어버이수령님의 현지지도를 수행하느라고 먼곳에 나가계시다가도 제 날자에 오시여 회의에 꼭꼭 참가하군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여주신 당조직생활의 숭고한 모범은 대학안의 모든 당원들은 물론 민청원들까지도 혁명적조직관념을 바로가지고 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도록 적극 고무해주었다.

6. 어은동에서의 군사야영

병사생활의 숭고한 모범 창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학생들을 군사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정치가는 문무를 겸비하여야 합니다. 이 말의 참뜻은 정치가가 군사를 알아야 한다는것입니다.》

군사는 투쟁하는 시대의 혁명인재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품격과 자질이다. 정치가가 군사를 알아야 하는것은 특히 미제와 직접 맞서고있는 우리 나라 정세의 더욱 절박한 요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로부터 군사문제에 관심을 돌리시였다. 그리하여 군사지식을 폭넓게 체득하시였으며 높은 군사적자질과 풍모를 지니게 되시였다.

어느날 한 학생이 위대한 장군님께 앞으로 군사를 맡으시려고 하는가고 물은적이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때 군사를 모르는 정치가는 진짜정치가가 아니다, 현대정치가의 권위와 역할, 그의 실력은 비상한 군사적 지략과 담력, 뛰여난 령군술에 있다, 나는 군사제일주의를 주장한다, 나는 무엇보다도 총대를 중시하고 언제나 총대를 제일시한다는것을 숨기지 않는다, 나는 결코 평화주의자가 아니며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무모한 칼부림에 끝까지 총대로 맞설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학생들이 옳은 전쟁관점을 가지고 군사훈련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하시였다.

전쟁관점을 어떻게 가지는가에 따라 군사훈련에 참가하는 열도가 좌우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러 기회에 학생들과 하신 담화에서 현대수정주의자들이 퍼뜨리는 평화주의의 반동적본질을 폭로하시고 전쟁에 대한 우리 당의 원칙적립장을 밝히시였다. 그러시면서 미제침략자들이 무모하게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놈들을 단매에

때려부시고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할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리고 여러차례에 걸쳐 대학생들이 군사훈련에 옳은 태도를 가지고 성실히 참가하여 필요한 지식을 배우도록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특히 주체51(1962)년 8월 중순부터 10월초까지 평양시 룡성구역 어은동에서 진행된 군사야영기간에 병사생활의 숭고한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문무를 다 갖춘 정치가가 되실 결심을 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사야영기간 야영생들과 꼭같이 소대, 분대에 망라되여 병사생활을 하시였다.

야영대대 정치부에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정치부에서 대대전반사업을 지도해주실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병사생활을 하시려는 뜻을 굽히지 않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백전로장에게도 잊을수 없는 병사시절이 있고 무적장군의 첫걸음도 병사생활로부터 시작됩니다.

병사생활체험이 없이는 병사들을 잘 알수 없고 병사대중을 모르고서는 군사를 움직일수 없습니다.

병사들을 잘 알고 그 생활을 못 잊는 군사령관이라야 전사들을 아끼고 사랑할수 있으며 그들을 일심일체의 강군으로 묶어세워 전투승리에로 불러일으킬수 있습니다.》

이것이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병사생활에 대한 견해이고 관점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로부터 군사훈련기간 자신에 대한 그 어떤 특전이나 특혜도 허용하지 않으시였다.

야영대대의 지휘관들과 학생초급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침실이나 식사, 신변안전과 관련한 대책을 세웠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응당한 대책마저 특별한 대우로 여기시며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으시였다. 언제나 야영생들과 한병실에서 생활하시였으며 한식당에서 같은 식사를 나누시고 한전호에서 훈련하시였다.

이처럼 야영생들과 함께 산발을 넘나드시며 훈련을 하시고도 다른 야영생들과 다름없이 위병근무를 서시고 무기청소도 하시였으며 이른새벽에 남먼저 일어나 병실아궁에 불도 지피시였다. 식당근무에 나가시여서는 식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성심성의를 다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누구보다 군사에 밝으시면서도 훈련에 단 하루도 빠지지 않으시였다.

주체51(1962)년 9월 22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서거하신지 13돐이 되는 날이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속한 중대는 실탄사격을 하게 되였다.

대대부의 지휘성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 이날만은 훈련에 참가하지 말고 어머님의 묘소에 다녀오시라고 권고하였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이 이룩되지 못한것을 제일 가슴아파하신 어머님께서 나라가 통일만 되면 다른 원이 더 없겠다고 하시면서 혁명의 길에 나서실 때 헤여진 친혈육들을 찾는것도 뒤로 미루어오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통일의 광장에 높이 모실 그날을 앞당기려고 그토록 애쓰시던 어머님의 뜻을 한시도 잊을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실탄사격장을 떠날 권리가 없습니다, 나도 동무들과 같이 실탄사격에 참가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어머님의 묘소를 찾는것마저 뒤로 미루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모습은 야영생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다.

모든 야영생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성실한 병사생활을 적극 따라배워 군사규정의 요구대로 강한 규률속에서 문무를 겸비한 민족간부로 자신을 튼튼히 준비해나갔다.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전법 체득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은동 군사야영기간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시하신 군사사상과 전법을 체득하시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군사야영기간에 군사적자질을 갖추는데서 높은 목표를 내세우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군사야영에 참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이번 야영훈련기간에 군사문제와 관련한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교시들, 수령님께서 지난 항일혁명전쟁과 조국해방전쟁을 조직령도하신 탁월한 령군술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깊이 연구하고 선행고전가들이 내놓은 군사리론과 장구한 인류전쟁사가 남긴 유익무익한 경험과 교훈들을 다 분석총화해보려고 합니다.

그에 기초하여 인류군사사상사의 최고봉을 이루는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사상리론의 응당한 지위를 밝혀내고 수령님께서 간고하고 복잡한 우리 혁명을 개척하고 완성해오시는 과정에 몸소 제시하신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리론, 전법들을 종합체계화하려고 합니다.》

선행고전가들이 내놓은 군사리론과 장구한 인류전쟁사의 경험과 교훈을 분석종합하고 그에 기초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리론, 전법들을 종합체계화하는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군사야영기간에 스스로 내세우신 목표였다.

이 목표를 4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점령한다는것은 매우 어렵고 방대한것이였다. 많은 군사서적들을 연구하고 주체적립장에서 분석해야 하시였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어은동군사야영은 위대한 장군님께 있어서 단순히 병사의 의무만을 익숙하는 과정이 아니였다. 그것은 인류전쟁력사가 남긴 경험과 교훈, 군사리론과 전략전술들을 연구하는 하나의 군사대학과정이기도 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밤시간을 아껴가시며 수많은 군사서적들을 탐독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군사야영기간에 읽으셔야 할 도서들은 실로 방대한것이였다. 조국해방전쟁전투경험을 서술한 도서를 비롯하여 각종 군사교범과 규정들을 연구하시여야 하였고 세계전쟁력사에 관한 도서들도 참고하셔야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보통 상식으로써는 상상하기 어려운 정열을 지니시고 군사과학의 높은 령마루를 점령하기 위한 전투를 벌리시였다. 그 전투가 키낮은 책장과 평범한 학생용책상이 놓여있고 갈노전 두잎이 깔려있는 자그마한 방에서 밤마다 진행되였다.

인류력사에는 유명한 장군들과 군사리론가들이 많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처럼 40여일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그 범위나 내

용에서 그렇듯 방대한 군사사상과 리론, 전법들을 심오하게 연구하고 분석한 실례는 일찌기 없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주체적립장에서 선행한 군사사상과 리론, 전법들을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주체적인 군사사상리론의 본질과 내용 등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군사사상이 선행한 군사사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독창적인 군사사상이라는것을 명확히 밝히시였다.

군대는 사람과 무기가 있어 조직된다. 그런것만큼 사람과 무기가운데서 무엇을 기본으로 보는가에 따라 싸우는 방식이 다르고 군사리론도 제가끔이다.

선행한 군사리론은 총체적으로 볼 때 무기를 중심으로 전술을 고찰하고 군사리론을 전개하였다. 한때 《함선우세론》과 《땅크우세론》, 《항공우세론》이요 하는 군사리론들이 성행한것도 그와 관련되였다.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군사사상과 관련되는 몇가지 문제를 가지고 야영생들과 담화하시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사상은 무기를 기본으로 하여 전개된 선행한 군사리론과는 달리 사람을 기본으로 하여 전개된 군사사상과 리론이라고 하시였다. 계속하여 무기를 만들고 쓰는것은 사람이며 전쟁을 하는것도 사람인것만큼 사람의 역할을 기본으로 하여 군사사상을 전개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사람을 기본으로 하는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사상의 근본특징이 있고 선행한 군사사상에 비한 주체의 군사사상의 우월성이 있다는것을 지난 기간의 전쟁경험에 비추어 깊이있게 론증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에 의하여 어버이수령님의 군사사상은 인류군사사상사에서 최고봉을 이룬다는것이 밝혀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시하신 군사사상의 력사적지위뿐아니라 혁명무력건설원칙, 령활한 전략전술,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확립 등 주체적인 군사사상리론의 원칙적인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연구하시고 독창적인 견해들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야영생들과 군사교원들이 어버이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군사사상과 리론,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주체적인 전법을 소유하도록 깨우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야영기간 군사문제와 관련하여 무려 140차의 담화를 하시면서 어버이수령님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리론, 전법에 대하여 해설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장기를 두시면서도 전법에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어느날 저녁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중문화오락시간에 군사교원과 장기를 두시였다. 그런데 장기를 잘 두는 교원도 장군님의 장기수를 당해내지 못하였다.

몇수만에 피동에 빠진 교원은 이미 형세가 기울어졌다는것을 알고 위대한 장군님을 바라보며 장기수가 높아서 상대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신심이 없이 시작한 전투란 언제나 이기는 법이 없다고 하시면서 적과의 싸움은 누가 적을 알고 묘한 전술을 쓰는가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고 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보통 장기를 둘 때 《말》과 《상》을 먼저 쓴 다음 《포》를 쓰는것이 하나의 규정과 같이 되여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매 수를 다 그렇게 쓸수는 없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군사훈련에서도 규정에만 매달리지 말고 우리 나라의 지형조건에 맞게 학생들을 훈련시켜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주체적인 전법에 정통하시였을뿐아니라 그것을 훈련에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은 대학시기에 벌써 정력적인 군사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여 주체의 군사사상리론과 전법들을 종합체계화하시고 가일층 심화발전시키신 장군형의 탁월한 지도자이시였다.

7. 대학교육내용에서의 주체 확립

1960년대초까지만 하여도 대학의 교육내용은 조선혁명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쓸모있는 혁명인재를 키워낼수 있게 구성되여있지 못하였다. 많은 경우 다른 나라의 대학에서 쓰는 과정안을 본따서 학과목을 내왔으며 교과서도 남의것을 그대로 번역하여 리용하는것이 적지 않았다.

대학교육이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게 진행되는 현상은 이모저모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오래동안 교육사업을 해온 일군들은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느끼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발전의 요구와 대학교육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는 문제를 강하게 내세우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교육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는것이 바로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주체적립장에서 정치경제학을 새롭게 체계화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50(1961)년 12월 대안전기공장 당위원회확대회의를 지도하시면서 군중로선에 의거한 새로운 경제학교과서를 만들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군중로선에 의거한 경제학, 이것은 경제학연구에 한생을 바쳐온 학자들도 처음 들어보는 말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아안은 교원, 학자들은 군중로선에 의거한 경제학교과서는 어떤것으로 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여러모로 고심하며 모대기였다.

이러한 실태를 헤아려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제학부 교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그에 대한 해답을 명철하게 주시였다.

군중로선에 기초한 정치경제학교과서를 만들려면 군중로선에 의거한 경제리론이란 무엇인가 하는것부터 옳게 인식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군중로선에 의거한 경제리론의 중요한 특징은 경제건설에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립장을 견지하는것이

며 경제파업을 해결하는데서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는 방법에 의거하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모대기면서도 풀지 못하고있던 문제를 한순간에 밝혀주신 말씀에 교원, 학자들은 부풀어오르는 심정을 금치 못하였다.

계속하여 군중로선에 의거한 경제리론이 어떤것인가를 잘 알려면 수령님의 로작들을 깊이 연구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대로 교과서를 쓰면 군중로선에 의거한 정치경제학교과서를 잘 만들수 있다고 일깨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후 새로운 정치경제학교과서를 집필하는데 필요한 어버이수령님의 연설록음테프와 교시속기록을 보내주시였다. 그리고 정치경제학교과서초고가 집필되였을 때에는 바쁘신 일을 뒤로 미루시고 구체적으로 보아주시였다. 그 교과서에는 아직도 부족점이 적지 않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치경제학교과서가 적지 않게 개선되였다고 하시면서 교과서를 완성하기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와 관심속에서 정치경제학의 교수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가 명백히 서게 되였다. 이것은 사회과학분야의 교육내용을 새롭게 구성하는데서 거둔 첫 성과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조선력사를 주체적립장에서 해명하고 교육하도록 하는데도 큰 힘을 넣으시였다.

1960년대초까지 조선력사강의에서는 지난날 봉건사대주의력사가들이 쓴 내용을 그대로 취급하였다. 그 대표적실례가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49(1960)년 10월에 있은 조선력사학과토론에서 신라에 의하여 삼국이 통일되였다는것이 력사적사실과 맞지 않는다는것을 론증하시였다.

당시 력사학계에서는 지난 시기 봉건사대주의력사가가 쓴 책에 기초하여 신라가 삼국을 통일시켰다고 하였다. 그런데로부터 신라가 우리 나라 력사발전에서 큰 역할을 한것처럼 보았다.

그 후과로 7세기를 전후한 시기 우리 나라 력사는 신라를 중심으로 하여 서술되였으며 삼국통일에 기여하였다는 김유신은 명장

으로 높이 평가되였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과토론에서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모두 신라가 삼국을 통합하여 국토통일을 이룩한듯이 주장하고 신라의 장군 김유신을 명장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있는데 이것은 력사적사실과 맞지 않는것 같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몇가지 론거를 드시였다.

먼저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한 다음 신라가 대동강이남지역을 차지한 후에도 대동강이북지역에는 고구려유민들이 세운 발해가 200여년이나 존재해있었던 사실로 보아 사실상 국토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것이라고 하시였다.

더우기 신라는 삼국의 통일을 진심으로 지향하지 않았으며 또 그것을 실현할만 한 국력도 가지고있지 못하였다고 하시면서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론》자체를 다시 검토하여야 할것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어 삼국통일과 관련하여 제기된 력사적사실과 인물들에 대한 평가도 옳바로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삼국통일문제를 새롭게 평가하시고 외곡되였던 력사를 주체적립장에서 바로잡으신것은 하나의 위대한 과학적 발견이였다.

지금까지 학계에서 정설로 굳어진 내용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견해여서 교원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교원은 흥분을 금치 못하여 학과토론이 끝난 다음 위대한 장군님께 토론문을 좀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원고가 어지러워 드릴만한것이 못된다고 겸허하게 사양하시였다. 그러시다가 정 보시겠다면 다시 정서하여 드리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교원이 일없다고 다시금 요청하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미안하다고 하시며 원고를 내놓으시였다.

학과토론을 지도하던 교원은 그 토론원고를 가지고 강좌에 돌아왔다.

교원은 내용에 너무도 매혹되여 토론문초고를 자기 집 장서에 보물처럼 보관하였다. 그는 수해때 집재산을 다 잃으면서도 그 원고만은 정히 간수하여 보존하였다.

그 원고가 후날 《삼국통일문제를 다시 검토할데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고전적문헌이다.

이밖에도 철학, 법학, 문학, 어학을 비롯한 사회과학과목의 교수내용과 물리학, 수학, 화학, 생물학을 비롯한 자연과학과목의 교수내용을 주체적립장에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세심한 관심속에서 대학교육의 내용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였다. 그 결과 대학생들은 주체사상과 사회주의건설에 써먹을수 있는 산지식으로 튼튼히 무장한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자라나게 되였다.

8.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 보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시기 온 나라 방방곡곡을 쉬임없이 찾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현지지도를 수행하시며 수령님의 사업을 정력적으로 보좌해드리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원래 나는 종합대학에 다닐 때 2학년부터 현지지도하시는 수령님을 계속 수행하면서 수령님의 사업을 보좌해드리고 호위사업을 지도하였습니다.》

대학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더없이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 열렬한 옹호자,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제1보좌관이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현지지도를 수행하시면서 해당 단위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수령님께 보고드려 로선과 정책작성에 큰 도움을 드리시였다.

주체51(1962)년 7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산간지대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본보기단위로 꾸리신 창성군의 경험을 온 나라에 일반화하기 위하여 현지에서 지방 당 및 경제일군창성련석회의를 준비하고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드시고 회의참가자들의 견학대상으로 예견되여있는 삭주지구의 지방산업공장들과 협동조합들을 돌아보시면서 경제실태를 료해하시였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관심하신 문제는 생산정형, 설비상태,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 생활형편 등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제실태를 료해하시기 위하여 삭주직물공장을 찾으시였다.

삭주직물공장은 군유치원 웃방에서 10명의 가정부인들이 1대의 베틀과 4대의 물레를 놓고 생산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4년후에는 년간 100만m이상의 천을 짜내는 기계화된 직물공장으로 발전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의 책임일군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현지교시를 받들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삭주강냉이가공공장에도 들리시였다.

공장에서는 먹는기름문제를 자체로 해결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기름짜는 작업반을 새로 꾸리고 기름실수률을 높여 군내 인민들에게 많은 기름을 공급하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의 성과를 귀중히 여기시고 주원료인 강냉이눈을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모을 방도에 대해서와 기계설비들을 정상적으로 보수하고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며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확립할데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삭주읍농업협동조합의 실태도 현지에서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조합의 발전전망문제를 놓고 오랜 시간 담화를 하시였다.

삭주군의 경제실태를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료들을 종합분석하신데 기초하여 론문 《지방경제를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 방침의 정당성》을 집필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론문에서 대중을 발동하고 지방의 예비를 동원하는 방법으로 지방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이 옳았다는것을 론증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삭주군의 경험은 군이 발동되여 당의 방침을 이악하게 관철해나간다면 지방공업과 농촌경리를 더욱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얼마든지 높일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고 하시였다. 론문에서 분석된 자료들은 창성련석회의를 준비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커다란 도움으로 되였다.

후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창성련석회의때 시범단위를 꾸리고

문건을 준비하느라고 바쁜 일이 많았다고 하시였다. 그러나 회의가 자신의 의도대로 잘될수 있었던것은 장군님께서 자신의 의도와 생각하는바를 속속들이 알고 미리 앞질러가며 여러모로 도와주었기때문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52(1963)년 8월 함경남도와 량강도를 현지지도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을 수행하실 때에도 지방의 여러부문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여 수령님께서 필요한 대책들을 세울수 있게 보좌해드리시였다.

이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창성군의 경험을 온 나라에 일반화하기 위하여 북청군, 덕성군, 풍산군(오늘의 김형권군)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풍산군을 현지지도하실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풍산읍으로 가는 길가에 자리잡고있는 지경협동농장 유치원에 들리시였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이들의 밥곽을 손수 열어보시고 펴이지 못한 산간지대인민들의 생활을 헤아려보시였다.

그런데 이곳 일군들은 땅이 워낙 척박한데다가 지난해에는 날씨까지 류달리 차서 농사가 례년보다 잘 안되여 그렇다고 하면서 별로 가책을 느끼지 않고있었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 아이들의 밥곽을 보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곳 농업부문 일군들의 그릇된 관점에 대하여서도 그대로 말씀드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풍산읍상점의 식료매대에도 들리시여 주민들에게 간장, 된장을 공급한 정형을 알아보시며 친히 장맛까지 보시고 질이 낮은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그 개선대책을 세워주시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량강도당위원회 전원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여기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종합분석하여드리신 실태자료들과 대책안에 기초하여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여러가지 중요한 조치들을 취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풍산중학교도 돌아보시면서 학교의 교수교양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그 정형을 어버이수령님께 보고

드리시였다.

봇나무껍질에 교원들과 학생들이 생활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내용을 친필로 남기신 유명한 일화도 이때 있은 일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집필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사업도 현지에서 적극 보좌해드리시였다.

주체53(1964)년 1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촌테제를 준비하시는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평안남도 온천군 읍협동농장 7작업반을 돌아보시면서 농촌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이날 농장현지지도를 마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는 포전길을 걸으시며 뜻깊은 담화를 하시였다. 담화는 농촌의 현 실태와 농촌테제에 관한 문제로 이어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곳 작업반의 분배정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시면서 앞으로 농업현물세를 폐지하게 되면 농민들의 생활이 훨씬 높아질수 있다는데 대해서와 당시의 형편에서 농장자체의 힘으로 문화주택을 짓는 문제는 가능성이 적다는데 대해 말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기하신 이 문제들을 심중한 문제로 보시고 그에 긍정하시면서 이번에 농촌테제에서는 가까운 몇해안으로 농업현물세제를 완전히 폐지할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려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농장원들의 살림집뿐아니라 모든 농촌기본건설도 국가에서 맡아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농촌테제에는 두분의 담화과정에 제기된 문제들이 당면한 과업으로 제시되였다.

인류력사에는 뛰여난 재능과 지혜로 국가정책작성이나 그 실현에 이바지한 명인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처럼 일찌기 학창시절부터 당과 국가의 정책작성에 옳바른 견해를 가지고 기여한 실례는 없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공업과 농업의 기술개조를 실현하며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어버이수령님의 령도를 적극 보좌하시였다.

협동화가 완성된데 따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을 다그쳐 공업과 농업을 급속히 발전시킬것을 구상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업의 기술개조를 위한 어버이수령님의 현지지도를 적극 보좌해드리시였다.

주체50(1961)년 8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서평양철도공장(오늘의 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을 찾으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재, 우리의 설비로 만들어낸 첫 전기기관차 《붉은기1》호를 돌아보시고 제관작업장에 들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앞으로 전기기관차를 많이 만들자면 제관작업을 기계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기술장비를 현대적으로 개선하고 모든 생산공정을 점차 기계화, 자동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공장을 다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장의 책임일군들과 로동자들에게 전기기관차를 더 많이 만들어 나라의 철도를 전기화할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구상을 빛나게 실현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이해 9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우리 로동계급이 당 제4차대회 선물로 마련한 황해제철소 2호용광로조업식에 참가하시였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산공정을 자세히 료해하시고 앞으로 건설하는 용광로들은 자동화수준을 더 높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밖에도 남포제련소, 수풍발전소, 위연림업기계수리공장을 비롯한 여러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현지지도를 보좌하여드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업분야에서의 기술개조사업과 함께 농촌기술혁명을 위한 어버이수령님의 령도를 적극 보좌하시였다.

주체51(1962)년 8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황해남도 신천군 새날농업협동조합을 찾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촌경리의

기계화를 실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몹시 심려하고계신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 조합이 농촌경리의 기계화를 실현하는데서 앞장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해 11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시 사동구역 리현협동농장의 탈곡장도 찾으시였다.

이날 종합탈곡기에서 먼지가 나는것을 보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기계화를 하면서 농민들의 건강에 해를 주어서야 되겠는가고 하시며 종합탈곡기에 먼지잡는 장치를 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이밖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황해남도 재령군과 안악군을 비롯한 여러 군의 협동농장들을 찾으시고 선진적인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알곡생산을 늘이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령님의 령도를 적극 보좌하시였다.

주체52(1963)년 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최전연에 위치한 대덕산초소를 찾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구분대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일당백》의 구호를 제시하시였다. 그런데 구분대지휘관들은 처음 이 구호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의 깊은 의도를 옳게 파악하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지의 한 전투진지에 이르시였을 때였다. 일당백구호를 받아안은 한 지휘관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대로 방어진지를 잘 꾸리고 그에 의거하여 훈련을 잘하면 고지방어전투에서 일당백은 문제없다고 말씀드렸다. 그는 일당백구호를 당면한 방어전투임무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한 구호로만 리해하고있었던것이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심각한 문제점을 포착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일당백》의 구호에는 군인들이 방어에서뿐아니라 공격에서도 하나가 백을 당할수 있게 준비되여야 한다는 높은 요구가 담겨져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일당백에 대한 내용을 방어에만 국한시켜 리해하여서는 안된다고 일깨

워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사들의 생활형편을 알아보시다가 고지에 물이 적어 전사들이 생활에서 불편을 느끼고있는 사정을 료해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사실을 어버이수령님께 말씀드려 양수기로 물문제를 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후 여러 구분대를 찾으시여 모든 군인들을 일당백의 전투원으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일당백》의 구호가 철저히 관철되여나감으로써 인민군대의 전투력은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실현하기 위한 어버이수령님의 현지지도를 적극 보좌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52(1963)년 8월 황해남도 신천군을 비롯하여 여러 단위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현지지도를 수행하시면서 전민무장화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그해 12월에는 황해북도 린산군 검현리(오늘의 대촌리)를 찾으시고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더욱 다그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현지지도를 보좌하시는 과정에 수령님의 령도풍모를 전면적으로 깊이 체득하시였으며 인민의 령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폭넓은 안목과 자질을 겸비해나가시였다.

난공불락—어떤 공격으로도 점령할수 없다는 뜻.

9.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 전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옹호고수하며 더욱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였다.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 진지한 탐구력과 창조적인 사색력, 과

학적인 통찰력과 예리한 분석판단력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학시절에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옹호고수하고 심화발전시키는데서 탁월한 사상리론가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남김없이 보여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완벽하게 체득하며 자연과 사회에 대한 폭넓고 깊은 지식을 쌓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과 탐구를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완벽하게 체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들과 교시들을 력사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 연구하시였으며 수령님께서 이 시기 중요회의들에서 하신 보고와 결론, 연설들과 혁명과 건설의 여러 분야에 주신 교시들을 빠짐없이 학습하시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를 수행하시면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우리나라의 구체적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풀어나가시는 수령님의 사상리론활동방식을 깊이 체득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인류가 남겨놓은 진보적인 사상리론들 특히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리론들을 주체적립장에서 폭넓고 깊이있게 연구분석하시였다. 그 과정에 선행리론의 진수와 그 시대적제한성을 밝혀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읽으신 《공산당선언》, 《자본론》, 《국가와 혁명》, 《맑스주의와 민족문제》 등 수많은 선행고전들의 갈피마다에는 《우리 시대에 와서는 맞지 않는 리론이다.》, 《륜곽을 그리는데 그치고 더 전개하지 못하였다.》 등 그 제한성과 해당한 문제에 대한 장군님의 견해가 적혀져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공분야인 정치경제학과 철학, 력사학을 비롯한 사회과학뿐아니라 자연과학, 군사학, 문학예술 등 여러 분야에 걸치는 방대한 서적들을 전면적으로 탐독하시였다. 그 과정에 다방면적이고 풍부한 지식을 쌓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러한 정력적인 탐구과정을 통하여 걸출한 사상리론가로서의 자질을 보다 훌륭히 갖추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옹호고수하기 위한 사상리론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의 독창성과 위대성을 밝히는데 선차적인 주의를 돌리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우리 시대의 로동계급의 지도리념이며 맑스와 레닌의 단계를 넘어선 새롭고 독창적인 위대한 사상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선행고전의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독창적인 사상리론이라는데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어느날 학생들은 수업이 끝난 다음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 어느 류형의 혁명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열정적으로 토론한적이 있었다.

밖에 나가시였다가 동무들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문제를 놓고 론쟁하는것을 목격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 어느 류형의 혁명에 속하는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발견하신 새로운 류형의 사회혁명이라는데 대하여 론증하시였다.

그제서야 학생들은 선행리론가들이 체험하지도 못했고 언급한것도 없는 문제의 해답을 그들의 리론에서 찾으려고 한 자신들이 어리석었다는것을 통절하게 느끼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식민지나라들은 봉건사회도 아니고 자본주의사회도 아닌 식민지반봉건사회라는것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시고 이 사회를 변혁하는 혁명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라는것을 새롭게 밝히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51(1962)년 1월 선행고전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세계혁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시대적요구를 반영한 위대한 사상이라는것을 밝히시였다. 그러시면서 오늘의 력사적조건에서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기 위한 지도적지침은 응당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옹호고수하기 위하여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사상리론활동을 힘있게 벌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현대수정주의의 발생에 대하여》, 《현대수정주의의 반동적본질과 반수정주의투쟁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 있는 혁명적립장에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문헌들과 말씀들에서 현대수정주의의 발생근원과 반동적본질, 그 해독성을 심오히 분석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수정주의를 극복하자면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벌리신 사상리론활동에 의하여 현대수정주의의 침습을 막고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철저히 옹호고수할수 있는 사상리론적무기가 마련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는 한편 그것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문제, 수령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키는데서 수령의 후계자문제가 가지는 중요성과 그 옳바른 해결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독창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또한 주체의 혁명리론의 근본원리들과 주체의 군사사상과 리론, 제국주의와 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 관한 주체의 리론 등을 심화발전시키는데도 큰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대학시절에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옹호고수하고 더욱 심화발전시키신것은 국제적으로 수정주의바람이 강하게 불던 불리한 시기에 조선을 빛내이며 주체혁명위업을 굳건히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으로 된다.

10. 졸업론문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 집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시였다.

사회주의건설을 곡절없이 해나가자면 실천에서 제기되는 리론문제들을 정확히 해명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당시 사회주의건설에서 제기되는 절박한 문제를 졸업론문제목으로 설정하시였다.

어느날 한 교원은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뵙는 조용한 기회에 졸업론문제목을 알고싶다고 말씀드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에게 앞으로 집필하게 될 론문제목을 알려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수령님께서 창성군을 현지지도하신 경험을 중심으로 하여 군의 역할문제를 쓰기로 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지역적단위와 거점문제는 그때까지 학계에서 론의조차 되지 않고있었다. 이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된것은 주체51(1962)년 8월 지방당 및 경제일군창성련석회의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이 문제를 제시하시고 창성군에서 그 시범을 창조하시였다. 그 과정에 사회주의건설에서 지역적거점과 그 역할에 대한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것이 해명되였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성련석회의에서 하신 교시의 기본정신을 산간지대 농민들의 생활을 높일데 대한 교시로만 리해하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졸업론문을 통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성련석회의에서 하신 교시의

졸업론문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의 구성체계

1. 사회주의건설에서 지역적거점을 설정하여야 할 필요성
   1)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에서 지역적거점문제
   2) 군은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지역적거점
2. 지방경제발전의 종합적단위로서의 군
   1) 군을 단위로 하는 지방공업의 발전
   2) 군안의 경제부문들의 발전과 부문들사이의 련계의 강화
   3) 군경제의 종합적발전을 통한 군들사이의 차이의 극복
3.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련계의 거점으로서의 군
   1)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련계와 군
   2) 군을 거점으로 하는 공업과 농업의 직접적인 생산적련계의 발전
   3) 군을 거점으로 하는 도시와 농촌의 상업적련계의 발전

진수와 기본사상을 밝히고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주로 경제학의 견지에서 해명하기로 결심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졸업론문제목을 확정하신데 이어 그 체계와 집필요강을 짧은 기간에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집필하시였다.

그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농촌테제집필사업을 적극 보좌해드리시는 과정에 론문에 대한 구상을 더욱 무르익히시였다. 그러신 다음 위대한 수령님께서 농촌테제에서 밝히신 사회주의건설에서의 지역적거점과 그 역할에 관한 사상을 더욱 전개하고 심화발전시켜 졸업론문을 완성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론문에서 사회주의건설에서 지역적거점에 관한 어버이수령님의 사상을 심오히 론증하시면서 주로 경제적측면에서 지역적거점으로서의 군의 위치와 역할을 밝히시였다.

우선 사회주의건설에서 지역적거점을 설정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촌에 대한 당과 국가의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지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일정한 지역적거점을 설정하고 그에 의거하여 사업하는것이 필요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을 없애고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려면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지역적거점을 설정하고 그에 의거하여 농촌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는것을 과학적으로 론증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역적거점은 당과 국가의 정책을 농촌에 직접 침투시키며 농업생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제와 문화를 직접 지도하고 발전시키는데 유리한 단위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접촉점, 결절점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나라에서는 그러한 지역적거점으로서 군이 가장 합리적이라는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다음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지역적거점으로서의 군의 역할과 그것을 높이기 위한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지역적거점으로서의 군은 지방경제발전의 종합적단위로 된다는것을 과학적으로 론증하시였다. 계속하여 지방경제발전의 종합적단위로서의 군의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군안의 모든 경제부문들을 발전시키고 부문들사이의 련계를 강화하며 특히 농업을 빨리 발전시키고 농업과 지방공업과의 련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것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지역적거점으로서의 군은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련계를 원만히 실현하는 거점으로 된다는것을 밝히시였다. 계속하여 직접적인 생산적련계와 상업적련계가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련계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군을 거점으로 하는 공업과 농업의 직접적인 생산적련계를 강화하고 그를 보충하는 도시와 농촌의 상업적련계를 강화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론문에서 지역적거점으로서의 군은 사회주의건설단계에서뿐아니라 먼 앞날에 가서도 의연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사회주의건설에서 지역적거점에 관한 사상리론을 옹호고수하고 가일층 심화발전시키였다. 그리고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한 이후 농촌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혔다.

대학시기 사상리론활동의 빛나는 총화인 위대한 장군님의 졸업론문은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체53(1964)년 3월 황해북도를 현지지도하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의 졸업론문을 받으시였을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론문에 끌리여 아침산보도 번지시였고 식사시간마저 잊으시였다.

시간이 퍼그나 지나서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론문을 다 읽으시고나서 《훌륭한 론문이요. 정말 마음에 드오.》라고 하시며 매우 만족해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론문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는 신통히도 내가 의도하고 바라는 문제를 가지고 대학졸업론

문을 썼다고, 나는 지금까지 고전가들이 쓴 책들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교수, 박사들이 쓴 글들도 보았는데 이렇게 현실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론문은 찾아볼수 없었다고, 이런 론문은 말그대로 사상리론의 천재만이 쓸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론문을 쓰려면 이런 론문을 내놓아야 하오.》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대학졸업론문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어버이수령님의 사상을 100% 계승하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100% 완성할수 있는 길을 밝힌 귀중한 문헌이였다.

결절점—어떤 현상이 진행되는 과정에 성숙되여 이루어진 매듭.

지역적거점—농촌과 같이 지역적으로 분산된 대상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일정한 지역적단위.

제 3 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 조직령도

〔주체53(1964). 4—주체63(1974). 2〕

1.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 시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신 후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시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학을 졸업하시던 시기 우리 인민은 저저마다 장군님께서 자기 부문 사업을 지도해주실것을 절절히 념원하였다.

사회과학부문에서는 비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주체의 사상리론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기 부문의 사업을 지도해주실것을 열렬히 소망하였다. 오래전부터 지도를 받아온 청년동맹에서는 또 그들대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청년사업을 지도해주실것을 간절히 바랐다. 특히 항일혁명투사들을 비롯한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실것을 념원하고있었다.

이 모든것을 헤아리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당사업과 혁명과 건설의 여러 부문에 대한 령도를 실현해나가는 과정에 풍부한 경험을 쌓으며 주체혁명위업을 순결하게 계승해나갈것을 바라시였다.

당중앙위원회는 조선혁명의 최고참모부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드시고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대원수님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수령님의 령도를 충직히 보좌해드리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실것을 결심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53(1964)년 4월 당중앙위원회에 오시였다.

당중앙위원회에 오신 첫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나는 동무들과 같이 수령님의 사업을 보좌하는 한 전사이다, 우리 함께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당을 강화발전시켜나가는 길에서 초석이 되고 참다운 당일군이 되자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자신을 위하여 따로 마련해놓은 사무실을 사양하시고 일군들과 한방에 계시면서 사업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에 오시여 실태료해부터 진행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진행하신 실태료해사업은 단순한 료해가 아니였다. 그것은 혁명과 건설을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전진시켜나가도록 하기 위한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 창조와 혁신의 과정이였다.

당사업, 군사사업을 비롯한 모든 부문 사업을 깊이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우리 당을 강화할데 대한 과업을 받으시고 그해 6월 19일부터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내가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기 시작한것이 1964년 6월입니다. 당중앙위원회에 오기는 미리 와있었지만 수령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할데 대한 과업을 주신것은 6월 19일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였다는 소식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끝없는 감격과 환희를 불러일으켰다.

어느날 한 일군이 축하의 인사를 드리러 장군님을 찾아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일군에게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게 되니 조선혁명에 대한 책임감으로 하여 어깨가 무거워진다고 하시였다. 계속하여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모

든 힘과 지혜를 다 바쳐 충실하게 일할 결심을 더욱 굳게 다지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을 당중앙위원회에 모신것은 우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있어서 크나큰 영광이고 행복이였으며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게 됨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령도를 더 잘 실현할수 있게 되였다.

당사업은 물론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모든 부문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날수 있게 되였으며 나아가서 주체혁명위업의 앞길에 창창한 미래가 펼쳐지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에 오신 첫 시기부터 당사업에서 주선을 바로세우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다.

이 시기 당사업에서는 주선이 바로 서지 못한 현상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런 현상을 알게 되신것은 벌써 오래전부터였지만 당중앙위원회에 오시여 더욱 깊이 느끼시였다.

어느날 150만개의 베아링을 생산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평양베아링공장에 나갔던 당지도소조성원들이 개별적간부의 지시에 따라 도중에 철수하여 들어왔다. 그 후과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지 못하게 되는 중대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사업에서 주선을 바로세우지 않고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의도대로 당사업을 진행해나갈수 없다고 인정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주선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당사업에서 주선은 전당에 어버이수령님의 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이였다. 다시말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는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당사업의 주선이 뚜렷이 밝혀짐으로써

로동계급의 당이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데서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있는 지도적지침이 마련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사업의 주선을 밝히신데 이어 먼저 당중앙위원회 부서와 일군들부터 당사업에서 주선을 바로세워나가도록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중앙과 지방의 각급 당조직들과 모든 당일군들도 주선을 똑바로 틀어쥐고 사업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이 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강도, 황해북도, 평안북도, 강원도, 함경남도의 당사업정형과 문학예술부문, 출판보도부문의 당사업실태를 현지에서 료해하시였다. 이 과정에 각급 당조직들이 자기 부문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잘 모르고있으며 지어는 수령님의 교시를 자의대로 해석하는 엄중한 현상까지 나타나고있다는것을 꿰뚫어보시였다.

여러 부문의 실태를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사업에서 주선을 확고히 세우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당적으로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정확히 전달침투하는 체계를 정연하게 세우시였다. 이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관철하고 총화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는데 힘을 집중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강서군당전원회의와 청산리당총회에서 하신 교시집행정형총화를 군당과 리당들에서 해마다 진행하는것을 전통화하기 위한 대책도 세우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처럼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첫 시기부터 당사업에서 주선을 바로세우도록 하심으로써 당사업을 철저히 어버이수령님의 의도대로 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또한 당안에서 온갖 이색적인 요소들을 적발분쇄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당중앙위원회—당대회와 당대회사이에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하는 당의 최고지도기관.

2.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을 폭로분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것은 우리 혁명대오를 튼튼히 다지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절박한 요구였다.

그것은 1960년대 중엽 우리 나라에서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책동이 심해진것과 관련되여있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운다는것은 전당에 하나의 혁명사상, 수령의 혁명사상이 꽉 들어차게 하고 그에 기초하여 하나의 령도, 수령의 령도를 보장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당사업에서 주선을 바로세우기 위한 투쟁을 지도하시는 과정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부 당의 요직에 있는자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의도에 어긋나게 행동하고있다는것을 예리하게 간파하시였다.

이자들은 우리 당의 혁명사상을 반대하고 혁명전통을 없애버리려고 책동하였으며 앞에서는 당정책을 받드는척 하면서 뒤에서는 그것을 헐뜯고 그 집행을 여러모로 방해하였다. 이자들의 책동을 그대로 두고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할수 없고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나갈수 없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여러 분야에 끼친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반혁명적책동을 밝혀내시고 짓부셔버리시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시키려는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책동을 분쇄하시였다.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로부터 량강도 혜산시에 건립되고있던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건설이 일시 중단되였다는 뜻밖의 보고를 받으시였다.

그 탑으로 말하면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승리 30돐을 맞으며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건립되는 혁명전통주제의 기념비였다. 그런데 기념탑건설장에 나타난

당의 요직에 있다는 한 《간부》라는자는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을 인민영웅탑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모시지 못하게 하고 탑의 규모도 작게 하라고 내리먹였다. 이자의 속심은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권위를 훼손시키려는데 있었다.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각성을 높여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양보할수 없다, 그가 누구든 절대로 양보할수 없다, 하늘이 무너진대도 양보할수 없다고 거듭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누가 뭐라든 동요하지 말고 계획한대로 기념탑에 수령님의 동상을 크게 모시고 조각군상들도 그대로 형상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권위를 허물어보려던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책동은 제때에 파탄되고 일시 중단되였던 기념탑건설도 성과적으로 추진되였다.

>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
>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찬란한 로정과 불멸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세운 기념탑.
>
> 기념탑은 펄럭이는 기발을 형상한 탑신(높이 38.7m, 길이 30.3m, 재료 붉은 화강석)의 정면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과 탑신두리에 있는 60명의 대인물군상으로 이루어져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전통교양을 방해하는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책동도 짓부셔버리시였다.

이자들은 혁명전통의 폭을 상하좌우로 넓혀야 한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 오가잡탕을 끌어들이려고 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회상기를 비롯한 혁명전통교양자료들을 찍어내지 못하게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자들의 책동을 꿰뚫어보시고 여러 기회에 혁명전통에 오가잡탕을 끌어들이려는것은 그 순결성을 없애려는 작간이라고 폭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이어나가야 할 혁명전통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전통이라고 밝히시였다. 그리고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비롯한 혁명전통교양도서들도 많이 찍어내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헐뜯고 그 집행을 방

해하는 반당수정주의자들의 책동에 대해서도 강한 타격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예리한 통찰력과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정체는 날날이 드러나고 그자들의 반혁명적책동은 제때에 저지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을 폭로분쇄하기 위한 전당적인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러 단위의 사업을 료해하시는 과정에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죄행을 전면적으로 파악하시였으며 그 엄중성과 해독적후과가 매우 크다는것을 절감하시였다.

어느날 깊은 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집무실에서 록음기를 틀어놓고 《적기가》를 듣고계시였다.

이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화로 지금 무엇을 하고있는가고 물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적기가》를 듣고있다고 말씀올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피를 끓게 하는 노래라고 하시며 조선의 혁명가들은 지난날처럼 앞으로도 계속 《적기가》를 부르면서 피를 끓여야 할것 같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장군님께서는 안팎의 정세가 복잡하고 변절자, 배신자들이 머리를 쳐들었을 때 이처럼 《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키리라》는 《적기가》를 듣고 부르시며 그자들과 단호히 결별하기로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후 어버이수령님께 자신께서 몸소 료해하신 반당수정주의자들의 죄행자료와 그자들을 폭로분쇄하실 결심을 보고드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이 당의 요직에 틀고앉아 책동한것만큼 먼저 당중앙위원회안에서 그자들의 죄행을 폭로비판하는 투쟁을 벌리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그후 주체56(1967)년 4월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의 회의가 열리였고 이어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가 소집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회의들이 어버이수령님의 의도대로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에서 진행되도록 그 준비로부터 진행 전 과정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특히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결정적인 전환의 계기가 되게 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얼마전에 있은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회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미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의 회의가 진행되던 그때에 벌써 앞으로 있게 될 전원회의준비사업을 포치하시고 보고서를 회의성격과 목적에 맞게 정치사상적으로 예리하게 잘 쓰도록 하시였다. 한편 일군들로 하여금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책동을 낱낱이 폭로하고 이에 강한 타격을 주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에서는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죄행을 철저히 폭로하고 그자들을 당대렬에서 쫓아내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는 전당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력사적인 전환점으로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이번 회의를 계기로 우리 당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워나가게 되였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당의 유일사상체계라는 말을 전당적으로 쓰게 되였는데 유일이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유일이라는 말은 수령님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말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후날 이때를 회상하여 그때 나는 반당반혁명분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이 당원의 의무이고 또 그렇게 하는것이 당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것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말아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전원회의를 계기로 당안에 숨어있던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이 청산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당의 통일단결을 반석같이 다지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전당을 일색화할수 있는 확고한 기초가 마련되였다.

이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당사업을 령도하시면서 이룩하신 가장 큰 업적중의 하나였다.

혁명전통—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처음으로 개척되던 시기 수령에 의하여 창조된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로 되는 혁명적재부.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사상여독 청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가 있은 다음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사상여독을 청산하기 위한 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빼기 위한 투쟁을 전당적으로 강하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를 계기로 오래동안 우리 당안에 숨어서 책동하던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은 당대렬에서 제거되였다. 그러나 이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교활한 방법으로 여러 분야에 뿌려놓은 사상여독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사상여독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철저히 보장할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런 실정에서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사상여독을 청산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사상여독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들을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56(1967)년 5월을 비롯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에게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사상여독을 청산하는 투쟁을 어버이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보위하며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데 중심을 두고 꾸준히 벌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이와 함께 주동을 치고 피동을 교양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편향없이 관철하며 사상투쟁을 기본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이 원칙적문제들은 반당수정주의

분자들의 사상여독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으로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사상여독을 청산하기 위한 전당적인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먼저 일군들과 당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키는 사업을 진행하시였다.

사상투쟁의 성과는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정치사상적준비정도가 어떠한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에게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에서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교시와 전원회의결정관철을 위한 지도사업요강을 전달침투하도록 하시였다.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이 저지른 죄행에 대한 자료도 아래당조직들에 내려보내게 하시였다.

> **반당분자들을 제거한 주요회의**
>
> · 당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주체41(1952)년 12월〕문헌을 토의하는 전당적인 사상투쟁과정에 박헌영, 리승엽간첩종파집단을 적발숙청
>
> · 당중앙위원회〔주체45(1956)년 8월〕전원회의에서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반당반혁명종파집단을 청산
>
> · 당대표자회〔주체47(1958)년 3월〕에서 반종파투쟁을 총화, 그를 계기로 종파의 사상여독 청산
>
> ·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주체56(1967)년 5월〕에서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을 적발청산
>
> · 조선인민군당위원회 제4기 제4차전원회의확대회의〔주체58(1969)년 1월〕에서 군벌관료주의자들을 당대렬에서 제거

그리하여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당의 의도와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죄행을 똑똑히 알고 사상투쟁에 적극 참가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각급 당조직들에서 사상투쟁회의를 벌리게 하시고 회의가 편향없이 진행되도록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무엇보다 성, 중앙기관들에 당중앙위원회 일군들로 무어진 지도소조를 파견하여 집중지도사업을 하게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지도소조들이 사상투쟁회의를 정확히 진행하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화문학창작사에서 먼저 사상투쟁회의를 시작하게 하시였다.

당시 문학예술부문 특히 영화창작의 첫 공정을 맡고있는 조선영화문학창작사에는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사상여독이 깊이 남아있었다. 혁명적인 영화를 더 많이 만들어내자면 영화문학창작사에서부터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빼기 위한 사상투쟁을 벌려야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로부터 주체56(1967)년 6월 조선영화문학창작사에 대한 집중지도를 하게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그 과정에 해결하여야 할 과업과 힘을 넣어야 할 중요한 문제들도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영화문학창작사에 대한 집중지도사업을 포치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뽑기 위한 사상투쟁회의가 편향없이 진행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8월 중순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일군을 통하여 조선영화문학창작사에서 진행되고있는 사상투쟁회의정형을 료해하시였다.

사상투쟁회의에서는 창작가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잘 관철하지 못한 현상, 비조직적이며 자유주의적인 현상 등 여러가지 현상들이 비판되였다. 그런데 주로 작품을 많이 쓴 오랜 작가들이 비판을 많이 받고 반면에 몇년가도 작품 하나 쓰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판도 되지 않았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상투쟁회의의 과녁이 바로 설정된것 같지 않다고 지적하시면서 사상투쟁의 목적에 대하여 다시금 밝혀주시였다.

사상투쟁을 하는 목적은 결함있는 작가들을 내쫓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그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그들을 교양개조하자는데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계속하여 오랜 작가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나쁜 사상여독을 빨리 가셔내고 그들이 새로운 결의를 가지고 영화문학창작사업의 주공을 훌륭히 담당하도록 떠밀어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제라도 사상투쟁회의의 과녁을 똑바로 정하고 작품을 써내지 못한 건달군들을 비판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후 영화문학창작사에서 진행된 사상투쟁회의는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에 맞게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되여 실속있게 진행되였으며 그 성과는 좋은 작품을 많이 써내는데서 뚜렷이 나타났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화문학창작사 사상투쟁회의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문학예술부문과 출판보도부문 일군들의 사상투쟁회의가 실속있게 진행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또한 함경남도를 비롯한 여러 지방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당조직들이 사상투쟁회의를 당의 의도에 맞게 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지도밑에 전당적으로 힘있게 벌어진 사상투쟁의 불길속에서 온갖 불건전한 사상독소가 점차 가셔지게 되였다.

당의 유일사상교양 강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가 있은 다음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사상여독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그러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은 응당한 수준에서 진척되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이 절박한 시대적 요구로 나선다는것을 깊이 헤아리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당사상사업부문앞에 나서는 첫째가는 과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유일사상교양을 새로운 높이에서 진공적으로 밀고나가는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56(1967)년 6월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하신 담화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의 구체적인 과업들을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당의 유일사상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해 8월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전달침투하는 정연한 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게 하시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매 시기 제시하시는 로선과 방침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특히 어버이수령님의 고전적로작들을 대대적으로 출판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시였다.

주체56(1967)년이 다 저물어가던 12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의 한 일군을 만나시여 어버이수령님의 로작출판사업정형을 알아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출판사업에서 많은 결함이 있다는것을 헤아리시고 이제부터 새 출발을 하여 로작출판사업을 최상의 높이에서 보장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로 출판하는 《**김일성**저작선집》에 모실 어버이수령님의 초상화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로 출판하는 저작선집에는 권별로 해당시기의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을 모셔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오래전부터 보관하여오시던 해방직후의 수령님의 사진문헌을 넘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로작과 함께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과학리론적으로 깊이있게 해설한 도서들을 편찬출판할데 대한 조치를 취하시고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지도밑에 주체57(1968)년에 출판발행된 어버이수령님의 로작은 주체55(1966)년에 비하여 종수는 거의 6배, 부수는 무려 60배나 늘어났다. 또한 《혁명과 건설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해설》(전 5권)과 《조선로동당정책사》(전 40권)를 비롯한 수많은 해설도서들도 인민들속에 널리 보급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당의 유일사상교양거점들을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연구실에 모실 어버이수령님의 혁명력사도록을 새로 편찬하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다.

그때 일군들은 새 도록을 잘 편찬해보려고 토론을 거듭하였으나 정확한 방도를 찾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던 주체57(1968)년 3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도록편찬일군들이 일하는 현장을 찾으시고 도록편찬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몸소 가지고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로작친필원고들을 내놓으시면서 수령님의 혁명활동연구와 선전에서 기본은 혁명사상이다, 그런데 지난 시기에는 수령님의 혁명활동에 대한 교양선전에서 가장 중요한 혁명사상은 빼놓고 기껏해서 덕성에 대

하여서만 강조하였다고 지적하시였다. 계속하여 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하여 말할 때 무엇보다먼저 혁명사상에 대하여 말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서 혁명리론도 나오고 령도방법도 나오며 고매한 덕성과 풍모도 흘러나오게 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 도록은 사진만 많이 넣지 말고 어디까지나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주는 방향에서 실속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로작친필원고를 새 도록에 넣으면 우리 인민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이 무척 기뻐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로작친필원고가 들어있는 사업노트들을 더 찾아가지고 나오시여 이틀동안이나 친필원고복사사업을 세심히 지도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이고도 세심한 지도밑에 어버이수령님의 혁명력사도록이 새로 편찬되게 되였으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개편된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종래의 조선로동당력사연구실)들에 모셔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을 통한 유일사상교양사업이 새로운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와 함께 조선예술영화촬영소를 비롯하여 어버이수령님의 현지지도를 받은 중요단위들에 현지교시판, 혁명사적관을 유일사상교양의 거점으로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량강도일대의 혁명전적지들을 돌아보시면서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을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잘 꾸리며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문제들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유일사상교양이 강화됨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심장으로 체득하고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게 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을 제때에 폭로분쇄하시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심으로써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당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이

이룩되였다.

거점—일정한 활동을 하는데서 근거지로 삼거나 의거하는 중요한 곳.

편찬—일정한 종류의 책을 만들기 위하여 여러가지 자료들을 일정한 체계로 분석하여 엮는것.

3. 선군정치 시작,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

선군정치 시작,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강화

1960년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는 장군님의 선군정치가 펼쳐질수 있는 전제가 마련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1960년대말 인민군대를 틀어쥐고 선군정치를 시작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60년대초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때로부터 인민군대의 강화발전과 나라의 방위력강화에 커다란 공헌을 하시였으며 이 나날 인민군지휘성원들로부터 높은 존경을 받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특출한 정치군사적자질과 장군님을 따르는 인민군지휘성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1960년대말, 1970년대초에 인민군대사업을 맡아 지도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시기부터 인민군대를 틀어쥐고 력사적인 선군정치를 시작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정치를 시작하시면서 인민군대를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하는데 첫째가는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인민군당위원회 제4기 제4차전원회의확대회의를 계기로 반당군벌주의자들의 죄행이 전면적으로 폭로분쇄되고 놈들이 당과 혁명대오에서 제거됨으로써 인민군대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령도, 당의 령도가 더욱 확고히 보장되게 되였다.

인민군대앞에는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할 과업이 나섰다.

이 모든것을 깊이 헤아리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안의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의 역할을 높이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다.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고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였다. 더우기 군벌관료주의자들의 책동으로 하여 군대안의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의 기능이 약화된 조건에서 이 문제는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58(1969)년 1월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및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일군들과 하신 담화에서 인민군대당조직과 정치기관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무엇보다먼저 군대안의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을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는 생기발랄하고 전투적인 산조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담화에서 각급 당위원회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인민군대내 정치기관들의 역할을 높이고 정치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은 인민군대에 끼친 군벌관료주의자들의 여독을 청산하고 인민군대를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길을 밝혀주는 강령적지침으로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후 인민군대안의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나가도록 이끄시였다.

무엇보다 정치일군대렬을 혁명가유자녀들을 비롯한 우리 당의 핵심들로 더욱 튼튼히 꾸리게 하시였다. 또한 정치일군후비양성사업을 개선강화하고 수많은 정치일군들을 정규교육기관에서 재교육하도록 하시였다.

특히 새로 나온 정치위원제와 정치지도원직제가 은을 내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벌관료주의를 청산하시면서 정치기관들의 권한을 높일수 있게 련대들에까지 전반적으로 정치위원제를 내오도록 하시였다.

그러나 일부 지휘관들은 새로 나온 정치위원제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러한 사정을 헤아리시고 일군들에게 정치위원제의 특징과 이 제도를 내오도록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의도를 하나하나 깨우쳐주시였다. 이와 함께 새로 임명되는 정치위원들이 자기 사업을 원만히 하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그러던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부대에 파견되는 정치위원을 친히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치위원은 해당 부대에 파견된 당의 대표이므로 부대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고 지휘관들과 참모부들이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하도록 하며 간부들이 당생활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할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렇듯 세심한 보살피심이 있었기에 인민군대안의 정치위원들은 부대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에서 당의 대표답게 자기앞에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지도밑에 군대안의 각급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 정치일군들의 역할이 높아짐으로써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가 강화되고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킬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군대안에서 유일사상교양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도록 하는데도 큰 힘을 넣으시였다.

우선 군인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도록 하시였다.

주체58(1969)년 1월 어느날 군벌관료주의자들의 죄행과 그 후과를 극복하기 위한 방도를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강화하는데서 기본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그러시면서 당의 유일사상체

계를 철저히 세우자면 무엇보다도 모든 군인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모든 군인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과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그것은 전군에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제때에 전달침투하는 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는것이였다. 그리고 군인들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과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고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대로 인민군대안에서는 정치사상교양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안의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해 6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총정치국의 한 일군을 만나시여 군대내 정치사상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날 총정치국 선전선동부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계속하여 우리 인민군대를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에 무한히 충직한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자면 군인들속에서 수령님의 군건설령도업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이와 함께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답사 및 참관을 통한 교양과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군부대들을 현지지도하신 혁명사적내용으로 교양하기 위한 사업을 잘할데 대해서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특히 어버이수령님의 군건설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혁명사적지들을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을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최고사령부가 자리잡고있던 곳에 혁명사적지를 꾸리게 하시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입으셨던 원수복을 비롯한 사적물들을 보내주시였다. 그리고 사적관이 개관된 다음에는 몸소 사적지를 찾으시여 혁명사적지를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을 잘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인민군대안의 사상교양사업이 더욱 개선강화됨으로써 우리 인민군대는 오직 어버이수령님만을 알고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사수할 각오를 가진 대오로 튼튼히 준비될수 있었다.

참으로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강화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선 어버이수령님의 군대, 당의 군대로 강화발전시키신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군건설에서 이룩하신 커다란 업적이다.

당의 군사로선 관철

위대한 장군님의 옳바른 지도밑에 우리 인민군대는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된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의 자기의 면모를 훌륭히 갖추어나갔다.

우리 혁명앞에는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당의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의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군간부화방침을 관철하여 인민군대의 군사기술적위력을 백방으로 높여나가시였다.

전군간부화방침을 관철하자면 군사교육사업과 군사훈련을 백방으로 강화해야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군사교육기관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주체55(1966)년 4～5월사이에만도 군사지휘관을 키워내는데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강건종합군관학교를 여러차례나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교교육사업을 한계단 추켜세우도록 지도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군사교육과 부대관리에서 창조된 이 학교의 경험을 군사학교들과 전군에 일반화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사교육의 최고전당인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찾으시고 대학의 교육교양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

을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군사사상과 전법을 깊이 연구체득하기 위한 기본교재는 군사문제와 관련한 수령님의 로작과 교시라고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그러시면서 교원들과 학생들이 군사문제와 관련한 수령님의 로작과 교시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 연구학습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지도밑에 군사학교들에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서고 주체전법으로 무장한 유능한 지휘성원들을 더 많이, 더 잘 키워냄으로써 전군간부화가 힘있게 추진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부대들을 끊임없이 현지지도하시면서 전투훈련을 더욱 강화하도록 정력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어느날 동해안에 자리잡고있는 한 해군부대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파도 사나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몸소 어뢰정에 오르시여 해병들의 항해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투훈련은 실전과 같은 정황속에서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해상훈련에서도 어버이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창조하신 주체전법을 익히는데 기본을 둘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이날 오랜 시간에 걸쳐 훈련을 지도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당백의 장수힘을 키우는 기본열쇠는 훈련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해병들은 시간을 아껴가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밖에도 여러 비행구분대와 땅크구분대, 해안포중대를 찾으시여 훈련을 지도해주시면서 전투훈련을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훈련에서 형식성과 간략화가 없어지고 주체가 서게 되였으며 훈련강령을 무조건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이 서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의 무장장비를 더욱 현대화하는 사업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한 병기공장도 여러차례 현지지도하시면서 무기를 조선사람의 체질에 맞게 가볍고 휴대하기 간편하면서도 쓸모있게 만들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주체56(1967)년 8월에는 다른 한 병기공장을 찾으시여 산악지대가 많은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무기를 생산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리고 주체56(1967)년 10월에는 사로청중앙위원회

(당시) 책임일군에게 소년단원들속에서 《소년》호땅크, 《소년》호비행기, 《소년》호함선을 인민군대에 더 많이 보내주기 위한 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군대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고 전군의 간부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 이른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장성강화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를 힘있게 다그쳐 전인민적방위체계를 세우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요새화하여 온 나라를 소왕청유격근거지처럼 만들자는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이고 나의 결심입니다.》

샤오왕칭(소왕청)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을 벌리시던 초시기 조선혁명의 참모부가 자리잡고있던 곳이다.

1933년 일제의 동기대《토벌》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샤오왕칭에 있는 인민들을 무장시키시여 2개 중대의 유격대력량을 가지고도 90일간에 걸쳐 끊임없이 달려드는 적들을 물리치고 근거지를 지켜내시였다.

샤오왕칭처럼 온 나라를 철벽의 요새로 튼튼히 꾸리실것을 구상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제대군인들과 우수한 근로자들로 로농적위대대렬을 더욱 확대하고 그 지휘체계를 보다 정연하게 세워주시였다. 또한 적위대대원들의 군사기술수준을 인민군군인들의

> **로농적위대**
>
>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48(1959)년 1월 14일에 창건해주신 강력한 민간무력이다.
>
> 로농적위대는 사회주의근로자들의 자원적인 민간군사조직으로서 무장으로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고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지키는 혁명적무장력이다.
>
> **붉은청년근위대**
>
>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59(1970)년 9월 12일에 창건해주신 학생청년들로 조직된 반군사조직이다.
>
> 붉은청년근위대는 항일혁명투쟁시기의 청년의용군, 소년선봉대의 영광스러운전통을 계승하였다.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사업을 짜고드시는 한편 갓 조직된 붉은청년근위대대렬을 잘 꾸리고 훈련조직을 잘하도록 보살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국을 요새화하는 사업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전국을 요새화하자면 중요한 지점마다에 방어진지를 잘 꾸려야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동서해안의 중요한 지점들을 돌아보시면서 지대적특성에 맞게 방어공사도 하고 화점이나 전호와 같은 방어진지를 튼튼히 꾸리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로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는 정치군사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믿음직한 민간무력으로 강화되고 온 나라가 그 어떤 적들도 쳐들어올수 없는 요새로 전변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나라의 방위력은 조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켜낼수 있게 더욱 강화되였다.

그 력사의 나날에 우리의 인민군대는 1967년 1월 공화국북반부령해를 침범한 《경호함 56》호를 바다속에 처넣고 이듬해 1월에는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나포할수 있었다. 그리고 그 이듬해 4월에는 우리 나라 하늘을 침범해온 미제의 대형간첩비행기 《EC-121》호를 쏴떨구었다.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방침에 따라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신 결과에 이루어진 고귀한 결실이였다.

전군간부화—전사로부터 장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한등급이상의 높은 직무를 맡아 수행할수 있도록 준비시키는것.

전군현대화—인민군대를 현대적무기와 전투기술기재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발전시키는것.

전민무장화—전체 인민이 총을 들고 적과 싸울수 있게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준비시키는것.

전국요새화—나라의 모든 지역에 철벽의 방어시설을 만들어 어느때 어디로 적이 쳐들어와도 그것을 물리칠수 있도록 전국을 요새로 만드는것.

4. 문학예술혁명 조직령도

문학예술혁명의 돌파구—영화혁명 지도

문학예술혁명은 내용과 형식, 창조체계와 창조방법의 모든 부문에서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온갖 낡은것을 없애고 주체의 문학예술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다.

문학예술혁명을 일으키는것은 당시 문학예술의 실태와 관련하여 절실한 문제로 나섰다.

이 시기 국제무대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와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문학예술이 심각한 진통을 겪고있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반당수정주의자들의 책동과 그 여독으로 문학예술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있었다.

이러한 실태를 깊이 헤아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화, 가극, 연극을 비롯한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그리시고는 영화혁명을 앞세워 문학예술혁명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시였다.

영화는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서 감화력이 매우 큰 예술이다. 또한 문학, 음악, 미술 등 다른 예술의 특성을 다 포함하고있는 종합예술이다.

따라서 영화예술에 화력을 집중하여 돌파구를 여는것은 문학예술전반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로부터 영화혁명을 앞세워 문학예술혁명의 돌파구를 열어나갈것을 결심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영화예술인들을 영화혁명의 믿음직한 담당자로 준비시키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영화예술인들을 영화혁명의 담당자로 준비시키자면 그들을 정치실무적으로 준비시켜야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화예술인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드시였다.

영화부문에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전달침투체계와 학습체계를 정연하게 세워주시였다. 주체59(1970)년 1월에는 종래의 낡은 예

술총화회의제도를 없애고 위대한 수령님의 문예사상연구모임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여러차례에 걸쳐 영화예술부문 회의들을 지도하시면서 영화예술인들이 조직생활을 통하여 혁명적으로 단련하고 창작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화예술인들의 예술적기량을 높이기 위하여 연기훈련과 화술훈련, 예술학습을 강화하고 기량발표회와 무대공연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보살피심에 의하여 영화예술인대오가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된 대오로, 높은 예술적기량을 소유한 믿음직한 창조집단으로 자라나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에 기초하여 영화창작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조직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로 옮기는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영화혁명을 이끄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로 옮기는것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문학예술전통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는 책임적이고도 중대한 사업이며 그것은 또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본보기로 하여 영화예술전반을 새로운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리기 위한 보람차고 영예로운 사업입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혁명적문학예술의 력사적뿌리이며 대를 두고 영원히 계승발전시켜야 할 본보기작품이다.

그러므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에 옮기는것은 혁명문학예술의 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이며 영화예술전반을 새로운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리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백두산창작단을 무어주시고 예술영화 《유격대의 오형제》와 같은 혁명적대작들을 창작하는 과정에 혁명전통주제의 작품창작에서 귀중한 경험을 쌓도록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이러한 준비에 기초하여

주체57(1968)년 4월 영화예술부문의 창작가들에게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영화로 옮길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영화로 옮기는데서 원작에 충실하면서도 그의 심오한 사상적내용을 영화의 특성에 맞게 잘 살리는것을 근본원칙으로 내세우시고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창작가들이 영화대본작성에서 고충을 겪고있을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에게 불후의 고전적명작《피바다》의 종자와 사상예술적특성에 대하여 세세히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고는 거의 매일과 같이 창작가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시면서 의견도 주시고 영화대본을 수정가필해주시였다. 어떤 날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영화로 옮기는 사업에서는 나도 동무들과 같은 평범한 전사라고 하시면서 밤을 지새우시며 대본초고를 보고 지도하여주시였다.

이렇게 수많은 낮과 밤을 바쳐 예술영화《피바다》의 대본을 완성시켜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련이어 영화촬영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였다. 찬이슬 내리는 이른새벽에도, 눈보라 휘몰아치는 깊은 밤에도 촬영소를 찾으시거나 일군들을 부르시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영화의 모든 장면을 명장면으로 완성시키기 위하여 기울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는 끝이 없었다.

주체58(1969)년 8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시 력포구역에서 진행되는 일제의 지엔다오(간도)《토벌》장면의 촬영작업을 하루종일 현지에서 지도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영화의 완성을 위하여 120여차의 지도를 주시고 무려 187개소에 달하는 영화장면들을 손수 다듬어주시였다.

예술영화 《피바다》는 주체58(1969)년말에 드디여 걸작으로 훌륭히 완성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예술영화 《피바다》를 완성하신데 이어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영화로 옮기는 사업을 4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행하도록 하심으로써 속도전의 봉화를 지펴주시였다. 그리고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를 영화로 옮긴 예술영화 《꽃파는 처녀》도 세계영화계를 경탄시키는 대걸작으로 완성하도록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로 옮기는 과정을 통하여 혁명적영화예술의 빛나는 전통이 마련되였다.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문학예술건설력사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으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밖에도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예술영화들과 기록영화, 과학영화, 아동영화창작에서도 일대 혁신을 일으키도록 이끄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정력적이고도 세심한 지도밑에 영화혁명이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문학예술혁명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였다.

가극혁명 지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화혁명에 이어 가극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당시 가극은 오랜 력사를 내려오면서 이 분야에 남아있던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었다.

가극에서 낡은 틀을 마스고 새로운 혁명가극을 창조하지 않고서는 가극예술을 시대적요구와 인민들의 지향에 맞게 발전시킬수 없었다.

일찌기 기존가극예술의 제한성을 꿰뚫어보시고 그 극복방도를 모색하여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주체58(1969)년 9월 가극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혁명적인 내용과 민족적인 형식에 기초하여 가극예술을 현대화, 통속화하는것을 가극혁명의 기본과업으로 규정하시였다. 그리고 가극형식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켜 기본형상수단인 노래를 절가화하고 방창을 널리 도입하며 무용을 극과 밀착시키고 흐름식립체무대를 창조할데 대한 우리 식의 새로운 가극창작원칙들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가극으로 옮기는 과정을 통하여 가극혁명을 일으키도록 세심히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가극으로 옮기는 과정을 통하여 가극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가극으로 옮기는 과정을 통하여 가극혁명을 일으킬 결심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창조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드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선 원작의 심오한 사상적내용을 손색없이 옮겨 종래의 모든 가극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우리 식의 가극대본을 만들도록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중앙과 지방의 우수한 창작가, 예술인들로 창작집단을 무어주시고 혁명가극창조사업을 친히 지도하시였다.

먼저 가극 《피바다》에서 나오는 모든 노래들을 철저히 절가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처음 창작가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절가화방침을 옳게 리해하지 못한데로부터 다른 나라의 가극이나 옛날 우리 나라 가극에서 부르던것과 같은 투의 노래들을 내놓았다.

가극 《피바다》의 4장에 나오는 주인공과 경철 어머니가 만나는 장면에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그런 실례의 하나였다. 그 노래는 시도 없고 선률도 없는 노래 아닌 노래였다.

이 노래를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것은 절가화된 가사가 아니라 대사를 그대로 옮겨놓은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대사의 핵을 가지고 가사를 만들고 거기에 명곡을 붙여야 절가화가 된다고 하시면서 친히 이 장면의 가사를 고쳐주시였다.

그리하여 본래 경철 어머니가 한절로 부르던 노래를 두절로 된 절가로 만들어 주인공과 경철 어머니가 엇바꿔 부르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이 장면은 맥빠진 설명에서 벗어나 노래도 있고 극도 있는 훌륭한 화폭으로 펼쳐질수 있었다.

가극의 노래들을 하나하나 절가로 완성시키기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참으로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시였다.

혁명가극 《피바다》창조의 전 과정에 무려 2 400여곡의 노래를 들어주시고 47곡의 노래를 골라서 절가화된 명곡으로 완성시켜주시였다. 보통 한곡을 3～4번씩 변형시켜 들으시였고 어떤 곡들은 10번, 20번씩이나 고쳐서 들으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종래가극의 낡은 흔적은 말끔히 가셔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노래의 절가화와 함께 가극에 방창을 받아들이도록 이끄시였다.

처음에 창작가들은 방창이 가지고있는 풍부한 형상성을 보지 못한데로부터 주로 자연을 노래하고 정황을 설명하는 대목에만 방창을 썼다.

혁명가극 《피바다》의 제2장에 나오는 어머니가 글공부를 하는 장면이 그 대표적인 실례였다.

창작가들은 이 장면을 영화에서처럼 을남이가 낫같이 생긴 자는 기윽자이고 거꾸로 생긴 자는 니은자이다고 하면 어머니가 그것을 따라외우는것으로 형상했었다.

이 장면을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방창이란 바로 이런 때 써야 한다고 하시면서 어머니가 글공부하는 장면도 보여주면서 방창으로 제3자의 립장에서 어머니가 글공부하는 사연을 감동적으로 이야기해줄수 있을것이다, 관현악이 은은히 울린 다음 어머니의 심리세계를 노래하는 방창이 나오면 좋을것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리하여 이 장면은 천만마디의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할수 없는 어머니의 정신세계, 어머니와 아들사이에 오가는 살뜰한 정이 눈물겹도록 절절히 안겨오는 장면으로 완성될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장면뿐아니라 감방안에서 어머니의 꿈장면, 을남이가 죽는 장면을 비롯한 수많은 장면들 그리고 장과 장사이를 련결하는 계기에도 방창을 주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가극에 방창을 받아들인것은 노래의 절가화와 함께 인류가극사에서 위대한 사변으로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무용과 무대미술에서도 새로운 가극창작원칙을 훌륭히 구현하도록 세심히 지도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피바다》의 마지막장면에 나오는 유격대원들의 성시공격에 호응하여 어머니가 육중한 성문을 열어제끼는것과 함께 성벽이 요란한 폭음을 내며 두동강으로 갈라지는 장면, 고문을 당한 주인공어머니가 쓰러진채 잠드는 가운데 벌어지는 꿈무용장면 등 모든 장면들이 훌륭히 완성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가극으로 창조하는 사업은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빛나게 수행되였다.

주체60(1971)년 7월 혁명가극 《피바다》의 첫 공연을 보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쁨에 넘쳐 절가화된 좋은 노래들을 극적으로 중요한 대목에 반복해서 부르게 한것도 잘하였고 특히 방창을 많이 넣은것이 아주 잘되였다고 하시면서 로씨야식도 유럽식도 아니고 완전히 우리 식이라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혁명가극《피바다》의 창조는 가극예술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력사적전환점으로, 《피바다》식혁명가극의 새 력사를 펼쳐놓은 시발점으로 되였다. 이때부터 참다운 가극예술발전의 넓은 길이 열리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혁명가극 《피바다》를 본보기로 하여 여러 혁명가극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학예술부문 일군들에게 《피바다》식 혁명가극을 본보기로 하여 사상예술성이 높은 혁명가극을 만들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를 가극으로 옮긴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 《당의 참된 딸》, 《밀림아 이야기하라》, 《금강산의 노래》의 창조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여 기념비적명작들로 완성시켜주시였다.

참으로 불과 1년 남짓한 사이에 5대혁명가극을 창조하시고 가극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신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인류가극사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으로 된다.

절가—가사가 여러개의 절로 되여있고 매개 절마다 같은 선률을 되풀이하여 곡을 단 노래.

방창—가극을 비롯한 무대예술에서 주인공의 정신세계나 극적정황과 진행을 무대밖에서 설명하고 보충하는 노래.

수령형상문학창조사업 지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문학예술혁명을 령도하시면서 특별히 주목을 돌리신것은 어버이수령님을 형상한 혁명적인 문학작품을 창작하는것이였다.

문학예술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이였다. 그 념원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이 심화되고있던 196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더욱 강렬해졌다.

일찌기 수령의 형상창조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의 요구와 인민들의 념원을 반영하여 주체55(1966)년 2월 수령을 형상한 문학을 창조할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작가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과 력사적인 담화를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혁명문학은 명실공히 수령을 형상한 문학을 의미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담화에서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하자면 마땅히 수령을 형상한 문학작품을 창작하는 사업을 작가동맹의 중심과업으로 내세우고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러시면서 수령의 위대한 풍모를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한 혁명적인 작품을 많이 창작할데 대한 문제, 작가대렬을 튼튼히 꾸릴데 대한 문제 등 수령형상문학을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과 그 실현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방침은 혁명문학건설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길을 열어놓은 지도적지침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수령을 형상한 문학작품 창작사업을 지도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56(1967)년 6월 4.15문학창작단을 무어주시였다.

4.15문학창작단이 무어진 초기에 작가들은 수령형상창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있었다.

인류력사가 그 류례를 모르는 위대한 수령님의 장구하고도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전기식으로 쓰겠는가, 년대별로 따라가면서 쓰겠는가, 한두편이 아니라 여러편으로 쓰는 조건에서 매 작품들의 통일성을 어떻게 보장하겠는가 하는 여러가지 문제를 두고 작가들은 론쟁을 거듭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작가들의 고충과 실태를 헤아려보시고 어버이수령님의 혁명력사를 형상한 소설창작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명철한 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력사를 몇편의 장편소설로 형상한다는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시였다. 계속하여 수령님의 혁명력사의 위대성으로 보나 그 방대한 내용의 폭으로 보나 총서형식으로 하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하시면서 하나의 총서형식으로 하면 매 장편소설이 각기 자기의 독자적인 의의를 가지면서도 통일성을 보장할수 있을것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력사를 형상하는 소설을 일대기나 전기식으로 쓰지 말고 철저히 어느 한 력사적사변을 중심으로 하여 시기별 혹은 단계별로 써야 한다고 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력사를 형상한 총서제목은 《불멸의 력사》로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불멸의 력사》, 이것은 수령님의 혁명력사전반을 포괄하는 총괄적인 제목이며 종자라고 볼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작가들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이 자료취재사업에서 불편이 없도록 여러가지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작가들이 필요한 자료를 어느때나 마음대로 보도록 하시고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에 대한 답사도 조직하게 하시였다. 이와 함께 많은 항일혁명투사들도 만나게 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옮긴 영화나 혁명가극시연회에 작가들을 불러주시고 원작이 좋으니 가극도 좋은 작품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문학작품은 저렇게 써야 한다고 가르쳐주기도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렇듯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총서 《불멸의 력사》창작전투가 힘있게 벌어졌다.

작가들이 높은 창작적열의를 안고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 《1932년》을 비롯한 4편의 초고를 썼을 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부피 두터운 작품의 초고들을 친히 다 보아주시고 그 사상예술적수준을 최상의 높이에서 보장하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장편소설 《1932년》을 잘 썼다고 하시면서 샤오사하(소사하)집장면 같은것은 눈물이 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샤오사하집장면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격식화하지 말고 풍부한 인간성을 지니신 위대한 인간으로 그려야 한다고 그 수정방도에 대해서도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창작집단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60돐을 맞으며 장편소설 《1932년》을 훌륭히 완성하여 수령님께 올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소설을 보시고 아주 잘 썼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장편소설들은 걸작품으로 련이어 창작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을 형상한 문학작품을 창작하는데 힘을 넣으시면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소설에 옮기며 혁명전통주제, 조국해방전쟁주제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도록 하시였다.

그 과정에 주체의 혁명문학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였다.

총서—일정한 하나의 체계에 의하여 씌여진 소설들의 묶음.

전기—어떤 인물의 생애와 활동을 그의 생활로정을 따라 사회력사적사변들과의 련관속에서 쓴 글.

일대기—일정한 인물의 한생동안의 사업과 생활에 대하여 쓴 기록.

음악, 무용, 미술 및 교예에서 혁명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화와 가극, 문학뿐아니라 음악과 무용, 미술과 교예 등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가 전면적인 개화발전의 길에 들어서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음악예술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였다.

음악이 없는 인간생활은 꽃이 없는 화원과 같으며 노래없는 혁명은 승리할수 없다.

일찍부터 음악을 남달리 사랑하고 그에 대한 조예가 깊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음악예술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유일사상교양에 이바지하는 참다운 음악예술작품을 창작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음악창작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창작가들에게 노래는 부드럽고 서정적인 민요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의 생활감정에 맞게 유순하면서도 아름답고 우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주체적인 음악창작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특히 가요를 우리 식의 명곡으로 창작하도록 하는데 선차적힘을 넣으시였다.

음악창작가들에게 들을수록 좋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좋아하는 노래가 명곡이라고 하시면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흠모의 정을 담은 명곡을 지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우리 식 명곡창작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장백의 험한 산발 눈보라 헤치시고》라는 구절로 시작된 불멸의 혁명송가 《충성의 노래》를 창작하시였다.

혁명송가는 온갖 난관과 시련을 헤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위대한 풍모, 수령님께 바치는 우리 인민의 충실성과 흠모의 정을 절절하고 뜻깊게 형상한 우리 식 명곡의 본보기 작품이였다.

창작가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혁명송가 《충성의 노래》를 본보기로 하여 우리 인민들이 사랑하는 명곡들을 수많이 창작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무용예술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키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무용예술에서 민족적특성을 옳게 살리고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과 현대적미감에 맞는 무용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도록 하시였다.

특히 혁명전통주제의 무용 《눈이 내린다》, 《조국의 진달래》, 《키춤》과 사회주의현실주제의 무용 《사과풍년》을 세심히 지도하시여 4대무용명작으로 완성시켜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지도밑에 무용예술은 주체적이며 인민적인 무용으로 그 전성기를 펼치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조선화를 기본으로 하여 우리의 미술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이 시기 미술분야에서는 사대주의, 교조주의 등 낡은 사상잔재가 적지 않게 남아있어 서양화인 유화가 우세를 차지하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러한 실태를 료해하시고 조선화를 기본으로 하여 미술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조선화를 적극 내세우고 작품창작에서도 다른 형식의 미술작품보다 우위를 확고히 차지하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평양미술대학에 조선화학부를 새로 내오게 하시고 종합적미술창작기지인 만수대창작사의 조선화창작단을 본보기단위로 훌륭히 꾸리도록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조선화 《강선의 저녁노을》을 조선화의 본보기작품으로 창작하게 하시였다.

어느날 미술가들을 만나시여 강선제강소에 나가보시였던 일을 회고하시며 저녁노을이 참으로 아름다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 노을을 잘 그리면 좋은 조선화작품이 될것이라고 친히 그림

조선화

조선화는 오랜 력사적과정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감정과 정서에 맞게 발전하여온 우리나라의 고유한 그림형식이다.

조선화는 그 화법이 선명하고 간결하며 색채도 부드럽고 연하여 우리 인민의 미감에 잘 맞는다.

우리 인민의 민족적감정과 정서를 풍부하게 담고있으며 현실을 생동하게 그려내는 조선화는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조선화는 먹이 아니라 색감을 기본으로 하고있으며 함축하고 집중하는것은 조선화기법의 기본특징이다.

의 종자까지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후에도 작품의 창작과정을 여러차례 지도하시여 조선화 《강선의 저녁노을》을 현대조선화의 본보기작품으로, 세계적인 명화로 완성시켜주시였다.

그리하여 이 작품은 국제미술전람회에 출품되여 금메달을 받았다.

이밖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업적을 내용으로 하는 미술창작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였다. 한편 기념비적건축물들을 예술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평양지하철도, 조선예술영화촬영소의 벽화들을 기념비적벽화명작으로 완성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우리의 교예예술을 사회주의적내용과 민족적형식이 옳게 결합된 주체적인 민족교예로 발전시키도록 하시였다.

특히 모든 교예작품들에서 사상성과 예술성이 옳게 결합되고 체육문화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적민족교예의 특성을 잘 살려나가도록 지도하시였다.

그리하여 교예예술부문에서는 《공중비행》, 《널뛰기》, 《바다의 초병》과 같은 우수한 작품들이 창조되여 인민들을 체육문화적으로 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참으로 문학예술의 거장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문학예술혁명은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가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1970년대에 주체예술의 대전성기가 펼쳐지고 20세기 문예부흥의 새시대가 개척되였다.

5.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0돐을 성대히 경축

숭고한 사명감으로 교양

우리 당과 인민은 주체61(1972)년에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0돐을 맞이하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60돐을 계기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우리 혁명위업을 대

를 이어 계승완성할 확고한 결심을 깊이 간직하도록 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갈 숭고한 사명감을 깊이 간직하게 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중대한 문제였다. 더우기 이 문제는 해방후에 자라난 새 세대들이 우리 혁명의 계승자로 등장하고있던 조건에서 더욱 절박하게 제기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60돐을 앞두고 여러 기회에 새 세대 일군들에게 수령님께서 한평생 준엄한 혁명의 길을 걸어오신데 대하여 뜨겁게 말씀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김일성**대원수님은 우리 인민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쳐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20성상의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그리고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우리 조국을 영예롭게 수호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조국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고 우리 인민을 행복하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게 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참으로 우리 수령님께서 걸어오신 60평생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헌신적복무의 력사이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세기적변혁을 이룩한 위대한 창조의 력사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은 일군들로 하여금 조국과 인민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과 고마운 은덕을 잘 알고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게 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60돐을 계기로 새 세대들이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갈 숭고한 사명감을 깊이 간직하도록 하는데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가는것이 시대앞에 지니고있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사명이라는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주체60(1971)년 8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함께 백두산에 오르시여 어버이수령님의 한평생을 다시금 감회깊이 돌이켜보시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이 세상에 우리 수령님처럼 기나긴 세월 준엄한 혁명의 길을 걸어오신분은 없습니다.

이제 몇달 지나면 수령님께서 환갑을 맞으시게 됩니다. 이제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우리가 걸머지고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0돐기념일에도 새 세대 일군들에게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하고 끝까지 완성해나가는것이 새 세대들이 지닌 가장 영예롭고 숭고한 임무라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자신들의 숭고한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높은 충실성을 지니고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게 하는데서 귀중한 지침으로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후 새 세대들이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할데 대한 사명감을 더욱 깊이 간직하도록 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4월 15일이 지난 어느날 항일의 로투사들과 함께 인민군대의 새 세대 지휘관들이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만경대와 칠골혁명사적지에서 뜻깊은 하루를 보내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새 세대 지휘관들과 함께 혁명의 요람 만경대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앞서가는 항일투사들을 가리

키시며 백두산에서 수령님을 모시고 싸운 투사들의 머리에 이제는 흰 서리가 내렸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경대고향집 사립문에서부터 시작된 우리 혁명의 자랑찬 로정에 대하여 돌이켜보시면서 여기 만경대에서 시원이 열리고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우리는 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가야 한다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이날 칠골혁명사적지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신 다음 새 세대 지휘관들을 앞에 앉히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동무들은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했고 우리가 40여년간 해온 혁명사업을 계승해나갈 동무들이며 우리의 혈통을 이어나갈 교대자들이라고 믿음에 넘친 말씀을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없는 영광과 감격에 휩싸여있는 새 세대 지휘관들에게 대를 이어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감으로써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60돐을 계기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할데 대한 사명감을 깊이 간직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심으로써 그들은 시대앞에 지닌 자신의 사명과 임무를 더욱 자각하게 되였다.

사명감—마땅히 하여야 할것으로 맡겨진 임무에 대한 책임감.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이는것은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혁명적의리의 견지에서 보아도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들인 우리 인민들의 응당한 도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로부터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60돐을 맞

으며 수령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하여 수령님의 탄생 60돐을 맞으면서 당의 유일사상교양의 거점들을 훌륭히 꾸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60돐을 계기로 만수대언덕에 수령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며 조선혁명박물관을 건립할것을 발기하시고 이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최상의 수준에서 잘 형상하여 모시도록 온갖 정력과 로고를 다 바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 수령님의 동상은 탁월한 수령으로서의 위대성과 인민의 어버이로서의 자애로운 모습이 그대로 안겨오게 잘 형상하여야 하며 최대의 성의를 다하여 웅장하고 정중하게 모셔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창작가들이 올린 어버이수령님의 동상형성안을 몸소 보아주시고 수령님의 동상을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며 높이 손을 드신 거룩한 모습으로 형상하도록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모시는 과정이 곧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충실성을 더욱 높이는 과정으로 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뜨거운 마음에 의하여 수령님의 동상을 모시는 사업은 힘있게 추진되였다.

주체61(1972)년 3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모시는 사업을 몸소 현지에서 지도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과 함께 여러 군상들을 수령님의 동상을 중심으로 더욱 접근시키는 문제, 교양마당을 비롯한 주위환경과 조명설치문제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혁명박물관을 새로 꾸리는 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투쟁력사를 생동하게 보여줄수 있도록 사적물들을 더 많이 찾아 전시하도록 하시였다.

이렇듯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과 업적을 온 세상에 빛내이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에 의하여 수령님의 탄생 60돐을 계기로 수령님의 동상이 웅장하고 정중하게 건립되고 조선혁명박물관이 개관되였다.

이밖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0돐을 계기로 전국의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을 만대에 길이 전할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 잘 꾸리고 혁명사적비들을 정중히 건립하도록 하시였다. 한편 각 도들에서 **김일성**동지혁명사적관을 새로 개관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60돐을 계기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과 존함을 모신 훈장, 표창, 상을 제정하도록 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과 존함을 모신 **김일성**훈장과 **김일성**상, **김일성**청년영예상, **김일성**소년영예상을 제정하게 하시였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친필존함이 모셔진 선물시계표창제를 내오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이 모셔진 초상휘장을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수여하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휘장을 가슴에 모시고 영원히 수령님을 따라 혁명의 한길을 헤쳐나가려는것은 우리 인민모두의 간절한 소원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60돐을 맞으며 일군들에게 초상휘장견본을 형상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초상휘장견본이 나왔을 때에는 그것을 보아주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측면으로 형상하는것도 좋지만 앞으로는 정면초상휘장을 형상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초상휘장이 새롭게 형상되여나오자 그것을 군인들과 로동자, 농민, 사무원,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다 수여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활동과 크나큰 믿음에 의하여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60돐을 맞으며 온 나라 인민들은 수령님의 초상휘장을 앞가슴에 정중히 모시게 됨으로써 이미전부터 간직하여온 념원을 실현하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송가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도 창작보급하게 하시였다.

주체59(1970)년 9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건강을 축원하는 송가를 창작할것을 발기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친

히 송가창작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창작가들의 열정도 북돋아주시였다.

창작가들모두가 낮과 밤을 이어 가사를 쓰고 곡을 붙였지만 명가사에 명곡이라고 할만 한 노래는 나오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주체60(1971)년 양력설은 물론 4.15명절과 9.9절, 당창건기념일에도 종시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의 보고를 드리지 못하였다.

그러던 주체60(1971)년 12월 27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창작가들이 올린 노래 몇곡을 들어보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무들이 아직도 내 마음을 다 모른다고 하시면서 어버이수령님의 한평생을 회고하시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창작가들은 곧 창작실로 달려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말씀의 뜻과 감정을 그대로 시행에 옮기고 선률에 담았다. 그 다음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창작가들이 올린 송가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를 여러번 들어보시고 10점짜리 노래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이 송가는 주체61(1972)년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진행된 새해 기념공연때 처음으로 무대에 올라 탄생 60돐을 맞으시는 수령님께 커다란 기쁨을 드리였다.

이밖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0돐에 즈음하여 세계인민들이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공적을 칭송하여 올린 선물들을 나라의 귀중한 국보로 잘 보존하고 길이 전하기 위한 선물진렬관도 훌륭히 꾸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과 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귀중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송가—위대한분이나 인물 또는 력사적의의를 가진 사건에 대한 칭송의 감정을 표현한 시가 또는 그런 음악작품.

혁명적의리—혁명투쟁과정에서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혁명가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참다운 도리.

민족최대의 명절로 성대히 경축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0돐이 하루하루 다가오자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수령님의 탄생기념일을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맞이할것을 한결같이 념원하였다.

우리 인민들의 념원을 깊이 헤아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60돐경축행사를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에서 성대히 진행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이번 경축행사들을 가장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에서 원만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60돐경축 행사준비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드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축행사를 준비하는데서 나서는 과업을 밝혀주시였다.

주체60(1971)년 10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이제 멀지 않아 수령님의 탄생 60돐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뜻깊은 경축행사들을 성대히 진행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축행사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수령님의 높은 권위를 보장하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당과 인민의 통일단결을 널리 시위하는것이라고 하시였다. 계속하여 지금부터 기념행사준비를 빈틈없이 잘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0돐을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로 뜻깊게 기념하려는 인민들의 념원대로 경축행사들이 준비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60돐경축 행사준비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시켜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경축행사준비위원회가 나오고 경축보고대회, 대집단체조공연, 전국의 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어버이수령님의 선물전달모임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계획되였다. 계획은 적극 추진되여갔다.

그러던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로부터 뜻밖의 보고를 받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60돐경축행사들을 크게 준비한다는것을 아시고 전국의 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는것만 승인하시고 다른 행사들은 그만두게 하시였다는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축행사준비위원회 일군들에게 행사를 4월 15일과 조선인민군창건 40돐기념일인 4월 25일에 나누어 진행하는 한이 있어도 60돐경축행사준비는 하나도 빼놓지 말고 계속 추진시키도록 하라고 이르시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0돐경축행사준비는 계획대로 추진되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여러가지 뜻깊은 경축행사들이 높은 수준에서 성대히 진행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우선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0돐경축 전국예술축전을 발기하시고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도록 보살펴주시였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로동자예술소조를 비롯한 전국의 부문별예술소조종합공연을 진행하게 하시였다. 또한 전국체육축전을 성대히 진행하며 특히 평양시내 5만명의 학생청소년들이 출연하는 대집단체조 《로동당의 기치따라》를 높은 수준에서 창작공연하도록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이와 함께 중앙경축보고대회와 각 도, 시, 군, 기관, 기업소경축보고회를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에서 진행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60돐경축행사들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을 높이 칭송하고 내외에 널리 선전하는 중요한 정치행사로 전례없이 큰 규모에서 진행되였다.

세계혁명적인민들도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0돐을 경축하여 수많은 축하문과 축전, 축기와 선물들을 올렸다. 그리고 여러가지 다채로운 경축행사들도 조직진행하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0돐경축행사는 반만년의 민족사에서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대정치축전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60돐을 뜻깊게 맞이하도록 하신데 이어 4월 15일을 해마다 민족최대의 명절로 기념하도록 하시였다.

이것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룩해놓으신 또 하나의 불멸의 업적이였다.

축전—명절이나 기념일을 맞으면서 진행하는 국가적 또는 국제적인 체육, 문화, 예술 등의 행사.

6. 조직생활총화와 학습에서 항일유격대식방법 구현

새로운 당생활총화제도 확립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당 제5차대회에서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일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이 력사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당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여야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사업에서 형식주의의 낡은 틀을 마스고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고리의 하나를 당생활총화제도를 바로세우는데서 찾으시였다.

당생활총화제도를 바로세워야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할수 있고 당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당생활총화를 한달에 한번씩 진행하였다. 이런 당생활총화제도를 그대로 두고서는 당원들의 결함을 제때에 고치며 그들을 일상적으로 교양하고 단련시킬수 없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미 **김일성**종합대학시기에 쌓으신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여 먼저 문학예술부문 당조직들에서 새로운 당생활총화제도를 세우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학예술부문사업을 지도하시면서 문학예술부문의 몇개 당세포에서 당생활총화를 2일에 한번 또는 주에 한번씩 하게 하시였다.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예술단 당세포의 당생활총화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이때 세포당원들은 주석단을 만들고 연탁도 가져다놓으며 회의장을 꾸리느라 바삐 돌아가고있었다.

이것을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포회의를 하는데 무슨 격식이 요란한가고 하시며 이런것이 다 낡은 틀이고 재래식이다, 틀이 없이 소박하게 모여앉아서 자기의 당생활을 총화하도록 분위기부터 고쳐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당원들의 토론을 끝까지 들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생활총화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생활총화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키워나가는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자면 어디까지나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시킨 사상생활총화로 되여야 하며 사상투쟁의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계속하여 회의준비로부터 시작하여 총화내용과 진행방법에 이르기까지 당생활총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지도밑에 이 당세포에서는 형식주의의 낡은 틀을 없애고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사상투쟁의 분위기속에서 당생활총화를 실속있게 진행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몇개 당세포에 대한 지도를 통하여 쌓으신 경험에 기초하여 새로운 2일 및 주당생활총화제도를 세울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문학예술부문의 모든 당조직들에서 받아들이도록 하시였다.

새로운 당생활총화제도는 실시되자마자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예술인들속에서 고질적으로 남아있던 자유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이 점차 극복되여가고 항일유격대식으로 일하고 학습하며 생활하는 혁명적기풍이 서게 되였다. 문학예술부문사업에서는 련이어 기적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 새로운 당생활총화제도야말로 당원들을 참다운 혁명가로 키우며 당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당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매우 우월한 당생활총화제도라는것이 실천적으로 확증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확증된 새로운 당생활총화제도를 전당에 일반화하도록 이끄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확증된 2일 및 주당생활총화제도를 전당에 세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주체62(1973)년 8월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책임일군협의회를 소집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로운 당생활총화제도를 전당에 일반화하기 위한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당에 새로운 당생활총화제도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그 본질과 우월성, 생활력을 당원들에게 똑똑히 인식시키고 2일 및 주당생활총화에 대한 강습과 방식상학을 잘 조직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또한 세포를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2일당생활총화단위와 주당생활총화단위를 바로 정하며 당세포비서들과 초급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회의가 있은 다음 새로운 당생활총화제도를 전당에 일반화하기 위한 강습과 방식상학을 조직하도록 하시였다. 한편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결정서를 내려보내여 전당에 새로운 당생활총화제도를 철저히 세우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새로운 당생활총화제도가 짧은 기간에 전당에 철저히 확립되였다.

새로운 당생활총화제도는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리론을 구현하고 항일유격대식당생활총화방법을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킨 혁명적인 당생활총화제도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전당에 새로운 당생활총화제도가 세워짐으로써 당생활에서 나타난 결함들을 제때에 고칠수 있게 되였고 당안에 비판과 사상투쟁의 분위기를 세울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생활에서 전환이 일어나고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이 한층 높아졌다.

문답식학습방법의 일반화

당사업을 참신하게 발전시키자면 당생활총화제도를 바로잡는것과 함께 당사상사업방법을 개선하여야 하였다.

당시 당사상사업방법 특히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학습방법에는

형식주의의 낡은 틀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때 당조직들에서 진행하는 학습방법은 필기전달식강의, 제강을 되풀이하는 학습토론, 필기한 내용을 기계적으로 외워바치는 학습총화 등 틀에 박힌것이였다.

벌써 오래전부터 틀에 박힌 학습방법이 실속없다는것을 느껴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먼저 문화예술부문에서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인 문답식학습방법의 본보기를 창조하도록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2(1973)년 봄 문화예술부 한 책임일군에게 문답식학습방법의 시범을 창조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 사회를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꽉 들어차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자기의 신념으로 간직하도록 하는것이 우리 당 사상사업의 목표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당사상사업의 돌파구는 전당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우는데 있으며 그러자면 학습방법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계속하여 학습자체가 군중자신의 사업으로 되게 하고 군중자신이 학습에 대한 가장 엄격한 통제자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여기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을 계승하고 구현하는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예술영화 《유격대의 오형제》에서 나오는 유격근거지 야학방장면을 생동하게 이야기해주시였다.

영화에서 보는바와 같이 유격근거지 야학선생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문답식학습방법을 야학에 받아들였다. 야학선생은 학생들을 땅편과 바다편으로 갈라놓고 서로 경쟁적으로 우리 나라의 땅과 바다를 자랑하게 하였다. 그런 방법으로 야학생들은 우리 나라는 살기 좋은 삼천리금수강산이라는것, 왜놈들에게 빼앗긴 땅과 바다를 찾기 위해서는 학습과 생활을 잘해야 한다는것을 똑똑히 알게 되였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장면을 실례로 들어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이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 즉 문답식학습방법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문화예술부문에서 학습방법을 문답식으로 전환하여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의 본보기를 창조해보라고 이르시였다.

문화예술부문에서 문답식학습경연의 시범을 창조하기 위한 사업은 이렇게 시작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화부문에서 먼저 문답식학습경연을 하게 하시고 그 과정에 나타나는 편향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주시였다.

문답식학습경연이 진행되던 초기에는 여러가지 편향들이 나타났다. 문답식학습경연을 어쩌다 한번씩 흥미거리로 조직하거나 우에서 내려온 제강을 기계적으로 외워바칠것을 요구하는 현상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일부 단위들에서는 선수본위로 문답식학습경연을 진행하였다.

이 사실을 헤아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타나는 현상들을 지적하시면서 당조직들이 이 사업을 짜고들어 정상적으로 끌고나가도록 일깨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원문과 교시를 기본으로 하여 학습을 심화시키는 방향에서 제목도 설정하고 토론도 실천과 결부하여 깊이있고 폭넓게 하도록 하시였다. 특히 선수본위를 없애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빠짐없이 학습경연에 참가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지도밑에 문답식학습방법은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내면서 영화부문뿐아니라 문화예술부문 전반에 급속히 일반화되여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답식학습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번지게 하기 위하여 주체62(1973)년 6월 중앙예술단체들의 문답식학습경연을 몸소 마련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이 경험에 기초하여 전국의 예술단체들을 다 망라하는 대규모의 문답식학습경연을 발기하시고 세심히 지도해주시였다.

그해 10월말 평양대극장에서는 만사람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제1차 전국예술인학습경연대회가 성대히 열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매일 학습경연 진행정형을 료해하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문답식학습경연을 결속하는 11월 5일 친히 경연대회장에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참가자들앞에서 하신 연설에서 문답식학습방법의 우월성과 그 구현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문답식학습방법의 우월성은 학습에서 형식주의, 교조주의의 낡은 방법을 없애고 학습을 실속있게 조직하며 광범한 대중의 학습열의를 높이고 학습을 대중자신의 사

업으로 전환시킬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또한 학습에서 집단적인 통제와 동지호상간의 방조를 강화하고 학습을 실천과 결부하여 진행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답식학습방법을 널리 받아들이자면 사상동원사업과 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문답식학습을 실정에 맞게 정상적으로 조직하고 그에 대한 총화를 제때에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밑에 진행된 학습경연대회의 전 과정은 누구든지 노력만 한다면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깊이 체득할수 있으며 여기에서 문답식학습방법이 매우 우월한 학습방법이라는것을 보여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확증된 문답식학습방법을 전당에 일반화하도록 이끄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당조직들은 실천에서 그 우월성이 확증된 문답식학습방법을 널리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국예술인학습경연대회이후 문답식학습조직과 관련한 방법론을 세워 각급 당조직들에 내려보내도록 하시였다. 이와 함께 도, 시, 군당위원회들에서 문답식학습의 시범단위를 만들고 그것을 일반화하게 하시였다.

전당에 일반화된 문답식학습방법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조하신 전통적인 학습방법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발전시킨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문답식학습방법을 전당적으로 일반화하도록 하심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학습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당사상사업을 새롭게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게 되였다.

7. 3대기술혁명 힘있게 추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 제5차대회에서 중로동과 경로동,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할데 대한 3대기술혁명과업을 내놓으시였다.

3대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우리 인민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까지 해방할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을 없애며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기본고리를 생산공정의 자동화에서 찾으시고 공업부문에서 전면적자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이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한 이후시기의 기술혁명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데 선차적인 주의를 돌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이 많은 황해제철소(당시)와 김책제철소(당시)에서의 기술혁명수행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그 과정에 적지 않은 일군들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기술혁명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지 못한데로부터 기술혁명수행에서 이러저러한 편향을 범하고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던 시기의 기술혁명은 육체로동을 기계로동으로 바꾸는것이라면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된 이후시기 기술혁명은 기계가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것이 기본특징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된 다음 수행하는 기술혁명의 본질적특징을 명백히 밝혀주심으로써 일군들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기술혁명에 관한 옳바른 인식을 가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기계화의 단계로부터 전면적자동화의 단계로 넘어가는 기술혁명과업을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확신성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1(1972)년 10월23일말씀을 비롯한 여러 말씀들에서 전면적자동화를 실현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대로 우리 인민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영원히 해방하기 위한 인간해방위업을 자신께서 직접 틀어쥐고 끝까지 완성할 결심을 밝히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나라는 예술에서만 아니라 기술면에서도 마땅히 발전된 나라로 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이렇게 시작된 전면적자동화는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경제를 발

전시키며 우리 인민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면적자동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황해제철소를 본보기단위로 꾸리도록 하시였다.

황해제철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부터 수십차례나 찾으시고 이곳 로동계급을 고열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자동화의 구상을 무르익혀오신 곳이였다.

어버이수령님의 구상을 받드시고 벌써 오래전부터 황해제철소의 생산공정들을 자동화할것을 생각해오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황철을 자동화의 본보기단위로 설정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주체62(1973)년 1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 황해제철소를 자동화의 본보기단위로 꾸려 황해제철소가 생산의 자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앞장서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동화의 본보기단위로 꾸리는것을 황해제철소자동화의 목표로 제시하시고 그 단계별과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황해제철소에서 자동화의 불길이 먼저 타오르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황해제철소를 자동화의 본보기단위로 꾸리기 위한 혁명적인 조치들을 련이어 취하시였다. 황해제철소에 유능한 기술일군들도 파견해주시고 황철에 대한 당적, 국가적지원을 주기 위한 대책도 세워주시였다. 그리고 황철의 자동화에서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소결로직장의 자동화문제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이 직장은 건설한지가 오래고 또 먼지가 많이 나는 곳이였다. 이런 조건에서 자동화를 하자면 새로 건설하는것에 못지 않게 자금이 많이 들어야 하였다. 이로부터 일군들은 수지가 맞지 않는다느니, 거기에 매달렸다가는 다른 직장의 자동화를 못한다느니 하면서 주저하고있었다.

이 사실을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황해제철소를 자동화하는데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자본가들은 자동화를 하는데서 돈중심론에 매여달리지만 우리는 사람을 먼

저 생각하고 사람을 먼저 보는 원칙에서 자동화를 실현해야 한다는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바로 이런 원칙에서 황해제철소의 로동계급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철직장의 산업TV화와 무선화를 위하여 자동카메라와 무선전화기, 지령교환대를 보내주시였다. 국내에서 생산하는데 시간이 걸릴 설비들을 지체없이 해결해주기 위하여 다른 나라에 대표단까지 파견해주시였다. 그러시고도 새벽 3시가 넘은 깊은 밤 국제전화로 대표단의 사업정형을 알아보시다가 물건값이 올라 몇가지 설비는 구입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돈이 모자라면 더 보내주겠으니 한대도 빼놓지 말고 다 사가지고 와야 한다고 몇번이나 당부하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베푸신 은정은 끝이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편 자동화를 실현하는 과정에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풀어나가게 하시였다. 그리고 중앙방송분견대와 예술선동대를 파견하여 황철자동화공사장을 기적과 혁신으로 들끓게 하시였으며 련관된 공장, 기업소, 과학연구기관들에서 황철을 적극 돕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황해제철소의 자동화는 성과적으로 추진되였다.

그리하여 1년 남짓한 기간에 황해제철소는 전면적자동화의 본보기단위로 훌륭히 꾸려졌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친히 황해제철소를 찾으시였다.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에서 해방된 로동자들의 흥겨운 작업모습을 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제는 내 마음이 좀 놓인다고 하시면서 황철에 다니던중 제일 기쁘다고 매우 만족해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황해제철소에서 창조된 자동화의 본보기를 온 나라에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황해제철소에서 타오른 자동화의 불길은 삽시에 온 나라에 퍼지게 되였으며 김책제철소, 성진제강소(당시)를 비롯한 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자동화가 실현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전면적자동화의 새 력사는 이렇게 시작되였고 기술혁명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확고히 올라서게 되였다.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경제건설분야에 쌓아올리신 빛나는 업적의 하나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산공정의 자동화와 함께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의 종합적기계화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특히 탄광, 광산들의 채굴설비와 운반설비들을 대형화, 고속도화하며 림업, 건설부문에서도 현대적인 기계설비수단들을 대대적으로 도입하여 기계화수준을 한층 더 높이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공업부문에서 전면적자동화와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을 없애고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줄이는 문제가 성과적으로 해결되여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농촌기술혁명에서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는데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는 논갈이로부터 낟알털기에 이르는 모든 영농작업들을 기계의 힘으로 손쉽게 빨리 수행하는 높은 단계의 기술혁명과업이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여야 농업생산을 늘이고 모든 농사일을 보다 헐하고 흥겹게 함으로써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적극 다그치기 위하여 청산리를 농촌기술혁명의 본보기로 꾸리고 그 성과를 온 나라에 일반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청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신 력사의 땅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0(1971)년 5월 청산리를 찾으시고 청산리를 농촌기술혁명의 본보기로 꾸릴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한때 이 농장에서는 여러대의 모내는기계를 받았으나 처음 써보는 기계이다보니 손에 설고 고장이 자주 난다고 하여 창고에 넣어두고는 손으로 모를 내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산리를 농촌기술혁명의 본보기로 꾸릴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그들의 잘못을 일깨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모내는기계로 모를 내야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수 있으며 모내기를 제철에 끝낼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모내는기계를 처음 만들었을 때 이제는 농민들이 허리를 펴게 되였다고 기뻐하시면서 그 기계를 청산협동농장에 먼저 보내주시였다고 하시며 어떤 일이 있어도 모내는기계로 모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날 농장관리일군들이 농기계를 다룰줄 알아야 농촌기계화를 내밀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기술을 배울데 대해서도 가르치시였다.

며칠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장관리일군들을 당중앙위원회에 부르시고 청산리가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 앞장에 설데 대한 크나큰 믿음을 표시하시였다.

그후에도 논갈이와 모내기, 씨뿌리기, 김매기,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에 이르는 모든 영농작업을 기계화하기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주시였다.

그리하여 청산리를 농촌기술혁명의 본보기단위로 꾸리는 사업이 훌륭히 실현되여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산리에서 창조된 성과와 경험을 온 나라에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나가시였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치는데서 뜨락또르운전수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고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을 농촌기술혁명의 앞장에 서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주체61(1972)년 3월 어느날 황해북도를 현지지도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은파군 양동협동농장과 옥현협동농장의 뜨락또르운전수들을 만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에게 가까운 년간에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뜨락또르운전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뜨락또르운전수들은 농촌에 파견된 당의 기계화초병이라는 높은 영예와 책임감을 깊이 간직하고 일을 주인답고 깐지게 하며 농촌기술혁명의 앞장에 서야 한다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그밖에도 문덕군 룡오리와 동림리, 대홍단군 국영5호종합농장, 신천군과 삼천군의 협동농장들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다그쳐나가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도록 하시였다. 한편 출판보도부문에서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의 본보기를 창조한 청산리의 경험을 널리 소개선전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농촌기술혁명의 주되는 과업인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가 적극 추진됨으로써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가 훨씬 줄어들게 되고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구상이 성과적으로 실현되여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명을 적극 밀고나가시였다.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명을 다그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식료품생산과 가구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는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식료품생산을 공업화하기 위하여 시, 군들에서 국수공장, 밥공장을 비롯한 식료가공공장들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빠른 시일안에 건설하도록 하시였다. 또한 나라의 곳곳에 남새가공공장, 물고기가공공장, 과일가공공장들도 일떠세우도록 적극 밀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가구생산에서도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시였다. 여러가지 부엌세간을 생산하는데서 걸린 문제들을 몸소 풀어주시였으며 우리 식의 가구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이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전국적으로 농촌부락들의 수도화를 다그치며 탁아소, 유치원들을 더 잘 꾸리고 그 능력을 높이는 사업도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지도밑에 식료품생산의 공업화와 농촌수도화가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탁아소, 유치원사업이 개선됨으로써 녀성들이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적지 않게 벗어나 사회주의건설에 보다 적극 참가하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깊은 관심과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3대기술

혁명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여나감으로써 우리 인민들은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벗어나 보다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게 되였다.

소결로—쇠돌가루나 정광을 구워서 덩어리로 만드는 로.

산업TV—산업분야에서 생산과정과 작업과정의 감시조절을 위하여 쓰이는 TV.

산업—인민경제에서 농업생산을 제외한 생산부문.

8. 조국통일3대원칙과 5대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

1960년대에 들어와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격화되는 새 전쟁도발책동과 남조선사회에 대한 군사파쑈통치로 하여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고있었다.

조성된 정세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한시도 늦춤이 없이 더욱 진공적으로 벌려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주체54(1965)년 봄과 주체59(1970)년 5월을 비롯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권위를 가지고 조국을 통일할데 대한 전략사상을 내놓으시였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요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지침이다.

조국통일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방침에는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그러므로 조국통일에 관한 수령님의 사상과 방침을 구현하여야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우리 나라의 실정과 우리 인민의 요구에 맞게 이룩할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일군들에게 조국통일은 어버이수령님의 높으신 권위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수령님의 높으신

권위는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기본열쇠라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권위는 누구에게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높은 권위이고 누구도 허물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이다. 그리고 수령님의 존함은 단결과 투쟁의 기치, 필승의 상징으로 되고있으며 전체 조선인민은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우러르고있었다.

따라서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권위를 가지고 조국을 통일할데 대한 사상은 조국통일을 앞당길수 있는 기본열쇠로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에 대한 전략사상은 우리 당과 인민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위력한 전투적기치로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조국통일전략사상에 기초하여 남조선애국력량을 강화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리시였다.

이 시기 남조선인민들의 반《정부》투쟁기세는 매우 높았다. 그러나 그 투쟁은 반미자주화투쟁,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발전하지 못하고있었다. 그 중요한 원인이 바로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이 높지 못한데 있었다.

주체54(1965)년 4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일군들과 담화를 나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담화에서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숭미사대주의사상을 뿌리빼고 민족자주의식을 높일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특히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선전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전기를 출판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전기를 높은 수준에서 출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후 전기집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기는 1960년대말에 출판되여 세계인민들속에 널리 보급되였다. 이 과정에 남조선애국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의식화, 조직화사업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에 매혹되고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남조선혁명가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는 통일혁명당(당시)이 창건되였다.

이때부터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조국통일의 3대원칙과 5대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1970년대에 들어와 우리 나라 안팎의 정세는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유리하게 전변되여갔다.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과 남의 폭넓은 협상방침을 내놓으시여 북남대화의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그리고 주체61(1972)년 5월 3일에는 북남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온 남측대표와 하신 담화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3대원칙은 우리 민족의 통일념원과 의지를 집대성한 가장 정당한 통일강령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것을 민족공동의 유일한 통일강령으로 내외에 선포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의 기본강령인 3대원칙에 대한 북과 남의 합의가 이루어진 조건에서 북과 남이 3대원칙을 준수할것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작성하여 세상에 발표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러시고는 그것이 성사되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남측은 조국통일3대원칙에 동의를 하고도 정작 세상에 발표할 북과 남의 공동성명초안을 작성할 때 표현과 문구를 가지고 난관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해당 일군을 부르시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 … 남북공동성명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3대원칙의 정신을 철저히 관통시켜야 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추호도 양보할수 없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넓은 도량과 아량있는 포옹력, 진지한 설득력으로 남측대표들을 끝까지 납득시켜 공동성명에 조국통일3대원칙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친히 공동성명의 문장과 표현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다듬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남측이 공동성명초안에 대하여 생트집을 걸고들 때마다 그들에게 조국통일3대원칙이 구현된 공동성명초안을 그대로 접수시키는 방향에서 정치회담이 진행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그해 7월 4일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북남공동성명이 온 세상에 발표되게 되였다.

이것은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북과 남이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으로 내외에 선포하고 조국통일의 앞길에 밝은 전망을 열어놓은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동성명이 발표된 후에도 조국통일3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근기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시였다.

특히 북남대화를 더욱 확대발전시키는데 깊은 주목을 돌리시였다.

그리하여 근 1년간이나 끌어오던 적십자예비회담이 성과적으로 결속되고 주체61(1972)년 8월말부터 적십자본회담이 평양과 서울을 오가면서 진행되게 되였다. 그후에는 북남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의 회의가 3차에 걸쳐 진행되고 민족의 상설적인 공동기구로 북남조절위원회가 정식 구성되였다.

이것은 조국통일의 돌파구를 마련하는데서 이룩된 또 하나의 커다란 전진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5대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북남간의 대화로 온 민족의 통일열기는 더욱 높아졌다.

이에 당황한 남조선괴뢰도당은 민족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한 《특별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민족의 영구분렬을 막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며 주동적인 방안으로서 조국통일5대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5대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해설선전사업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시였다. 이와 함께 대민족회의소집을 5대방침관철의 중요한 고리로 보시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동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시였다.

이밖에도 유엔무대를 통하여 조국통일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통일3대원칙과 5대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세계인민들로부터 더욱더 고립되고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은 보다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

숭미사대주의사상—미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미제를 숭배하고 섬기려는 반동적사상.

권위—사회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큰 영향을 미치고있는 신망과 위세.

9. 위대한 수령님의 국제적권위를 백방으로 보장

위대한 수령님의 인도네시아방문을 적극 보좌

1965년 4월 인도네시아에서는 반둥회의 10돐을 기념하는 국제적인 행사를 성대히 준비하였다.

인도네시아대통령은 높은 국제적권위를 지니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기 나라에서 진행하는 이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행사의 의의를 빛내여주시고 자기들의 앞길을 밝혀주실것을 열렬히 소망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위업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고 국제적혁명력량을 튼튼히 묶어세우실 구상을 안으시고 반둥회의 10돐기념행사가 진행되는 시기에 이 나라를 방문하시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높으신 국제적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보장하는것을 우리 당 대외활동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대외활동을 적극 보좌해드리기 위하여 머나먼 인도네시아방문의 길에 오르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 **반둥회의**
>
> 1955년 4월에 아시아, 아프리카나라 대표들이 반제, 자주, 쁠럭불가담을 위한 각국인민들의 투쟁을 국제적규모에서 조직화할 목적으로 인도네시아의 반둥시에서 진행한 회의이다.

서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시는 나날 어버이수령님의 안녕과 신변안전을 보장해드리는데 첫째가는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대외활동일정은 매우 긴장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도네시아의 수도 쟈까르따에 도착하신 다음날 수도로부터 500리 떨어진 반둥으로 가시여 거기서 진행하는 행사들에 참가하시고 또 다음날에는 반둥에서 400리 떨어져있는 보고르궁전에서 있게 되는 행사에 참가하셔야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도네시아에 도착하신 첫날부터 찌는듯한 무더위도 무릅쓰시고 어버이수령님의 안녕과 신변호위를 위하여 순간의 쉬임도 없이 활동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쟈까르따에 도착하신 다음날 반둥으로 가시게 되였을 때였다.

반둥으로 말하면 반동들의 책동이 가장 심한 곳이였다.

이로부터 인도네시아측에서는 비행기편과 자동차편을 다 준비하였는데 둘중에 어느 편으로 가는것이 더 좋겠는가를 우리측에 문의하여왔다.

반둥으로 가는 길을 밟아보고 결심하기로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날이 밝기 시작하자 곧 길을 떠나시였다.

이때 수행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 휴식하실것을 권고하였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위하는 일이라면 천리라도 가보아야 합니다. 수령님께서 가시는 길을 먼저 밟아보는것은 우리 전사들의 초보적인 도리이고 임무입니다. 우리모두 너나없이 수령님의 호위전사가 되여야 합니다.

수령님의 안녕은 곧 우리 인민의 안녕이고 우리 당의 안녕이며 우리 조선의 안녕입니다.》

그러시고는 오랜 시간에 걸쳐 도로상태와 도로주변의 지형지물들을 낱낱이 료해하고 돌아오시였다.

이에 기초하여 자동차편은 마음이 놓이지 않으니 위대한 수령님을 수카르노대통령의 개인전용비행기편으로 가시게 하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타신 비행기는 먼저 떠나 유람을 하다가 수원들이 탄 비행기가 반둥에 도착한 다음에 내리게 하는것이 좋겠다는 방안을 내놓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신변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면밀한 대책을 세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동차편으로 먼저 비행장에 가시여 수령님을 맞이하시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수카르노대통령은 **김일성**수상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위인이시니 슬하에 있는 젊은 사령관도 위인이심이 틀림없다, 만점짜리행사를 조직해주었다고 감탄하였다. 그리고는 직접 무선마이크를 잡고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호위사업을 지휘하기까지 하였다.

그후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지키는 친위전사가 되시여 바쁜 시간을 보내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신변안전을 첫째가는 본분으로 여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숙소의 정원에서 한밤을 지새우기도 하시고 낮에는 행사장에 나가시여 수령님의 신변호위사업에서 사소한 빈틈도 없도록 세심히 보살펴주기도 하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나라에 머무르시는 전기간 쪽잠 한번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고 어버이수령님의 안녕과 신변호위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인도네시아방문기간 어버이수령님의 국제적권위를 옹호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국제적권위를 옹호하자면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세계혁명력량 재편성에 관한 전략적구상을 널리 선전하여야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로부터 몸소 대외선전활동을 적극 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알리 아르함》사회과학원에서 유명한 강의를 하신 날이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도네시아대통령을 위하여 베푸신 답례연회가 있었다.

이때 그 나라 고위인사들은 위대한 장군님께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답을 주시면서 우리 수령님께서는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중요한것은 단결을 강화하는것이라고 하시였다고 말씀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발전도상나라들이 굳게 단결하면 제국주의자들에게 집단적반격을 가할수 있고 피로써 쟁취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고수할수 있다고 하시며 경제기술적으로 서로 교류하고 협조한다면 제국주의자들의 경제봉쇄를 이겨내고 선진공업국가들 못지 않게 잘살수 있다는데 대하여 해설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에 고위인사들은 저마다 쁠럭불가담운동의 전도가 희망차다, 우리의 전진운동에 특별히 기여할 귀중한 말씀이라고 하면서 감동을 금치 못해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나라는 물론 세계 여러 지역에서 온 수많은 인사들을 만나실 때마다 쁠럭불가담운동의 정당성과 불패성, 신흥세력나라인민들이 단결의 기치를 지켜나갈데 대하여 밝혀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사상을 널리 해설선전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편 대외사업부문 일군들과 수행기자들, 영화촬영가들, 예술인들모두가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대외활동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것을 해설선전하는데 떨쳐나서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세계 진보적인사들속에서는 새 사회건설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이끌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어버이수령님을 칭송하여 인도네시아인민들이 피워올린 **김일성**화가 온 누리에 만발하게 하시였다.

김일성화

김일성화는 란과의 기념란속에 속하는 사철푸른 여러해살이식물이다. 뿌리는 살진수염뿌리이고 줄기는 뿌리목에서 여러대가 모여 나는데 그 높이는 30~70cm, 직경은 1~1.5cm이고 보통 6~8개의 마디로 되였다. 꽃대는 잎이 6~8개 있는 새 줄기끝에서 1~2대가 나와 20~50cm로 자라며 3~15개의 꽃송이들이 송이꽃차례를 이루면서 반달모양으로 드리운다. 꽃은 3개의 꽃잎과 3개의 꽃받침잎으로 되였는데 크기가 7~8cm이고 모두 진분홍보라색이며 꽃받침잎끝이 약간 흰색을 띠는것이 기본특징이다. 꽃은 밑에서부터 올려피는데 첫꽃이 핀 후 3~4일 간격으로 다음꽃이 핀다. 한개 꽃이 피여있는 기간은 약 2개월간이고 한포기에 꽃이 피여있는 기간은 3개월정도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참관하신 보고르식물원은 오랜 력사를 가진 식물원으로서 거기에는 1만여종의 열대식물과 2 000여종의 화초들이 자라고있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별히 아름다운 어느 한 꽃앞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꽃이 매우 아름답고 향기도 좋다고 말씀하시였다.

동행하던 수카르노대통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꽃을 수령님의 존함으로 부르겠다는것을 정중히 말씀올리였다. 이것은 대통령과 인도네시아인민들의 한결같은 흠모의 정을 표시한것이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굳이 사양하시였다.

식물원에서 돌아온 대통령은 그 꽃에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시려는 소망을 다시금 제기해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 그 소망을 들어주실것을 여러차례 간곡하게 말씀드리시였다.

이렇게 되여 적도의 섬나라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불멸의 꽃 **김일성**화가 태여나게 되였다.

그때로부터 10년세월이 흐른 뒤 적도의 섬나라에서 태여난 **김일성**화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충실성에 의하여 조선땅에 뿌리를 내리게 되였으며 오늘은 세계 방방곡곡에서 불멸의 꽃으로 만발하게 되였다.

참으로 어버이수령님의 인도네시아방문을 보좌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활동은 높은 조직적수완과 끝없는 충실성으로 대외사업부문 일군들에게 수령님의 권위와 대외활동을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가를 보여준 숭고한 모범이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한 대외선전 강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세계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열렬히 흠모하면서 주체사상을 적극 따라배우려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열의가 비상히 높아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국제적권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령님의 위대성선전을 기본으로 대외선전사업을 개선강화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의 대외선전사업에서 기본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한 선전입니다.》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지지자, 동정자대렬을 더욱 늘이고 세계혁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러한 요구에 맞게 대외선전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일찍부터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선전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70년대에 들어와 당의 유일적지도밑에 대외선전사업을 통일적으로, 집중적으로 해나갈수 있는 사업체계를 세워주시였다.

그리고 대외선전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강력한 외국문출판기지를 꾸리기 위한 대책도 세워주시였다.

그리하여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선전을 기본으로 대외선전사업을 개선강화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에 기초하여 출판물을 통한 위대성선전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무엇보다 어버이수령님의 고전적로작들을 번역출판하여 세계인민들속에 널리 보급하는데 특별히 큰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은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수행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혁명의 교과서이다.

그런것만큼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들을 번역출판하는 사업은 조금도 미룰수 없는 중대한 사업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0(1971)년 8월 일군들에게 로작번역사업을 잘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몸소 번역출판할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을 정해주시고 로작번역사업과 관련한 통이 큰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 조치에 따라 전국의 우수한 번역원들을 망라한 《**김일성**저작선집》번역출판위원회가 조직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깊은 관심속에 《**김일성**저작선집》을 6개나라말로 번역출판하는 사업이 전례없이 큰 규모에서 벌어지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나날에 어버이수령님의 로작을 손색없이 정확히 번역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혁명과 건설의 대백과전서인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을 정확히 번역하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번역원들은 밤을 새워가며 토론도 하고 며칠씩 연구를 거듭했지만 일부 표현들은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몰라 고심하였다.

이러한 때 대외선전부문 일군을 만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로작을 정확히 번역하는것은 곧 수령님의 권위와 관련되는 문제라고 하시면서 하나의 표현, 하나의 어휘도 원문의 심원한 사상과 조금도 차이나지 않게 잘 번역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로작에서 새로 쓰신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와 같은 단어들은 번역하지 말고 우리 말로 그대로 주며 《완충기》는 《조절기》로 번역할수 있을것이라고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을 번역하는데서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세워주시고 제기되는 문제들도 다 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밑에 주체61(1972)년 4월 15일까지 《**김일성**저작선집》 1권부터 4권까지 번역출판되고 수많은 로작단행본들과 교시발취집들이 련이어 번역출판되여 널리 보급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로작출판물과 함께 《**김일성**동지략전》,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과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 불멸의 업적과 고매한 덕성을 소개하는 책들도 많이 번역출판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주체사상을 깊이 심어주고 주체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의 대렬을 끊임없이 늘여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대외예술활동을 통한 위대성선전을 강화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예술단들을 여러 나라들에 파견하여 예술활동을 하게 하시였다.

특히 주체61(1972)년부터 유럽의 자본주의나라들에로 활동무대를 더욱 넓혀나가도록 하시고 그 첫 예술외교활동으로 만수대예술단의 프랑스방문공연을 발기하시였다.

프랑스는 예술이 일정하게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로서 《세계문화의 중심》, 《예술의 나라》라고 자처하고있었다.

따라서 프랑스방문공연은 서유럽중심부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을 선전하고 예술외교의 돌파구를 여는 중요한 대외공연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로부터 여러차례나 예술인들을 찾으시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본주의세계에 처음으로 들어가 벌리게 될 대외예술활동의 중요성과 의의를 똑바로 알고 공연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하시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음악 및 무용작품들로 공연종목을 짜고 그 형상수준을 높이도록 하시였다.

만수대예술단성원들이 프랑스로 떠날 때에는 유럽땅에서 주체조선의 혁명적예술을 남김없이 시위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옹호보위하는데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깊은 관심속에 진행된 만수대예술단의 프랑스방문공연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관중들은 《20세기 혁명적예술의 본보기》, 《세계최고봉의 예술》이라고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으며 신문과 방송들은 앞을 다투어 공연소식을 전하였다.

그후 련이어 진행된 영국, 이딸리아, 일본방문공연은 자본주의세계를 다시한번 뒤흔들어놓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작전하시고 지휘하신 대외예술활동은 전세계인민들속에서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정을 더욱 두텁게 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선전을 기본으로 하는 대외선전이 힘있게 벌어지게 됨으로써 수령님의 국제적권위와 위신은 더욱 높아지고 주체사상은 세계인민들속에 급속히 전파되여갔다.

후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당 대외선전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가 있은 다음 대외선전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리도록 한 결과 우리 당과 공화국의 국제적권위와 지위는 비할바없이 높아졌다고 하시였다.

백과전서—정치, 경제, 문화, 과학기술 등 여러 부문에 대한 일반적이고 대략적인 지식을 주는 작은 규모의 백과사전. 지식의 각 분야에 대하여 따로따로 쓴 글을 모아 엮은 총서를 이르는 말.

완충기—한 단계의 과업을 수행한 다음 새 단계의 과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새 과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준비사업을 집중적으로 할 목적으로 특별히 설정하는 일정한 기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혁명력사
(중학교 제5학년용)
제 3 판

집 필 부교수 한영본, 부교수 리춘길
심 사 심의위원회
편 집 주 영 콤퓨터편성 리은경
장 정 류명심 교 정 리유미

낸 곳 교육도서출판사
인쇄소 교육도서인쇄공장
2판발행 주체97(2008)년 3월 13일
3판인쇄 주체101(2012)년 5월 18일 3판발행 주체101(2012)년 5월 28일

교—12—보—708 값 10원